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수의학박사 학위논문

## 반려동물 보호자의 돌봄 경험

- 동물 노화, 질병, 죽음을 중심으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산업동물임상의학전공

(수의인문사회학)

주 설 아

# 반려동물 보호자의 돌봄 경험

- 동물 노화, 질병, 죽음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천 명 선

이 논문을 수의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산업동물임상의학전공  
(수의인문사회학)  
주 설 아

주설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이동신 (인)

부위원장 천명선 (인)

위 원 강대중 (인)

위 원 주윤정 (인)

위 원 이기창 (인)

## 국문초록

수의학은 동물을 단순한 의료적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질병과 죽음을 겪는 행위적 주체로 바라보고, 이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상호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임상이 현대 수의학의 주된 현장이 되었고, 반려동물-보호자 관계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건강은 보호자의 돌봄에 의존하며, 또한 동물들의 건강은 보호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반려동물의 노화와 질병, 죽음을 겪으면서 보호자는 여러 실제적 어려움을 마주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곧 동물이 받는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험은 그간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경험한 반려동물의 노화, 질병, 죽음 사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년 이상 개, 고양이를 기른 적 있는 30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수집된 반려동물 보호자 내러티브에 대한 주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인간과 반려동물이 갖는 관계적 의존성으로 인해, 일상적 양육부터 간병 까지를 포함한 돌봄 수행 양상과 범위 변화가 동물의 생애주기를 따라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동물의 변화나 인간과 다른 생애주기에 대한 인식이 돌봄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동물의 신체나 행동에 대한 보호자의 감각뿐 아니라, 과거 경험, 의료적 정보, 지식 등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식 이후, 기존과는 다른 반려동물 돌봄이나 동물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돌봄은 점차 전문화되어야 했고, 특히 동물의 상태와 경험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언어적 교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물을 더욱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보호자들은 상상력을 동

원하고 경험을 통한 지식을 쌓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아프기 시작하는 동물과 살아간다는 것은 신체 접촉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체현된 (상호) 지식과 습관을 쌓는 과정이자, 순탄치 않은 상호변화와 타협, 적응의 과정이었다. 동물의 전 생애를 돌보며 노화, 질병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과 타자, 삶과 죽음에 대한 배움과 성찰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에 더해, 연구 참여자들의 돌봄 경험에서 종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돌봄의 여성성, 즉 민감성과 관계적 가치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동물 의료적 관점에서 동물 돌봄 전환 시기마다 다르게 인식되는, 혹은 지속되는 수의사의 영향과 역할, 그리고 보호자들의 기대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 과정’으로서 돌봄을 이해해야하며, 이러한 이해는 동물의 치료나 가정 간병의 옵션, 혹은 생애말기 의사결정 과정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기반 동물 진료의 필요성과 수의학에서의 ‘돌봄’ 개념 확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반려동물-보호자 돌봄 관계가 갖는 특별한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동물의 신체, 정서, 사회적 측면의 다층적인 돌봄에 관심을 갖고, 이를 수행하는 보호자가 인식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계적 책임과 역할, 그리고 돌봄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주요어 :** 반려동물(개, 고양이), 돌봄, 인간-동물 관계, 반려동물 보호자 경험, 수의사-고객-환자 관계

**학 번 :** 2018-22408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	8
II. 선행연구 검토 .....	10
1. 반려동물-보호자 관계 .....	10
1.1. 반려동물과 보호자 개념 .....	10
1.2.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각종 ‘가족 하기(Doing family)’ .....	11
2. 관계로서 반려동물 돌봄의 이해 .....	16
2.1.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간-동물 의존성 .....	16
2.2. 가정 내 반려동물 돌봄 .....	21
2.3. 반려동물 돌봄의 관계적 특성 .....	24
3. 반려동물 돌봄과 동물 의료 .....	33
3.1. 동물 의료와 동물 환자 .....	33
3.2.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 의료 실천(Veterinary practice) ....	36
3.3. 동물 의료 실천에서 반려동물 보호자 .....	39
4. 선행연구 한계와 연구 필요성 .....	42
III. 연구 방법 .....	43
1. 연구 설계 .....	43
1.1. 연구자 소개 .....	43
1.2. 인간-동물 연구에서 내러티브와 생애사 .....	45
1.3. 면담 설계 .....	49

2. 자료 수집 .....	51
2.1. 연구 참여자 조건 및 모집 .....	51
2.2. 심층 면담 진행 .....	51
2.3. 연구 윤리 승인 .....	52
3. 연구 참여자 .....	52
3.1. 연구 참여자 특성 요약 .....	52
3.2. 연구 참여자 개별 특성 .....	54
3.3. 가구 구성과 돌봄 형태에 따른 연구 참여자 분류 .....	56
4. 자료 분석 .....	58
4.1. 분석 방법 .....	58
4.2. 분석 과정 .....	58
 VI. 연구 결과 .....	61
1. 반려동물 돌봄의 일상적 특성 .....	61
1.1. 가구 구성과 돌봄 형태 유형별 관계적 특성 .....	61
1.2. 돌봄 수행적 특성 .....	67
1.3. 반려동물 돌봄 일상화의 의미 .....	76
2. 반려동물 노화와 질병 경험 .....	77
2.1. 노화와 질병 인식을 통한 다른 생애주기 실감 .....	77
2.2. 돌봄 범위와 양상의 변화 .....	85
2.3. ‘좋은 보호자’ 되기 과정으로서의 의미 .....	99
3. 반려동물 죽음 경험 .....	107
3.1. ‘치료’에서 ‘편안함’으로의 전환기 인식 .....	107
3.2. 혼란과 불확실성 속 변화의 과정 .....	114
3.3. 배움의 의미로서의 상실 .....	128
 V. 논의 및 결론 .....	136

1.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험 재구성 .....	136
1.1.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 노화와 질병, 죽음 경험 .....	136
1.2. 여성 보호자의 반려동물 돌봄 경험 .....	140
2. 연구 의의 및 제언 .....	142
2.1. 돌봄 관계 기반 동물 진료 필요성 .....	142
2.2. 동물 의료에서 ‘돌봄’ 개념화 .....	145
3. 한계 및 향후 과제 .....	146
4. 결론 .....	149
 참고문헌 .....	152
Abstract .....	175
Funding .....	178

##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와 동물 특성 요약 .....	53
[표 2] 연구 참여자와 동물 특성 .....	54
[표 3] 가구 구성과 돌봄 형태에 따른 연구 참여자 유형분류 ....	57
[표 4] 자료 분석 예시 .....	60

## 그 림 목 차

[그림 1]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 노화와 질병, 죽음 경험 모식도 ....	136
--	-----

## I. 서 론

### 1. 연구 배경

수의학 임상 현장은 종의 장벽을 넘어 “환자”와 “의사”를 설정하며, 환자가 “말할” 수 없고, 그들의 주체적 지위(동물)가 항상 “인간” 의료진의 지위에 종속되어 있는 특별하고 제한적인 의료 제공 방식을 갖는다 (Desmond, 2022). 데스몬드는 이 상황에서 동물을 단순한 의료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적 주체(agentive subject)로 인식하고, 동물의 관점에서 수의학적 관행에 대한 이해의 한계와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의 적용은 의사와 환자 관계, 생명윤리 및 건강을 구성하는 현존하는 개념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이며, 또한 동의, 윤리적 의무, 지식의 생산, 동물 의료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 수의학의 실천과 교육 커리큘럼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Desmond, 2022). 전통적으로 수의학 내부에서 논의되어온 주된 동물 진료 담론들은 공리주의적 원칙을 따르며 산업동물에 대한 복지 증진이나, 효율적 치료 관행을 중심으로 논의 되었다 (Fraser, 2008). 인간과의 관계맺음 안에서 인간과 동물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치료나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동안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영향은 간과되기 쉽다. 이들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해석은 인간중심 (특히 수의사-중심) 관점과 근현대 생의학(biomedicine)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Ware, 2018). 그러나 반려동물 임상이 현대 수의학의 주된 현장이 되었고, 반려동물 진료는 전통적 산업 동물 진료에서와는 다르게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더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현재의 수의학은 동물을 단순한 의료적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질병과 죽음을 겪는 행위적 주체로, 반려동물과 보호자 관계에 기반하여 동물의 질병과 치료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자로서의 수의사의 임무는 농장의 가축의 정상적인 생산과 건강 유지로부터 국가의 권력과 안전을 위한 군마 관리와 우역 치료를 거쳐, 인간에게 가치 있는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왔다 (천명선, 2008). 이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환자’가 될 수 있는 동물들의 규모와 범위는 물론,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방식, 즉 수의학과 동물 의료가 개입하는 방식과 동물 진료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전통적으로 농업과 축산업에 뿐만 아니라 수의학의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공동 신체성(shared physicality)’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의료를 거의 구분하지 않았으며 17세기까지 인간에게 사용되는 대부분의 치료법이 동물에게도 사용되었으나, 이후 인간과 동물의 의학은 분화되어 “보다 이원론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Curth, 2010:114). 수세기 동안 민간 수의사나 ‘소 의사’와 같은 수의사들이 대부분의 수의학적 치료를 제공했으나, 18세기 중반부터 유럽과 북미에 설립된 수의과대학들은 수의학을 뚜렷한 전문직으로 확립하고 “인간과는 매우 다른 치료 모델이 동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했다 (Fudge & Palmer 2011). 20세기까지만 해도 수의사들의 주요 환자는 말이었다. 자동차가 도입되면서 말은 운송에 덜 중요해졌고, 수의사들은 식용으로 사육되는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기술을 집중했다 (Kinsley, 1922:13; Ware, 2018 재인용). 이러한 농업적, 산업적 맥락에서 수의사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감정적이지 않은 직업 정신”이 필요했다 (Jones, 2003:13).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사람들이 도시와 교외로 이주하면서 반려동물이 본격적인 돌봄과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반려동물 의학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Swabe, 1999; Jones, 2003). 즉, 지난 세기 동안 동물 의료는 산업동물의 건강 유지(공중 보건)에서 반려동물에게 평생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크게 변화했다 (Ware, 2018)1).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사회가 동물, 적어도 반려동물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Arluke & Sanders 1996; Fudge 2002; Ware, 2018 재인용).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급격한 반려동물 증가와 문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한국에서 개,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는 80년대 말에서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쳐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성장세가 주춤하다가,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난 2000년대 초반이 되면서 말 그대로 ‘붐’이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반려동물 인구의 양적 증가가 즉각적인 질적 인식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안섭민, 2016). 안섭민은 황명철과 김태성의 연구(2013)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인식되고 불리우기 시작하는 시점을 2007년,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시기 즈음이라고 본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한번이라도 길러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6.5%에 달했고,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응답자는 27.9%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 주체와 방식에 따라 예측되는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큰 편차를 보인다. 전체 2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0) 설문에 2020년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고, 약 15%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25%를 웃도는 기존 조사 결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질적 변화는 이들과 강한 유대를 맺고 있는 인간 개인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가족 내에서 특징적이다. 국내에서 진

---

1) 현대 수의학과 동물 의료는 그 범위가 산업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매우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산업동물과 반려동물 수의사에 초점을 맞춘다.

행된 가족 내 반려동물에 대한 이용숙의 연구(2017)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91%가 그들의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용숙(2017)의 연구는 한국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이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에서 이용숙은 반려동물은 ‘일반적인 가족구성원’이 아니라 ‘특별한 가족구성원’이며, 이 관계에는 다음의 특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첫째, 반려동물은 대부분 키우는 사람의 아들/딸/동생으로 여겨지지 부모/손위형제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둘째,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크기나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존재’로 여겨지지 ‘돌봄을 베푸는 존재’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셋째,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신체적 접촉의 대상이 된다. 넷째, 자녀는 성장 후의 독립에 대비해야 하지만, 반려동물은 일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면서 돌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훈육보다는 함께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이다. 동물병원 내 참여관찰을 통해 진행된 안섭민(2016)의 연구는 지속적인 돌봄을 통해 보호자가 ‘개-엄마’로 체화되고 구성되는 과정, 가족의 차원에서 함께 거주하며, 가장 사적이고 일상적인 공간인 집을 공유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여러 공동의 일상적 행위들과 사소한 의례들을 통해 개-가족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관계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반려견의 존재와 상호작용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으로까지 확장된다 (안섭민, 2016).

가정 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개별 가족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사회 수준의 논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Greenebaum, 2004; Canady & Sansone, 2019; 안섭민, 2016). 국내 반려동물 가구의 특성 (한아람 & 송근호, 2020), 반려동물의 증가 및 유기 (김민정, 2013), 장례 및 펫로스(pet loss) (모효정, 2015; 이현서, 2018), 반

려동물 정책과 제도 (김현중 외, 2019) 등의 주제가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논의는 대부분 보호자의 책임 강화나 민원 해결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의 고령화 및 가정 내 인간-동물 관계 양상의 변화에 따라 동물의 죽음까지 최선의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Kogan et al., 2022; Littlewood et al., 2021). 이에 동물 환자의 생애말기 돌봄과 안락사(euthanasia) 의사결정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Goldberg, 2019; Hurn & Badman-King, 2019). 노령 혹은 생애말기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의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의 개와 고양이를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돌보려는 노력은 인간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데 있어서 그들이 느끼는 헌신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더 높았다 (Christiansen, 2013; Britton, 2018). 하지만 생애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물의 건강과 요구되는 돌봄, 그리고 이에 따르는 보호자의 역할 변화는 여러 가지 실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어려움은 동물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가중될 수 있다 (Christiansen, 2013). 이는 반려견의 투병과 죽음 경험과 사유를 그려낸 자서전 『어느 개의 죽음』에서 잘 드러나는데, 저자 장 그르니에는 개의 생애말기 상황의 돌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물) 환자를 서서히 죽이는 일을 자연에게 (신에게 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맡겨놓은 채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하여 그 자연에 대적하지만 그 온 힘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 나를 감동시킨다. 그것은 인간에게 허용되는 한계이다”(p.102-103). 즉, 생애 말기 상황에서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죽음을 앞두고 다양한 한계를 마주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인식 변화의 흐름은 수의사의 역할과 동물 진료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점차 강해지는 인간-동물 유대감은 보호자들이 그들의 늙고 아픈 동물들을 더 기꺼이 돌보거나 비용집약적인 치료에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의사의 입지를 강화할 수는 있겠으나 과잉 진료(over treatment)의 위험을 내포한다 (Sandøe et al., 2015; Yeates, 2013). 또한 보호자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목적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요구하는 치료법이나 돌봄 방식은 수의사 관점에서는 단지 동물의 고통을 연장하는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불명확한 예후에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제시하는 첨단 의료는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제한된 선택지(제시하는 치료를 선택하거나, 아무것도 안하거나)를 제공받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며, 수의사가 권장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 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의사는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도덕적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다 (Brown et al., 2023). 이 과정에서 보호자 불만과 갈등은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신뢰에 영향을 주며, 수의사가 받는 직업적, 윤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점 (Armitage-Chan, 2020)은 보호자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또 다른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수의사가 동물이 살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던 산업동물 진료와는 다르게,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이라는 고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동물병원으로 동물을 데려오는 과정부터 동물 진료가 시작 된다. 수의사는 이를바 ‘고객의존형 전문가’ (Freidson, 1970)로 고객이 갖는 반려동물과의 일상적인 근접성과 동물의 행동에 대한 복잡하고 자세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복약 등 의료 수행에 의존해야 한다. 유아, 노사 상태 등 소통이나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면, 의학에서 환자는 질병 상황이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개

입, 돌봄의 필요 정도를 스스로 주장하거나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환자-의사간의 관계에서의 인간 환자와는 달리 동물 환자는 보호자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수의사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독특한 삼각의 관계 (수의사-고객-환자 관계; Veterinarian-Client-Patient Relationship, VCPR)에 놓이게 된다 (Rollin, 2006). 반려동물 진료 상황은 인간-인간 (보호자-수의사) 상호작용과 인간-동물 (수의사-동물, 보호자-동물)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장이며 (Meehan, 2009), 이에 수의사들은 동물과 보호자 각각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보호자와 동물 사이 관계와 상호작용을 살피는 기술과 지식, 태도가 필요하다.

캐롤린 웨어(Carolyn Ware)의 논문 “수의학과 정신적 상상력: 신체-중심 접근법 (Veterinary Medicine and the Spiritual Imagination: A Body-Centered Approach)”(2018)에서는 반려동물 환자와 인간의 관계가 담긴 내러티브가 갖는 가능성을 강조한다. 웨어는 수의학 전문가의 내러티브와 경험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모델은 동물 연구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존중과 신뢰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웨어는 그의 연구에 동물병원 의료진의 내러티브만을 담았다. 하지만 그 내러티브는 곧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내러티브와 맞닿아 있다. 예를 들어, 동물 진료 시 이루어지는 병력 청취 (history taking)는 직접적인 검사를 진행하기 전, 보호자의 이야기를 통해 동물의 상태와 특성을 1차적으로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보호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동물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은 수의학에서 동물 환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적이고 실제적 방식인 것이다. 또한 보호자들은 수의사들이 동물 진료에서 일시적으로 마주하는 방식에 비해, 동물과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이 훨씬 많은 만큼, 더욱 높은 정서적, 신체적 근접성을 갖는다. 보호자들의 내러티브는 동물과의 직접적이고 체현된(embodyed) 경험을 통한 공감, 지식

형성 등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훨씬 더 풍부하게 담고 있다.

보호자들의 언어를 통한 반려동물-보호자 관계와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수의학의 학문적 발전이나 연구 방법론적 가능성의 확장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적 지원의 근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반려동물의 노화와 질병, 그리고 죽음을 경험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내러티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경험한 반려동물의 노화, 질병, 죽음 사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 이전의 돌봄에 대한 경험적 속성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반려동물-보호자 경험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보호자들은 동물이 나이가 들며 달라지는 건강 상태나 행동을 통해 이에 따른 돌봄 양상의 변화 필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를 인식하는 순간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후 이러한 인식이 야기하는 실제적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수행되는 동물 의료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수의학에서 놓치고 있는 가정 내 동물 돌봄의 어려움이나 실제적 요구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이 보호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의미화 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반려동물-보호자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자들이 반려동물과 생애를 함께하며 경험하는 돌봄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둘째, 보호자들은 동물의 노화와 질병, 죽음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셋째, 보호자들의 인식 이후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며, 이때 동물 의료 실천은 어떻게 투영되는가?

넷째, 보호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 하는가?

## II. 선행연구 검토

### 1. 반려동물-보호자 관계

#### 1.1. 반려동물과 보호자 개념

본 연구에서 ‘보호자’는 국내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소유물’로서의 동물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소유자(owner)를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를 지칭한다.

식품이나 노동력 등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이용보다, 주로 정서적인 역할을 이유로 길들여진 동물들은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pet/companion animal)<sup>2)</sup>로 불린다. 애완동물은 이름이 있고,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람들이 절대 잡아먹지 않는 동물로 정의된다 (Thomas, 1984). 이들 중 일부는 현대의 사회적, 시대적 문맥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부여 받음에 따라,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불리기 시작했다. 사실, 어떤 동물이 애완동물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의 경계는 어떻게 나눌 지에 대해 답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는 인간-동물 관계의 가장 일관적인 특성인 비일관성과 모호성 때문이다 (Irvine & Cilia, 2017). 반면, 개와 고양이는 대표적 반려동물로 인정받는다 (Vigne, 2004; Larson et al., 2012). 개와 고양이들이 인간과 공유한 역사 대부분 이들은 야외에서 살았고, 개의 경우 사냥, 운반, 목축 돋기, 고양이의 경우 유해조수 쫓기 등의 일을 했다 (Serpell, 1987; 2015). 제2차 세계 대전 이

2) 두 용어는 가정에서 인간과 함께 살며 정서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물을 지칭할 때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pet’이 ‘companion animal’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후 개와 고양이는 본격적으로 실내로 이동했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인간과 친밀함을 나누며 함께 사는 동물이 되었다 (Irvine & Cilia, 2017). 친밀한 감정, 공간, 경험을 공유하면서 일상을 함께 하는 동물, 즉, 애완동물은 현재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보편화되었다 (Sandøe et al., 2015:5). 반려동물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빈번해 지면서 오히려 용어가 인식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국립국어원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일컫는다.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 (The 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는 반려동물을 “인간과 일상적인 밀접한 관계에서의 동반자로서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필요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가축 또는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와 상호적 참여에 대한 강조이다 (Sandøe et al., 2015). 이러한 관계를 정의하는 ‘소유권(ownership)’이라는 용어를 ‘후견(guardianship)’ 또는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ASPCA).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동물을 보살피고, 그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런 반려동물과의 관계에 기반해 이들은 주인, 소유자를 넘어 보호자라고 불린다.

## 1.2.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다종 ‘가족 하기(Doing family)’

개와 고양이로 대표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중반 들어 본격적으로 ‘가족으로서의 동물’이라는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초기 연구 (Hickrod & Schmitt 1982; Arluke & Sanders 1996)에서 동물은 ‘아이’나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간 가족 지위를

대체한다고 여겨져 휴머니즘 체계(humanist-model)로 설명되었다 (Power, 2008). 이처럼 휴머니즘 관점을 지닌 연구들은 인간이 반려 동물에 갖는 애착 (Voith, 1985; Bowlby, 1969; Payne, 2015)을 관계의 주축으로 상정한다. 또한 동물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나 사회적 매개체 (DeMello, 2018; Borgi, 2016)의 역할로부터 얻는 인간의 이익을 강조하고, 동물을 포함하는 가족 관계가 인간만을 포함하는 가족 관계와는 다름을 보이려 한다. 이러한 견해는 동물을 가족으로서 데려오더라도 일상적 관행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며, 동물을 가정의 삶에 적합하도록 길들여진 수동적인 몸으로 묘사했다 (Hickrod & Schmitt, 1982; Tuan 1984). 그래서 동물이 가정 내에서 함께 살아가며 일상을 형성하는 방식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Irvine & Cilia, 2017; Power, 2008). 하지만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인간 관계의 대체물이 아니며, 반려동물은 고유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 적극적이고 마음이 있는 개인이라고 가정하는 새로운 연구(Fox, 2006; Charles, 2016; Sanders, 2003, 2007)의 관점은 이런 수동성을 넘어서는데 도움을 준다.

‘동물 전회(the animal turn)’ (Ritvo, 2007)라는 용어의 등장은 인간중심주의 사유로부터의 변동이며,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실험적 연구를 통해 얻어 낸 동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동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동물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한 문제의식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그 변화는 인간과 동물 사이 위계적인 관계와 동물 이용을 당연시했던 전통적 사유에 균열을 만들었다 (김영임, 2021). 동물 전회는 포스트휴머니즘과 연결되며 서로를 발전시켜 왔다. 포스트휴머니즘은 동물 전회 흐름에서 인간과 동물 관계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의 한계와 인본주의 패러다임 극복의 필요성,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적 적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고, 특히 윤리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재정의, 그리고 주관성(subjectivity), 타자성(alterity), 주체성(agency)

등과 같은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기여했다 (Salzani, 2017). 이러한 ‘동물 전회’적 관점에 따라, 최근 일부 연구는 반려동물(적극적인 비인간행위자)이 돌봄 관계 또는 식구나 가구구성원으로 통합된 가정을 다종 가족(multi-species family) (Irvine & Cilia, 2017; Workman, 2021), 혹은 포스트휴먼 가족(post-human family) (Charles, 2016)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다종(multi-species)” 혹은 “인간-너머 (more-than-human)”를 뜻하는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는 용어는 인간과 비인간동물의 상호연관성을 인정하며,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Wolf, 2010). 다종 가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은 포스트휴머니즘 가정의 출현이나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함께 형성하고 가족 활동, 장소 공유, 상호 경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 관행을 인식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Charles, 2016).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 특별하게 얹혀있는 일상적 삶의 복잡성과 서로를 변화시키는 상호작용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으며, 일상의 가족 관행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가족 하기(doing family)”에 보호자와 동물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상세히 기술한다 (Irvine & Cilia, 2017; Charles, 2014; Charles & Davies, 2011; Fox, 2006; Power, 2008, 2012; Shir-Vertesh, 2012; Smith, 2003; Workman, 2021). ‘가족하기’ 개념은 정해진 ‘가족’의 형태를 설명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가족의 행동과 관련된 시간, 공간, 감정, 신체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Morgan, 2011:5; Irvine & Cilia, 2017). 즉, 건강과 신체 관리, 식사 제공, 신체적 친밀감, 심지어 폭력과 같은 관행은 단순히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다.

워크만 (Workman, 2021)의 연구는 다종 가족을 주목할 만한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라고 보며,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포스트휴머니즘’이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 사이의 분명하다고

인식되는 경계를 해체하여 모호하게 만드는 반면, ‘사회구성주의’는 인간 이외의 동물을 포함하도록 가족을 둘러싼 경계를 다시 그리는 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경계의 해체와 재구성의 조합은 다종 가족의 가능성을 만들 어낸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애 과정 관점’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역사적 맥락과 연결된 삶을 통해 삶의 경험을 정리하며, 이는 성인이 되어 ‘내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짐을 설명한다. 배우자, 반려동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선택의 시기와 순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자신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역할과 가족생활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 성인 사이에는 가족의 일원이 될 사람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의 역학관계가 존재하며, 이때 내리는 선택은 우리를 인간 이외의 동물과 더 가깝게 만들고, 이들을 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워크만은 자신을 ‘엄마’ 또는 ‘아빠’로, 반려동물을 ‘내 아이’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기대 행동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이 가족에게 사회 정서적 지원을 기대할 때, 반려동물은 친구이자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를 통해 저자는 인간 너머의 맥락에서 가족의 가능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려동물은 사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표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가족에 포함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형태에 기반한 가족 정의보다 기능에 기반한 가족 정의에 따라 동물이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 (Workman, 2021). 워크만은 돌봄과 의사 결정부터 공간 사용과 일상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종의 가족이 행동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이렇게 가족을 ‘정의’하고 ‘선택’한 후, ‘행동’하는 방식은 가족의 경계를 재구성한다고 밝힌다.

커드워스 (Cudworth, 2019; 2022)는 다종 가정 내에서 ‘개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보호자들이 갖는 인식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의미에 대해 탐색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포스트 휴먼 가정’이란, 개들과 인간이 신체적, 정서적 경계를 다지는 공간이고, 일상적인 관행과 관계가 혼돈된 공간임을 보인다. 또한 각종의 일상, 가사 노동, 종간 커뮤니케이션과 강화되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상호성을 강조한다. 커드워스는 이 과정에서의 인간과 개의 (상호적) 돌봄을 서로 함께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일련의 노동 관행으로 이해하며, 또한 이 경험을 자녀를 돌보는 노동에서의 ‘모성’과 ‘좋은 어머니’의 모티프에서 비롯된, ‘책임감 있는 보호자 (responsible ownership)’와 연결시킨다.

반려동물을 인간에 대한 애착의 대체물로 제한하는 일방적인 관계를 벗어나 가족 내 반려동물과 인간의 상호적인 관계 맷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반려동물-보호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했다. 단순하고 당연한 방식의 일차원적 행위가 아닌, 다양한 맥락과 상황, 관계와 얹히면서 변화하는 상호적인 과정으로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갖는 복잡한 지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각종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관계를 형성하고, 생명과 일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호자가 수행해야하는 일련의 노동과 책임이자, 인간과 동물이 상호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근본적인 ‘가족 하기’로써 이해될 수 있다 (Cudworth, 2022). 이는 가족으로서의 동물을 단순히 돌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봄 과정에서 동물이 가족을 형성하는데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관계로서 반려동물 돌봄의 이해

### 2.1. 인간-동물 관계에 대한 이해와 인간-동물 의존성

#### 1) 인간-동물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 관점들

인간-동물 관계 연구에 관해, 해리엇 리트보 (Harriet Ritvo)는 동물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 과학적 연구가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것이지만, 이 관계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학문 및 연구영역으로 발전한 것은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Ritvo, 2007). 인간-동물 관계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이지만, 동물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태도와 관계,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기 위한 학문적 기틀이 잡히기 시작한 시점은 이 역사에 비해 매우 최근의 일이다. 인간-동물 관계는 학문적 렌즈를 통해 각종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보여 주기도 하고 (Serpell & Barrett, 2017), 개인의 삶과 생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 혹은 특정 시대나,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인식되기도 한다 (Graham et al., 2019; Kean, 2018). 인간 사회의 많은 부분은 비인간동물과의 상호작용, 또는 동물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화되며 이러한 불가피한 연결성을 통해 인간은 인간-동물 관계를 바라본다 (DeMello, 2018:17). 인간과 동물 사이, 관계 맷음과 상호 영향은 그동안 다양한 관점을 통해 설명되어왔다. 그중 애착과 생명애, 공리주의, 사회동물학적도가 대표적인 개념이다. 먼저 애착 (attachment) (Voith, 1985; Bowlby, 1969)은 인간이 동물에게 갖는 유대감에 집중하여, 동물이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감정적 이득과 사회적 윤활유 (social lubricant)로써 기여하는 방식을 다룬다 (Netting et al., 1987;

Demello 2018:41 재인용). 생명애(biophilia) (Wilson, 1984; Demello 2018:210 재인용) 가설은, 인간과 (일부) 동물은 자연적으로 서로 끌어당긴다는 개념으로, 이는 인간과 동물의 유대 및 인간이 동물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구와 다양한 감정을 통해 동물이 문학과 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로도 설명된다. 한편,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접근은, 동물들을 쾌고감수성을 갖는 감응적 존재(sentient being)로서 그들을 도덕적 고려대상으로 바라보며, 인간이 동물로부터 이익을 얻는 인간-동물 관계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신체적, 정서적 상태를 제공해야함을 강조한다 (Singer, 1975; 2002). 반면, 실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동물학척도(sociozoologic scale) (Sanders & Aluke, 1996)는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이득, 쓸모에 따라 인간-동물 관계를 분류하며, 이 척도를 통해 동물을 정의하고, 그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정당화한다 (DeMello, 2018:78). 그러나 인간-동물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 관점이 갖는 인간중심성에 대한 비판을 참고하면 (Donaldson & Kymlicka, 2011; Haraway, 2016; Wolfe, 2003), 고통, 인지 능력 같은 기준은 실제로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맥락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Palmer, 2010). 인간-동물 관계를 상호적인 방식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간의 관계로 바라볼 때, 그 근간에는 ‘의존성’과 ‘돌봄’이 있다 (Hamington, 2017; de La Bellacasa, 2017; Wells & Rodi, 2000; Irvine & Cilia, 2017).

## 2) 인간-동물 의존성과 반려동물의 특별한 의존성

다양한 인간-동물 관계에서, (상호) ‘의존성’은 필연적인 특성이다. 인간-동물 관계는 가축화를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가축화된 동물이란, “인간이 번식과 먹이 공급을 통제하는, 즉 감금 상태에서 인간의 용도에 맞도록 선택적으로 번식시켜 야생 조상으로부터 변화시킨 동물” (Diamond,

1997)로, 가축화 과정은 물리적 제약과 근접성을 기반으로 동물의 형질과 행동을 변화시켰다. 인간에 의존해서 살아가는데 적합한 동물을 만들어 냈고, 이들과 함께하는 인간의 신체와 생활 방식 역시 바꾸어 놓았다 (Serpell, 1996; DeMello, 2018). 이런 상호 의존성은 돌봄이라는 관계의 다른 방식을 만들어 냈다.

여성학자 에바 페더 커테이(Eva Feder Kittay)는 의존성을 살아있는 존재에 내재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상정하고, 이로 인해 돌봄을 주고 받는 관계인 돌봄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본다 (Kittay, 2016:7). 즉, 의존이란 “생존과 존속에 필수적인 특정 능력의 결핍” (Kittay, 2016:106)이며 모든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돌봄은 취약한 상태에 있는 타인을 수발하는 ‘노동’이며, 이 노동은 그 자체로 친밀함과 신뢰를 만들고 결합을 지속시키는 ‘관계’이다. 그리고 정서적인 끈인 ‘관심’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시킨다 (Kittay, 2016:84).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 변수로 결정되는 이러한 의존에 대한 책무가 돌봄이며, 돌봄으로 맺어진 관계인 돌봄 관계의 상호의존은 일반적이다. 이처럼 돌봄의 가치는 존재의 취약성과 필수적인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Kittay, 2016; Engster, 2005). 정치철학자 트론토 (Tronto, 1993:103)는 돌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돌봄을 ‘세계’를 유지, 지속, 복구하여 가능한 한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종의 활동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한다. 그 세계에는 우리 몸, 우리 자신, 환경이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이 복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물망으로 얹혀 있다.

이러한 돌봄의 정의는, 공리주의나 원칙주의 같은 일괄적인 기준에 기반

하여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과는 다른, 타인과의 관계가 출발점인 책임 기반 윤리로서 설명된다. 트론토는 효과적인 돌봄을 위한 태도와 기술인 돌봄의 자질을 분석함에 있어 관심(attentiveness), 책임(responsibility), 역량(competence), 그리고 응답(responsiveness of the care receiver)을 네 가지 요소로 제안하며 돌봄의 관계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Tronto, 1993:127). 또한 헬드 (Held, 2017)는 돌봄에 요구되는 몇 가지 덕목들 (인내, 민감성, 이해력 등)은 하루아침에 갖추어지는 기능이 아니라, 돌봄의 관계적 실천을 통해 터득되는 체현적인 능력임을 강조한다 (허라금, 2018).

인간-동물 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의존성과 돌봄의 특성은 관계 맷음의 방식에 따라 그 정도와 범위가 상이하다. 인간이 가축을 대하는 태도는 모순성(존중과 착취)을 기반으로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모순적 대우는 감정적 고려(애정과 동감)와 경제적 실리 고려 사이에서 비롯된다 (Serpell, 1996). 물론 같은 동물이라도 양육 목적이나 이용 방식, 그들에 대한 태도는 문화나 지역, 심지어 개인에 따라 다르거나, 하나의 동물을 다양한 목적으로 기르기도 한다 (Serpell, 2015). 이때 동물 돌봄의 범위는 동물의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측면에 걸쳐 상이하며, 돌봄 수행 방식과 필요한 능력은 음식과 장소 제공부터 ‘인도적 죽음’까지 매우 다양하다 (Palmer, 2017). 인간은 가축화된 동물들이 생존과 이익을 위해 인간에게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이용을 위한 사육 방식이자, 관계 맷음 안에서의 윤리적인 책임과 의무로서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Engster, 2006).

모든 길들여진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돌봄 관계가 형성되지만, 반려동물-보호자 돌봄 관계는 특별하다. 엉스터 (Engster, 2006)는 특히 동물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의 가장 명확한 실제 사례는 가정 내 반려동물-인간

관계라고 강조한다.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여러 이유로 동물을 입양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동물을 적절하게 돌봐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돌봄 윤리와 관련한 도덕적 직관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요구와 목표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물에게 공감한다.
- (2) 우리는 반려동물이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 때 동물의 요구와 목표를 충족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를 갖는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며, 고통을 피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모든 것은 돌봄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도덕적 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Engster, 2006). 하지만 반려동물 돌봄의 이유는 단지 도덕적 책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상호 애정과 신체적, 정서적 의존성과 친밀성에 기반한다. 또한 개와 고양이의 짧은 생애주기로 인해 대부분의 보호자는 동물보다 오래 사는 것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동물의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의 의무를 수용한다 (Irvine & Cilia, 2017). 따라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상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인간-동물 관계 맷음과 살아감의 방식을 다 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Aaltola, 2013).

## 2.2. 가정 내 반려동물 돌봄

### 1) 가정 내 돌봄

돌봄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활동, 특히 타자의 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갖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Tronto, 1993:103). 가정은 개인적 충위의 돌봄이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Kittay, 2016). 우리는 태어난 직후부터 누군가의 돌봄에 생을 의존하며, 특히 의존의 시기나 상황(유아, 고령, 장애, 질병)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생존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 (Kittay, 2016:5). 아동은 양육과 돌봄을 통해 성장 증진과 사회화를 목표로 하며, 노인 돌봄은 신체적 보호와, 관심과 존경을 기반으로 사회로부터 이탈과 자존감 유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더해 질병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 의존을 야기하며, 또 다른 방식의 돌봄을 요구한다. 신체적 보살핌을 지시하는 양육(nurturing)의 개념에 더해, 돌봄(caring/caregiving)은 관심과 관계, 배려의 의미로 활용되며 정서적 노동까지를 지칭하는 경향이 높다 (임부연, 2023). 또한, 돌봄은 그 자체로 도전적이지만, 노령, 질환 상황에서는 의료적 개입(medical intervention)을 통한 돌봄 역시 필요한 시기이며, 보호자, 환자, 가족에게 관계적,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또 다른 방식의 영향을 미친다 (Given et al., 2001).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것은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가족 간병/돌봄(family caregiving)이란 “일상적인 돌봄의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돌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일컫는다 (Biegel et al., 1991:17; 김유진, 2007 재인용).

한편, 반려동물 돌봄 역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돌봄의 하나이

다 (Hermanns & Mastel-Smith, 2012). 반려동물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고, 씻기는 등의 일차적인 물리적 행위나 단순화된 노동의 형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 개념으로는 실제 가정 내 인간과 동물의 관계 맷음과 살아감의 방식을 입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 2) 가정 내 인간 돌봄과 반려동물 돌봄의 차이

함께 살기위해, 보호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행위’를 통해 동물을 돌봐야한다. 오늘날 가정에서의 개와 고양이 돌봄은 기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안위를 보장하고, 적절한 복지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인간 가족 구성원 돌봄 특성과 유사하지만, 동시에 인간 돌봄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 갖는 ‘관계적 의존성’이다. 개와 고양이는 생물학적, 생리학적 측면으로 볼 때, 태어난 이후 몇 주에서 몇 달 혹은 심각한 지병이나 생애말기 시기를 제외하면 스스로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하지만, 사회-환경적 요인, 즉 인간과의 관계로 인해 스스로 자원을 얻거나 살아갈 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며(마련할 필요가 없으며), 인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동물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돌봄 제공이 필요하다. 반면,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 물리적, 정서적 근접성과 관계적 의존성은 동시에 학대와 착취의 위험을 동반한다 (Tuan, 1984). 이러한 돌봄의 이면은 동물과 그 보호자들의 삶과 관계 안에 내재된 복잡성과 다면성을 암시한다.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성은, 동물의 짧은 생애 주기로 인해 보호자는 본인의 삶의 일부동안 동물의 전 생애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방식은 항상성과 지속성을 띠면서도, 시기에 따라 보호자의 주된 돌봄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체적 양육, 정서적 충족을 포함하는 돌봄, 그리고 간병이라는 방식이 생애 주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겹쳐지며 동물에게 제공되어야함을 의미 한다. 특히 생애 말기 반려동물 보호자가 행하는 돌봄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동물 환자의 특성으로 인해, 치료(treatment or therapy)나 완화(palliation)를 위한 투약(medication or administration), 병원 방문 등 간병 및 간호(caregiving for patient/nursing)까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안락사에 대한 의사 결정까지도 수행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Christiansen, 2013; Yeates, 2010; Schuurman, 2017).

최근 10여 년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이나 노인 돌봄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주요 안건이 되었다. 저출산이나 고령사회를 돌봄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여기고 돌봄을 국가와 사회, 가족이 함께 풀어 가야 할 보편적 필요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돌봄의 탈가족화와 사회화의 요구를 중심으로 국가 수준의 정책과 제도, 사회적 지원의 도입 및 확대가 전개되고 있다 (허라금, 2018). 이에 비해, 국내 전체 가구의 약 15-20%로 추정되는 반려동물 가구에서의 동물 돌봄은 아직 개인적인 층위의 ‘사적인’ 돌봄과 삶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가족 내 반려동물의 전 생애에 걸친 보호자 경험의 다층적이고 상호적인 특성은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돌봄 관계의 실제적 이해의 부재는 동물학대, 유기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근시적이고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지원을 위해서는 최근 돌봄 이론이 설명하는 돌봄의 관계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이해와 논의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2.3. 반려동물 돌봄의 관계적 특성

### 1) 상호의존성과 돌봄 관계의 확장

그간 돌봄의 제공자이자 수혜자는 인간만으로 제한되어 이해되었지만, 에코페미니즘과 여성주의 동물학에서는 인간이 다른 생물과 자연 환경을 돌보는 것이 물질적,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Donovan & Adams, 2007; de La Bellacasa, 2017). 주윤정(2020)은 이태성 (2017:27)의 연구와 폭스와 알드레드 (Fox & Alldred, 2016)의 연구를 인용하며 “돌봄은 다른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차이를 인정하며 공통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인간의 감수성에만 국한되지 않는 상호작용과 만남에 대한 관심’이다. 이는 타자에 대한 책임성과 응답능력의 표현이자 ‘상호관계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돌봄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적절하고 실용적인 방식임을 인정할 때, 동물은 중요한 돌봄의 대상이자 주체가 된다 (Engster, 2006; de La Bellacasa, 2012; 2017).

동물에 대한 돌봄은 종종 동물 복지와 혼용된다. 동물 복지는 동물이 쾌고 감수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신체적(영양, 환경, 건강, 행동), 정서적으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상태’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접근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상태를 촉진하는 것을 탐구하는 과학적 분야이다 (Fraser, 2008). 최근 들어 동물의 정서적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돌봄 상황에서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Mellor & Beausoleil, 2015). 돌봄(윤리)의 관점 역시 동물의 고통에 반대하나, 그 이유는 동물의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종에 관계없이 권리나 권리 이론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물과 관계를 맺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ngster, 2006).

한편,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고, 일하고, 놀기 위해 서로를 길들이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 (Haraway, 2003:83)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돌봄이 요구되는데, 이때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친밀성은 돌봄 개념에 추가적인 층을 쌓는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에게 갖는 이러한 애정과 친밀성에는 성별의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서 훨씬 높은 애착과 돌봄 의무를 나타내는데, 이는 여성이 갖는 관계-중심적, 모성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Herzog et al., 1991; Herzog, 2007; Satama & Huopalainen, 2019). 또한, 젠더화된 돌봄 윤리는 관행과 관계를 통해 다른 동물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는 여성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된다 (Donovan & Adams, 2007).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반려동물 돌봄의 이해를 위해서는 돌봄의 여성주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반려동물 돌봄과 여성

돌봄은 여성의 일만은 아니지만, 가정과 사회에서의 돌봄 (노동)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수행되는 돌봄 노동은 (모성의) 젠더화된 책임이자 관계적 책임으로 여겨진다 (Satama & Huopalainen, 2019). 가정 내 돌봄은 생존에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동시에 ‘일’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적이고 여성적인 노동을 의미하거나, 심지어 ‘감상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허라금, 2018; Kittay, 2016:80). 한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려동물과의 일상적인 상호관계는 우리가 동물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반려동물 돌봄 역할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주로 담당한다 (Dotson & Hyatt, 2008; 이용숙, 2017).

사타마와 후오펠라이넨 (Satama & Huopalainen, 2019)은 반려동물 돌봄과 애도의 실천을 ‘젠더 행위’와 연결한다. 반려견과 함께 사는 과정에서의 기쁨과 슬픔을 되돌아보는 자전적 연구를 통해, 아픈 개와의 관계가 돌봄과 슬픔을 ‘젠더화된 신체 노동’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차원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의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끊임없이 ‘협상’되는 돌봄 관행을 경험적으로 탐구함으로써, 비언어적, 신체적 상호 작용을 통해 협상하는 돌봄 과정에서 동물의 주체성이 발현된다고 설명한다. 사타마와 후오펠라이넨은 연구를 통해 돌봄과 슬픔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 연민(compassion)<sup>3)</sup>임을 확인하고, 연민이 힘들고 질망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과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인다. 동물이 늙거나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그로인해 돌봄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관계가 덜 가치 있거나 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동물의 취약성과 불화실한 상황에서의 연민과 감정이 그 관계를 더욱 강하고 깊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Satama & Huopalainen, 2019).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돌봄 대한 이해는 대부분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타마와 후오펠라이넨의 이 경험적 연구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도 돌봄 또는 재생산 노동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관련 업무가 여성학에서 오랫동안 확인해온 일상적 관행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다양한 개념과 실천 속에서 늘 일상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에 반영되지 않았던 ‘돌봄’의 중요성은 20세기 중후반 여성학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여성학에서 돌봄의 학문적 고찰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돌봄이라는 개념과 실천이 여성과 맺는 직접적인 관

---

3) 연민(compassion)은 ‘고통에 대한 공감적이고 역동적인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Kanov et al., 2017:752; Satama & Huopalainen, 2019 재인용)

계를 드러낸다. 돌봄에 대한 이론화를 시작한 캐럴 길리건은 그의 저작 『침묵에서 말하기로』(1982; 2020)에서 돌봄을 여성과 남성의 ‘차별성’, 즉 훨씬 경험적이고 신체적인 여성적 이해와 판단이 가지는 고유성을 드러내 준다는 의미에서 ‘여성적 인식론’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돌봄의 윤리적 주관성의 기원을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두며, 돌봄을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목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돌봄을 양육과 연계하여 신체적 노동으로 인식하는 출발점이었다 (임부연, 2023). 이후 돌봄은 ‘재생산’ 또는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으로 이해되며, 전통적으로 여성이 최소한의 임금 또는 무임금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돌봄 작업을 의미하게 되었다 (Cudworth, 2022).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여성주의 관점은 재생산 또는 가사 활동에 대해서 ‘일’과 ‘노동’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노동의 역할이 자본주의 관계와 사회적 재생산에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Cudworth, 2022). 여성주의 관점은 돌봄을 규범적 성역할이 부여된, 의미나 가치를 찾기 힘든 노동으로 간주하며, 여성이 갖는 돌봄 책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거나 (보부아르, 1993; 허라금, 2020 재인용), 혹은 돌봄의 노동적 가치와 기여를 가시화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허라금, 2018).

오늘날 돌봄은 관계와 일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과 가치’로 간주된다 (허라금, 2018; Kim, 2018; Held, 2017:84; Hamington, 2012). 이는 존재 간 상호취약성과 의존관계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여성이 갖는 관계적 가치와 실천으로서 돌봄을 이해하는, 실질적 관계 속 필요와 맥락에 대한 민감성과 서사에 가치를 두는 “돌봄 관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Kittay, 2016; Gilligan, 2020:199–201; Held, 2017:62). 이와 동시에, 돌봄의 윤리적 가치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 일을 담당하는 이들(주로 여성)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누군가를

돌봄으로써 그 자신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잘 갖춰진 “돌봄 체계”的 필요성을 강조한다 (Kittay, 2016). 하지만 전반적으로 ‘천대’ 받아온 돌봄은 성별을 따라 불평등하게 분담되어있으며, 불충분한 ‘돌봄 체계’로 인해 또 다른 의존을 야기하기도 한다 (Kittay, 2016:80).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 역시 관계적 가치와 상호취약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 대신 동물을’ 혹은 ‘인간과 동물을 함께’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이해의 폭은 달라지고 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주의 관점이 도움이 된다. 한편, 젠더화된 돌봄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된다. 일상의 돌봄은 신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경험되므로, 돌봄을 실천하는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Satama & Huopalainen, 2019).

### 3) 반려동물 돌봄과 몸

돌봄은 ‘몸’을 통해 전달되고 이해된다. 돌봄이 갖는 신체적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감성적 특성을 기본으로 상정하면, 몸을 가진 주체 간 행위로서의 접촉은, 의도와 감정이 즉각적으로 간파되어 반응함과 동시에 이미 교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병혜, 2009). 이러한 근본적인 ‘돌봄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한 돌봄 경험의 의미 성찰이 필요하다 (Reilly, 2018). 관련 이론으로 메를로-퐁티의 몸의 현상학 개념이 유용하다 (심귀연, 2022; Hamington, 2012). 메를로-퐁티에게 주관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몸의 감각 경험이다 (Veit & Browning, 2021). 메를로-퐁티에게 세계는 몸들의 얹힘이다. 몸이 몸을 만나 몸틀(body schema, 몸의 기능적 조건이자 몸 자신)을 형성해가는 세계가 지각 세계이며, 이제 의식은 ‘나는 -를 사유한다’가 아니라, ‘나는

-을 할 수 있다’인 것이다 (Merleau-Ponty, 2002:220-223; 심귀연, 2022:94-96). 한편, 테드 토드바인 (Toadvine, 2014)은 메를로-퐁티가 인간과 동물의 연결성을 지지하고, “이상한 친족 관계(strange kinship)”라고 부를 근거를 발견했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몸을 통한 감각과 교감에 대한 접근은 인간 몸을 넘어 비인간 존재의 몸까지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심귀연, 2022:35).

하나의 몸을 개체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를 몸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뜻한다 (Deleuze, 2001: 182; 이재준, 2021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정동(affect) 개념<sup>4)</sup>은 “우리의 몸이 세상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는 능력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박언주, 2020). 정동은 이러한 몸의 “부대낌” (권명아, 2020)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정동성(inter-affectivity)이란 정동적 상태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정동은 사랑받고 미움 받는 감정, 안정감 등과 관련된다. 상호정동성에 기반한 관계적 현상으로서의 정동은 자유주의 전통의 개인성과 자율적인 주체 개념을 넘어 설 수 있도록 한다 (권명아, 2020). 즉, 신체를 통한 돌봄의 정동적 측면은 돌봄이 ‘두 존재’의 부대낌을 통해 일어나는 실제적인 행위라는 것을 의미하며, 돌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두 존재의 ‘타자성(alterity)’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Hamington, 2017:57). 반려동물과의 돌봄 관계에서 발현되는 특별한 타자성은 돌봄 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4) 정동은 신체를 강조하는 스피노자의 개념에서 비롯되어, 슬프거나, 어둡거나 밝은 상태를 의미하는 정서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관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정동은 변이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들의 힘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운동성을 수반하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활동을 통해 발현되는 능력”이다 (Gregg & Seigworth, 2016). 무엇인가를 지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실재를 가지는 ‘관념’을 만드는데, 이 관념에서 관념으로의 이행 사이에 간극, 혹은 관념 외의 것들을 들뢰즈는 정동이자 변이라고 정의한다. 관념이 “제현적 사유양식”이라면 정동은 “비제현적 사유양식”이다 (Deleuze, 1994:25; 윤수현, 2020 재인용).

#### 4) 반려동물 돌봄과 타자성

해밍턴은 자신의 반려견 벨라와의 경험을 들어 반려동물 돌봄에서의 타자성의 의미를 설명한다 (Hamington, 2017:57-58).

벨라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과 그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 벨라의 행동은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벨라를 돌볼 수밖에 없게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상이 ‘이해의 평형(equilibrium of understanding)’을 제공하지만 항상 답이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 관계에 민감해야 하고, 타협과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해밍턴은 이러한 타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의 부족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는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상황과 욕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타자성’을 존중해야 한다. 돌봄은 단순히 시혜적인 일차원적인 베풀이 아니며, 관계 맷음의 연장선상에서 자신과 타자와의 차이를 존중함이다 (자크 데리다, 최성희, & 문성원 2013; 김용규 & 최성희, 2019). 즉,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감을 통해 이해하면서도, 타자의 관점과 경험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것이다. 즉, 돌봄은 융합(fusion)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the right distance)에 관한 문제이다 (de La Bellacasa, 2017:5).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것은 돌봄의 중요한 습관이지만, 필요의 ‘비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다 (Hamington, 2017:60). 반려동물은 (인간의) 언어로 그들의 필요를 들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성향과 필요를 이해하

기 위해 촉각, 발성, 신체 움직임과 눈빛 등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돌봄은 힘든 일이고, 종의 차이는 이를 더 가중시킨다 (Hamington, 2017:60). 반려동물 돌봄 관계에서의 가부장주의(paternalism)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동물과의 관계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타자를 돌보기 위해 결정을 내리는 일은 필요하다. 진정한 돌봄 관계에서 이러한 결정은 상대방의 ‘표출되는 필요(the expressed needs)’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진다 (Hamington, 2017:58). 허만스와 마스텔스미스 (Hermanns & Mastel-Smith, 2012)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돌봄은 “돌봄 수용자(부모, 자녀, 반려동물 등)의 요구에 응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편안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며 “돌보는 존재의 일부가 되어야하는 경험”이었다 (Hermanns & Mastel-Smith, 2012). 이는 육체적인 돌봄을 넘어, 정서적 연결을 통해 서로 개방적이고 상호 취약해지는 것,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돌봄 경험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유대와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5) 반려동물 돌봄의 다면성

반려동물이 표출하는 필요를 살피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돌봄 관계의 상호적이고 입체적인 특성은 반 두런 (van Dooren, 2014)이 드 라 벨라카사 (de La Bellacasa, 2012)의 개념을 인용하여 정리한 돌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잘 나타난다:

정동적, 윤리적, 그리고 실천적: 이 모든 측면이 중요하다. 정동적 상태로서 돌봄은 지적, 감정적 능력의 산물인, 체현된 현상이다: 돌봄은 타자(another)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감정적

으로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윤리적 의무로서, 돌봄은 타자에게 종속되는 것이며, 그를 돌볼 의무를 인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노동으로서 돌봄은 추상적인 희망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그것은 타자를 돌보기 위해 (가능한 한) 무언가를 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 (2014, p291-292).

드 라 벨라카사 (de La Bellacasa, 2012, 2017)는 앞서 인용한 트론토 (Tronto, 1993)의 돌봄 이론에 비인간존재와의 상호연결성, 상호취약성을 덧붙여 돌봄의 일상적 의미를 해체하고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돌봄의 ‘선과 악’이라는 단순화를 피하면서 돌봄에 대한 관념에 복잡성을 더 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돌봄을 지속적인 사변적 (thinking with) 논의로 확장시키는데,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라는 돌봄의 중요한 질문과 맞닿게 된다. 소아레즈 (Soares, 2020)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동물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며, “좋은 돌봄”은 미리 정해진 일련의 정서적 관행이 아니라 가능한 한 좋은 관계를 재창조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 과정은 사실적 평가나 가치중립적인 확정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의미하며, 동물에 대한 이러한 개입은 수의학 개입이나 동물 의료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sup>5)</sup>.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염려하고 책임지는 돌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돌봄 행위를 둘러싼 동물 의료적 환경과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

5) 반려동물 임상(companion animal veterinary clinics)은 인간중심성과 예외주의를 강조하는 생의학적 지식에 의해 매개되는 관계들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기술과학적 전문성과 후기 자본주의적 반려동물 양육 관행이 맞물리는 현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Soares, 2020).

### 3. 반려동물 돌봄과 동물 의료

#### 3.1. 동물 의료와 동물 환자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 역시 매우 다양한 질병과 증상에 따라 다양한 환자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의학이나 동물 의료 관점에서 환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 의학과는 다른 의미를 갖으며, 동물의 건강 관련 요구와 실천은 동물 의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Huth, 2020). ‘어떻게 동물이 환자가 되는가?’에 대한 답은 단순해 보인다. 하지만 동물 환자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수의학에서의 동물 환자는 전통적인 자연주의적 관점에서의 객관적인 건강과 질병의 개념을 통해 확고한 존재적 근거를 제공받는다고 여겨지지만, 건강과 질병은 변화 가능한 사회-역사적 맥락에 의존한다 (Weich & Grimm, 2018). 의료역사학자 로젠버그(Charles Rosenberg)의 주장처럼 건강과 질병은 생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각 세대의 의료인들의 전문적, 이념적 가치나 기술, 그리고 더 큰 사회문화적 가치관들에 의해서 “결정 (혹은 구성)”된다 (Jones, 1997 재인용).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질병과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상적이고 균형 잡힌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견딜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Lerner, 2017). 한편, 말컴이 그의 글에 인용한 부어스 (Boorse, 1975)의 정의에 따르면, 질병(disease)은 진단(명)이자 종에 따른 특정 기능에 대한 방해를 뜻하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반면, 질환(illness)은 통상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적이거나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가치를 포함한다 (Marcum, 2008:66). 동물의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는 환원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관심(혹은 이익)이 점점 커지면서, 동물의 삶과 죽음에 기존과는 다른 사회·문화·경제적 가치가 반영되기 시작하고, 이에 그들의 건강에 대한 전체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대상 또한 확장되고 있다 (Weich & Grimm, 2018).

결국 동물 환자가 ‘되는’ 과정은 ‘구성’되는 과정이다 (Jones, 1997). 동물 환자의 개념은 동물의 ‘생물로서의 본질’과 동물에 대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 둘 다와 상호작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의학적 지식과 개입은 동물의 삶과 돌봄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Weich & Grimm, 2018). 웨이치와 그림은 동물 질병에 대해 기존의 목적론적이고 공리주의적 관점 대신, 역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 시도한다. 이 접근법은 기존의 동물의 질병 상태와 회복에만 집중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 과학, 동물, 수의사, 보호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시각을 넓힌다. 기본적으로 동물 환자가 갖는 건강에 대한 이익은 ‘질병’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돋기 위한 모든 수의학적 치료는 규범적으로 옳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건강’과 ‘질병’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비롯된 ‘동물 환자’의 의미가 동물의 관점에서 진정한 이익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면, 백신 등의 예방적 치료를 받는 ‘동물 환자’는 실제로는 아픈 상태가 아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가 선이라는 기준 관점에서 접근하면, 건강한 상태에서는 임상적 개입이 필요 없음에도 개입은 지속된다. 반면, 동물 환자에게 수술이나 다른 위해를 수반하는 수의학적 처치는, 이를 정당화 하기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진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비용-이익(cost-benefit) 기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이러한 관점은 동물 진료 상황 외부의 동물의 일상생활(식단, 구충, 주거 환경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Weich & Grimm, 2018). 고양이 비뇨기계 증후군(Feline Urinary Syndrome; FUS)에 대한 존스 (Jones, 1997)의 연구가 좋은 예이다. 야외에서 가정으로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평지에서 오줌을 누는’ 행위가 고양이의 새로운 행동 표준이 되었고, 본래 고양이의 서식 환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배뇨 습성이나 행동이 FUS로 정의되며 질병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존스는 이를 ‘일탈적인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명한다. 즉, (바람직한) 행동 표준을 따르지 않는 고양이는 환자가 되며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건강과 질병의 개념에서 출발한 기존 동물 환자의 개념 - ‘질병’이 있는 상태 -에 대한 재고를 요한다. 즉, 동물이 병에 걸리는 것 혹은 환자가 되는 것은 생물학적 과정의 발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동물 의료는 동물에게 훨씬 더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동물을 환자로 전환함으로써 동물의 삶과 신체를 사회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표준화’에 종속시키며, 표준화 과정에서 건강과 질병의 규범성(normativity)이 형성된다 (Weich & Grimm, 2018). 이렇듯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자가 될 수 있으며, 병에 걸리거나 다쳤다고 해서 모두 동물 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증상을 보이는 모든 동물 환자가 같은 방식으로 치료되는 것도 아니다 (Huth, 2020). 즉 동물이 환자로 ‘인식’되어 수의사에게 제시되고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는 수의학적 개입이 동물 자체만으로 결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동물 환자를 우리가 정의해야 할 대상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대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한다는 수의학의 이념을 강화한다.

한편, 돌보는 사람들의 역할은 동물에 대한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동물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는 동물들의 선호도(자율성)가 그들의 치료적 선택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를 발견하는 것 (Jones, 1997) 역시 포함되며, 이를 반영하면서 한 생명에 대한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축 동물 소유주의 돌봄의 최종 목적은 생산성(productivity) 향상을 위한 것과 다르게, 반려동물 보호자의 돌봄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 반려동물의 안녕(wellbeing) 그 자체인 경우가 많다. ‘애정 경제적’ 가치가 큰 반려동물의 경우 그들이 받는 수의 의료서비스는 인간 환자들이 요구하고 경험하는 의료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 (Schlünder & Schlich, 2009). 그러나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임과 동시에 사유 재산으로서, 제도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쉬운 취약한 존재 (Rollin, 2005)로 간주되기도 한다.

### 3.2.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 의료 실천(Veterinary practice)

개, 고양이와 함께 살며 그들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백신 접종, 구충 관리 등 질병 예방, 신체와 행동 변화 상담, 중성화, 식이 조절, 관절, 피부 및 치아 관리, 급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만성 질환 관리, 생애말기 완화 의료 및 안락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주기별 수의학적(동물 의료적) 개입(veterinary intervention/veterinary care)을 통한 동물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진다 (Soares, 2020). 이러한 동물 의료 실천과 반려동물-인간(보호자, 수의사) 관계가 한 지점에서 마주하는 순간이 ‘동물 진료(veterinary consultation)’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동물 진료에서는 일상적인 검진, 백신 접종, 기생충 관리 등을 수행하거나, 그 외에는 증상이나 질환이 발병한 이후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오늘날 제공되는 동물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은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거나 (어린 개체 예방 접종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치료하는 단기적인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수의학 분야에서 기존의 사후대응적이고 수동적인 거래 기반 프로

세스가 아닌, 반려동물의 일생 동안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수의학적 관리를 장려하는 반려동물 맞춤 의료(pet-specific care)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Ackerman, 2021). 보통 급성 질환은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치료가 가능하나, 관절염, 아토피성 피부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은 반려동물의 남은 생애 동안 연속적인 치료로 관리해야한다. 이러한 만성 질환은 동물이 어릴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병 유무, 경과 속도 등에 차이를 보이며 동물의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려동물 맞춤 의료의 목표는 가능한 경우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여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성공은 수의사가 가정 내 돌봄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 과정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본다 (Ackerman, 2021).

한편,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면서, 혹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동물 의료적 실천의 양상은 바뀌게 된다. 미국동물병원협회(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AAHA)와 국제 동물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nimal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AAHPC)가 2016년 발간한 반려동물 생애말기 케어 가이드라인 (Bishop et al., 2016)에 따르면, 동물에게 제공되는 완화의료(palliative care)란 고통 완화를 통해 환자 삶의 질을 지원하거나 향상시키는 치료를 의미한다. 이때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삶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는 개별 동물의 전체적인 안녕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완화 의료가 시작되는 단계는 임상적으로 질병 말기, 만성 진행성 질환, 진행성이면서 원인이 진단되지 않은 질병, 만성 장애, 말기 노환 상태를 포함한다. 이러한 완화 의료의 시작이 생애말기(end-of-life)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애말기의

시작은 보통 이러한 완화 의료의 시작과 함께 한다 (Bishop et al., 2016). 샐런 (Shanan, 2011)은 생애말기란, 동물의 죽음을 앞두고 ‘질환의 치료(cure)에서 환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하는 돌봄(care)으로 우선순위를 전환할 때’라고 정의한다. 이에 더해, ‘궁극적으로, “안락사와 자연사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자, 그 답은 죽어가는 동물이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생애 말기는 ‘말기 진단부터 동물 환자가 평화롭고 의미 있는 죽음을 경험할 때’까지라고 할 수 있다 (Shearer et al., 2017).

한편, 동물 호스피스(animal hospice)란 생명을 제한하는(life-limiting) 질병이나 장애의 진행 단계에서 동물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관리에 대한 철학이나 프로그램을 뜻한다 (Bishop et al., 2016)<sup>6)</sup>. 동물 말기 진단부터 동물의 사망까지 동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이며, 이때 자연사에 의한 사망이나, 안락사에 의한 사망을 포함한다. 호스피스 지원 자연사(Hospice-supported natural death)란,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의사의 감독 하에 통증 및 기타 불편 증상의 치료를 포함한 완화의료 조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인도적 안락사(humane euthanasia)란 동물의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고통, 불편함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의사 개입에 의한 ‘의도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Bishop et al., 2016). 개와 고양이의 짧은 생애주기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 대부분은 어느 단계에서 동물의 생애말기나 죽음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적 역할과 의사결정을 포함한 동물 의료 실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Christiansen, 2013).

---

6) 현재 국내 동물 의료 현장에서 체계적인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운영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된 논의나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 3.3. 동물 의료 실천에서의 반려동물 보호자

가정 내에서 보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적 실천에 대해 수의사와 동물이 갖는 강한 의존성은 반려동물 의료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이며, 동물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허만스와 마스텔스미스 (Hermanns & Mastel-Smith, 2012)의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수행해야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생애 말기 돌봄(의료적 개입, 안락사 의사결정 등)과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강조했다.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전 생애에 걸쳐 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적 실천을 기본적인 돌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크리스티안센 (Christiansen, 2013)은 아프거나 죽음을 앞둔 반려동물 돌봄 경험과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동물 환자 돌봄의 특수성을 고찰한다. 돌봄으로 인한 보호자 생활방식과 인간-동물 관계의 변화, 이에 대한 보호자의 대응으로서 우선순위 (동물, 경제, 시간 등) 설정, 동물복지 평가, 안락사 고려, 돌봄에 대한 강한 의무감과 특권 상황(가족과 친구들의 돈, 시간 또는 도움을 포함한 자원) 등이 강조되었으며, 동물들에 대한 보호자들의 강렬하고 다양한 감정과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무감)와 결합되어있는 돌봄을 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사회나 국가의 돌봄 지원이 매우 제한적이고 개인의 책임 중심임을 보인다 (Christiansen, 2013). 한편, (인간) 치매환자 보호자와 중증 질환을 가진 반려동물 보호자의 돌봄 경험과 인식(돌봄 부담, 긍정적 경험 인식) 차이를 비교한 브릿顿 (Britton, 2018)의 연구는, 동물 보호자가 치매환자 보호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돌봄 부담을 느끼며 돌봄에서 얻는 긍정적

경험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동물 돌봄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도구적 지원을 늘리는 실질적인 개입이 정서적 개입보다 더 중요함을 암시한다. 반면, 돌봄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 비슷한 수준의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두 돌봄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임을 확인했다.

동물의 건강과 동물 의료 실천에 대한 보호자들의 책임 인식은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동물 의료 체제(veterinary regime)” (Swabe, 1999) 안에서 구성되고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체제(regime)’란 어느 정도 제도화된 행동의 집합으로서, 사회구성원 혹은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관행이나 구속과 관련된 복합적인 구성과 인간관계의 상호의존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물 의료 체제란,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건강과 질병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점점 더 정형화되고 있는 방법들을 의미한다 (Swabe, 1999). 20세기 들어 더욱 증가하는 반려동물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동물 의료 체제의 확장과 전문화의 이중 과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동물 의료 체제의 강화로 이어졌으며, 대중적 인식 속에서 개, 고양이 보호자들은 동물 소유의 ‘책임’으로서 동물 의료 체제 내에서 돌봄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Swabe, 1999). 동물 의료 실천적 맥락에서 보호자의 책임과 자율성을 살펴볼 때, 고객(보호자)은 의사 결정의 일부(또는 전체)를 수의사에게 위임하거나, 고객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 동물복지가 위반되지 않는 이상 법적, 제도적으로 결정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지만, 보호자 의사 결정의 완전한 자율성은 지식의 한계 및 동물의 질병이나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걱정, 의심, 슬픔 때문에 수의사의 ‘권위’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 있다 (Christiansen, 2015).

최근 보호자와 수의사 사이에 존재하는 동물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보호자에 의한 동물 정보 또는 수의사에 의한 동물 질병에 대한 정보)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의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보호자와 수의사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동물 환자의 돌봄과 진료 방향을 설정하는 유대-중심 돌봄(bond-centered care)과 파트너쉽(partnership)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Williams & Jewell 2012; Goldberg, 2019; Spitznagel et al., 2019a). 유대-중심 돌봄이란, 인간과 동물의 유대관계를 보호, 강화 및 존중하기 위한 약속을 반영하는 가치, 기술,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에 기초한다. 이는 보호자들의 정서적 요구가 평가되고 고려되어 치료의 진행과 동물의 건강을 둘러싼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Shearer et al., 2017). 즉, 동물 진료 상황은 동물과 보호자의 이익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 (Brown et al., 2023)을 내리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주체의 독립성을 상정하는 VCPR 관점을 통한 반려동물에게 최선이냐 보호자에게 최선이냐의 이분법적 방식에서 벗어나, 동물과 보호자를 하나의 “돌봄-유닛(care-unit)” (Shields et al., 2006)으로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경험, 반려 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도덕적 직관을 사용하여 고객의 감정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고객의 기대와 감정적 경험을 탐구하는 것은 수의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Matte et al., 2020). 이러한 이론의 실천적 적용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보호자 관점의 경험적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4. 선행연구 한계와 연구 필요성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돌봄의 관계적 특성이 인간-동물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간-동물 관계 근간의 ‘의존성’에 기반하며, 따라서 반려동물-보호자 관계를 돌봄의 실천적인 특성을 통해 바라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돌봄은 실제 ‘몸’을 통해 일어나는 과정이며, 돌봄을 통한 일상 경험의 대부분을 상호 구성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인간-동물 관계와 그들의 경험을 새롭게 이해하는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타마와 후오펠라이넨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보이는 정서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와 그들이 주고받는 상호영향은 매우 놀랍지만, 인간과 동물 간의 정서적 관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단순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직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삶과 관계를 돌봄의 관계적 특성을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는 극소수의 연구에서만 이루어졌다 (Cudworth, 2022; Satama & Huopalainen, 2019). 한편, 이용숙 (2017)이 강조했듯, “가족으로서의 인간-동물 관계의 진정성”은 “동물의 질병과 죽음이라는 실존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여실히” 드러난다. 이 시기는 동물이 보호자에게 특히 높은 ‘의존성’을 보이는 시기이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간-동물 돌봄 관계의 특성이 발현되는 시기이다 (Kogan et al., 2022). 동물의 생애주기 변화라는 사건이 보호자에게 어떤 경험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심충적인 이해는, 곧 그 상황에서 동물이 받게 되는 동물 의료 실천이 투영된 돌봄에 대한 파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보호자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이라는 수의학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실제적 기여를 위해 보호자 경험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 1.1. 연구자 소개

연구자의 관심 주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서의 관계성, 질병과 건강, 죽음에 대한 경험이며,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더 나은 삶과 관계를 위한 실증적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는 두 연구 그룹(Research network for Human-Animal Studies / Research group for Veterinar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에 속해 있으면서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먼저 인간-동물 연구 네트워크 팀은 인문학(문학), 사회과학(사회학, 인류학), 자연과학(수의학, 생태학, 행동학) 융합학술연구팀으로서,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동물 관계의 위계성과 인간중심성을 비판하며, 이들 관계 속에 존재하는 다층성, 비결정성을 드러내고 인간-동물 관계를 재구조화하고자 한다.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자료 구축과 분석을 통해 이론적 정립 뿐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팀의 목적이다. 또 다른 연구팀은 한국수의인문사회학회 소속 연구원들로 구성된 그룹이며, 윤리와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동물 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수의학적 논의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연구 그룹의 연구 철학과 방향성, 소속 연구자들로부터 얻은 학문적 도움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설계되고 진행되었다.

개를 키웠던 경험이 있으며, 현재 연구실에서 고양이를 공동으로 돌보고 있는 연구자는 ‘반려동물-인간 관계’에 대한 신념과 실천의 일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임상수의사 시절 동물병원에서 마주했던 동물 환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로부터 느꼈던 의문들로부터, 그리고 나의 십대와 이십대 중반을 함께한 나의 개와의 삶과 관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비인간존재들과 함께 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고민은 시작되었다. 집안에서 함께 사는 개와 고양이는 무조건적인 신뢰의 대상이자,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간질여지는 애정과 기쁨을 주는 존재로만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들은 일상에서 성가시고, 걱정과 부담을 불러일으키고, 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반려동물은 전 생애를 보호자에게 의존하며, 특히 아프고 늙은 동물은 더욱 취약한 존재가 되어 보호자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인간과 반려동물 관계 맺기는 따뜻하고 부드럽기만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며,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활(死活)의 문제이다. 함께하는 생애는 예측불가능하고, 때로는 도전적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그 수고를 감수하며 이러한 관계를, 그로 인해 달라진 삶과 자신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물론 모두가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나의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과 그들의 반려동물이 공유하는 각각의 생애 경험에 대한 기록이자, 연구자 자신의 반려동물 보호자 경험과 성찰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수의사의 입장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인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에 대한 수용과 해석의 과정을 거쳤으며, 여성 연구자가 (다수의) 여성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나눈 삶의 이야기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자의 경험과 관점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도출됨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염두 하였다. 반복적인 코딩 과정, 연구노트 작성 등

통한 연구자의 성찰 과정, 동료 검토(peer debriefing)를 통해 질적 자료 분석의 편향성을 줄이고,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1.2. 인간-동물 연구에서 내러티브와 생애사

본 연구는 비인간동물의 생애, 특히 노화와 질병, 죽음 경험에 대한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 내러티브 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의 생생한 언어, 상황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주관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다수의 연구대상자를 통한 일반화의 도출이 아니라, 특정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내고 의미가 어떻게 생성, 변형되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그 연구 참여자를 실제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데 있다 (Glesne, 2008). 이러한 질적 연구는 이전까지 연구되지 않은 영역을 탐구할 때 주로 사용하며, 양적 연구를 통해 추후 확인 가능한 관련 변수들을 발견하거나, 현상의 연구에 대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때 사용된다 (Corbin, 2014:34). 또한 의학이나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는 문제(현상)의 매개변수, 해결책의 범위, 그리고 기존 관행과, 추후 가능한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관행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Olson, 2016:13). 본 연구는 개,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의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동물 노화, 질병, 죽음이 어떻게 경험되면서 참여자들의 삶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질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함께 살아가는 경험은 ‘단회적’ 경험이 아닌 ‘과정적’ 경험이다. 따라서 인간-동물 관계 연구에서 단면 설계

(cross-sectional designs)와 같은 방법론적 한계는 인간-동물 관계의 복잡성과 개인적 특성의 과도한 단순화로 인해 결과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Hawkins et al., 2021).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 삶의 특정한 시기를 횡단적으로 분석하여 탐구하는 것보다는 생애 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물의 생애를 중심으로 보호자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반려동물-인간 관계의 전체론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이해하고자 했다.

삶에 녹아있는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내러티브 자료는 반려동물-보호자 경험을 관계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주는 의미와 영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 내러티브란, 개인의 생애사(life history) 또는 개인의 생애 이야기(life story)와 유사하다 (이시원, 2021). 내러티브는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행동 또는 일련의 사건/행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공하는 음성 혹은 문자 텍스트”로도 이해된다 (Czarniawska, 2004; Creswell, 2013:95 인용). 내러티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는 개별적 경험들을 수집하고, 이러한 경험들의 의미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혹은 생애주기 단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Creswell, 2013:95). 생애사 접근법은 생애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의미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개인이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지는 오직 그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며, 생애사 연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공적인 맥락을 발견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의미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 그리고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Min, et al., 2017). 생애사 연구에서 내러티브는 중요한 자료이면서 분석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고유한

목적을 가진 인터뷰에 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의도적으로 돌아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과적으로 생애를 구성하고, 자신의 의미 해석을 덧붙이며, 현재 자신의 관점에서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한다 (강대중, 2009).

내러티브 탐구는 삶의 경험을 중요한 지식과 이해의 근원으로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Clandinin & Roseik, 2007). John Dewey(1983)는 경험의 속성을 상황(situation)맥락에서 활성화되는 연속성(continuity)과 상호작용성(interaction)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제시하고 경험을 분석, 해석, 이해하는 틀로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제시한다. 시간성(temporality)은 경험과 사건, 장소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현재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의 경험은 미래의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사회성(sociality)은 경험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이기에 사회적 맥락 속의 상호작용으로서 참여자의 내적조건(inward)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outward) 모두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장소(place)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의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황의 속성과 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홍영숙, 2014; 구승영, 2019에서 재인용). 이러한 3차원적 탐구 공간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내러티브에 담긴 동물들의 이야기는 동물의 생애주기 단계, 혹은 그들의 생애 주요 사건을 기준으로 단일한, 혹은 복합적인 에피소드, 특정 상황, 혹은 공유하는 문화나 사회적 맥락에서 발견되는 개인적 경험 (Creswell, 2013:100)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인간-동물 관계 연구에서 내러티브는 동물과 공유하는 경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탐구할 기회를 갖

는다 (Buller, 2015).

특정한 삶의 경험에 주어진 인간-동물 관계의 개인적인 의미는 참여자 (또는 그들의 동물)의 일상적이고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이야기 안에서 동물과의 경험과 관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Enders-Slegers, 2000), 반려동물과 함께한 생애사 내러티브를 본 연구의 시작점으로 잡았다. 하지만 (동물을 중앙으로 배치하여) 인간-동물 관계나 생활을 생애사 연구 방법론으로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다. 앤더스-슬래거스 (Enders-Slegers, 2000)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생애사와 반려동물을 키웠던 경험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반려동물의 의미, 상호작용, 동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개인의 질환이나 임종 시 돌봄에 대한 계획 등을 물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인생에서 반려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 인간-동물 유대가 갖는 이러한 의미가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제공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했다. 결과는 동물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할과 함께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돌봄에 대한 책임감의 변화를 발견했다. 이 연구는 인간-동물 관계의 생애사적 의미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동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중요하게 물어보긴 했지만, 동물의 행동에 대한 보호자의 의미 부여와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그 과정의 동물의 반응과 그들의 경험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농장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다룬 루이스 할로웨이 (Lewis Holloway, 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동물의 생애가 좀 더 드러나는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했다. 영국과 웨일스의 취미 농장주들을 인터뷰한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돼지를 우리에 가두는 대신 숲에서 자유롭게 뛰놀게 하고, 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귀 표식 부착을 거부하는 등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자신이 키우는 동물의 환경과 경험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되돌아보았다. 인간 정보 제공자에게 동물

의 생활 경험의 측면을 밝힐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답을 얻음으로써, 동물의 상황과 행동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종간 관계와 동물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다 (Seymour & Wolch, 2010:309-310).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생애를 중심으로 반려 동물과 보호자가 공유하는 경험과 그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각 면담 대상자의 경험, 맥락, 직면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다르고, 또한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이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모든 가정에 적용하기에는 개별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화나 확률의 제시가 아닌, 관심 집단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있다.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인 노화와 질병, 죽음은 특정한 ‘사건’임과 동시에 생애 ‘과정’으로의 경험이다. 생애 사적 내러티브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시간과 맥락의 흐름 속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어떻게 생성되고 구성되는지를 탐구함으로써 본 연구 목적인 연구 참여자 경험의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 1.3. 면담 설계

동물과의 만남, 일상생활, 노화, 질병, 생애말기, 죽음 이후 경험이 반영된 생애사 내러티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면담을 설계했다. 주요 인터뷰 질문은 반려동물-보호자 관계 및 경험과 관련된 선행 연구 (Enders-Slegers, 2000; Hodgson & Darling, 2011; Irvine & Cilia, 2017; Christiansen, 2013) 검토를 바탕으로 도출되었으며 면담 중에 질문이 확

대되거나 추가되었다. 면담을 위해 개발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반려동물을 언제,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오래 키우셨나요?
2. 반려동물과의 일상생활이나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말해주시겠어요?
3.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4. 반려동물의 노화, 심하게 아팠던 경험, 생애 말기 경험에 있다면, 당시에 어땠는지 설명해주세요.
5. (반려동물을 잃었을 경우) 귀하의 반려동물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설명해주시실 수 있는지요. 반려동물 죽음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6. 반려동물과 귀하의 관계(상호작용)는 어떠했나요? 동물과의 관계가 다른 관계(인간-인간, 인간-동물 관계)에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까?
7. 반려동물은 귀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였나요)?
8.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의 시선이나 제도 변화를 느낀 적이 있나요?

## 2. 자료 수집

### 2.1. 연구 참여자 조건 및 모집

연구대상은 10년 이상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키운 적이 있으며, 키우는 동물이 투병중이거나 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적 있는 만 19세 이상 보호자로 설정했다. 개, 고양이로 제한한 이유는, 가장 보편적으로 인간과 친밀함을 나누며 함께 사는 동물이자 (Irvine & Cilia, 2017; Serpell, 1996),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반려동물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종이기 때문이다<sup>7)</sup>. 또한 10년 이상 양육 경험 기준은 개, 고양이의 일반적 평균 수명을 고려하여, 노화, 질병과 죽음 경험에 대한 답변을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설정하였다. 모집 방식은 대학동물병원 반려동물 관련 강의를 통한 공개 모집과 기존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향후 연구 참여자들을 찾는 스노우볼 모집 방식 이용하여 총 30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 2.2. 심층 면담 진행

심층 면담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개별 심층 면담(60-120분) 1회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서면을 통해 추가 문답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반구조적 질문지를 중심

---

7) 통계청에 따르면 고양이와 개는 한국에서 가장 혼한 반려동물이다.  
(<https://www.daily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54809>)

으로 하되, 연구 참여자가 반려동물과의 만남부터 전 생애에 걸친 일화나 일상, 투병, 죽음 등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장려되었다. 면담 내용은 녹음 후 전사를 통해 문서화 되었다.

### 2.3. 연구 윤리 승인

연구 윤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IRB No.1906/002-004 & IRB No. 2101/003-020).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전 사전동의서를 제공받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절차를 거쳤다.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언제든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이후 작성된 녹취록을 메일로 보내고, 수정 및 삭제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거쳤다.

## 3. 연구 참여자

### 3.1. 연구 참여자 특성 요약

본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여성 28명, 남성 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면담 일자 기준) 28세~62세에 분포하고 있었다. 면담 당시

미혼 1인가구는 10명이었으며, 부모님 등 다른 가족구성원과 함께 사는 참여자를 포함하면 미혼 참여자가 18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성년 자녀를 기르는 가구는 다섯이었다. 17명의 연구 참여자가 개 보호자였고, 8명은 고양이 보호자였으며, 개와 고양이 모두를 길렀던 참여자는 5명이었다. 두 번 (혹은 두 마리) 이상의 동물 돌봄 경험이 있던 연구 참여자가 22명이었고, 면담 당시 27명의 연구 참여자가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와 그 반려동물의 특성별 분포는 아래 [표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연구 참여자와 동물 특성 요약

연구 참여자 특성		n=30
성별	여성	28
	남성	2
나이 대	20대	1
	30대	15
가구 구성 (인터뷰 당시)	40대	10
	50대	3
결혼 상태	60대 이상	1
	성인 1인 가구	10
동물 종	성인 2인 이상 가구	15
	성인과 미성년 자녀 포함 가구	5
키웠던 동물 수	미혼	18
	결혼/동거	11
동물 사망 경험	이혼/별거	1
	개	17
동물 종	고양이	8
	개와 고양이	5
키웠던 동물 수	한 마리	8
	두 마리 이상	22
동물 사망 경험	없음	3
	있음	27

### 3.2. 연구 참여자 개별 특성

연구 참여자 30명과 그들의 반려동물에 대해 참여자 성별, 나이, 동물 종(개, 고양이), 생존기간(출생-사망 년도), 가족구성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는 숫자(1-30)로 표기했으며, 그들의 개와 고양이는 P(pet) 뒤에 연구 참여자 숫자(두 마리 이상의 경우 - 뒤 숫자 추가)를 붙여 표기했다. 다수의 동물을 키웠던 경우에는 면담에서 주로 이야기된 대상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와 동물 특성

참여자	성별	나이	동물	종	동물 생존 기간	가족 구성
1	여	37	P1	개	2001-2015	엄마, 여동생
2	여	31	P2	개	2001-2017	부모, 남동생→1인 가구
3	여	44	P3-1	고양이	2005-생존	1인 가구, 고양이 2
			P3-2	고양이	2005-생존	
4	남	39	P4	개	2003-2017	1인 가구→아내, 고양이 3
5	여	40대	P5-1	개	2014-생존	부모, 개 2
			P5-2	개	2015-생존	
6	여	36	P6-1	고양이	2006-생존	부모, 남동생→1인 가구→남편, 고양이 2
			P6-2	고양이	2007-생존	
			P6-3	고양이	2009-2018	
7	여	30	P7	개	2001-2014	부모, 언니, 개 1
8	여	32	P8-1	개	2007-2019	부모, 여동생, 개 1
			P8-2	개	2006-생존	
9	여	62	P9-1	개	2001-2015	남편, (성년) 자녀, 고양이 1
			P9-2	고양이	2017-생존	
10	여	36	P10-1	개	2003-생존	1인 가구→남편, 개 1
			P10-2	개	2000(추정)-2018	

			P10-3	개	2006(추정)-2019	
11	여	38	P11-1	고양이	2006-2019	1인 가구→남편, 자녀, 고양이 5
			P11-2	고양이	2006-2019	
			P11-3	고양이	2007-2016	
12	여	46	P12-1	개	2000-2016	남편, 자녀, 고양이 4
			P12-2	개	2000(추정)-2016	
			P12-3	개	1999(추정)-2016	
			P12-4	고양이	2013-2017	
13	여	50	P13	개	1999-2015	1인 가구→아들
14	여	34	P14	개	2002-2018	부모→1인 가구, 개 1
15	여	31	P15	개	2009-생존	부모, 남동생, 개 1
16	여	43	P16-1	고양이	1999-2014	1인 가구→남편, 고양이 1
			P16-2	고양이	1999-생존	
17	남	30	P17	개	1998-2008	부모, 형→1인 가구
18	여	32	P18-1	고양이	2014-2015	부모→1인 가구, 고양이 3, 개 2
			P18-2	고양이	2018-2020	
			P18-3	개	2005-2020	
19	여	40	P19	개	2008-2018	엄마
20	여	28	P20	개	2011-생존	부모, 오빠→오빠, 개 1
21	여	40	P21-1	개	미상, 사망(14살)	부모→남편, 고양이 7 (임시보호 포함)
			P21-2	고양이	2015-생존	
22	여	51	P22-1	개	2000-2014	부모
			P22-2	개	2000-2004	
			P22-3	개	2003-2017	
23	여	52	P23-1	개	2006-2016	1인 가구, 고양이 3, 개 1
			P23-2	고양이	2010-생존	
24	여	42	P24-1	고양이	2014-2017	1인 가구, 고양이 2
			P24-2	고양이	미상, 사망	
			P24-3	고양이	미상, 생존	
25	여	39	P25-1	개	2015-생존	부모, 언니들→1인 가구→남편, 자녀, 개 1
			P25-2	개	1993-2010	

			P25-3	개	미상, 사망(15살)	
26	여	41	P26-1	고양이	2008(추정)-생존	1인 가구, 고양이 4
			P26-2	고양이	2010(추정)-생존	
27	여	38	P27-1	고양이	2003-2017	1인 가구, 고양이 1
			P27-2	고양이	2005-생존	
28	여	41	P28	개	2003-2020	부모, 언니 2→1인 가구
29	여	39	P29-1	개	1999-2012	부모→남편, 개 2
			P29-2	개	2016-생존	
30	여	44	P30	고양이	2000-2018	부모→남편, 자녀

\*유년기 돌봄 경험 있음 (1, 2, 4, 6, 7, 14, 15, 16, 17, 20, 21, 25, 29)

\*\*반려 동물 사망 경험 없음 (3, 5, 15)

\*\*\*현재 키우고 있지 않음 (1, 2, 13, 17, 19, 22, 28, 30)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4번, 17번 제외)은 여성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면담 내용은 여성 보호자의 경험과 관점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3.3. 가구 구성과 돌봄 형태에 따른 연구 참여자 유형 분류

반려동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이자 가장 가까운 반려자로서 일생을 함께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동물을 키우는 것 그 자체로 많은 제약과 도전이 따르기 때문에, 특정 생애 경로에서는 반려동물의 존재가 큰 부담이거나 일상의 근심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존재 자체로 큰 위안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생애 주기와 가구 구성에 따라 가정 내 인간-반려동물 관계의 의미와 양상은 매우 유동적이며, 이러한 양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참여자들의 ‘가구 구성(기준 가족-독립-결혼)’과 ‘반려동물 돌봄 형태(공동/단독)’를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했다. 가구 생애주기(family

life-cycle) (Morrow-Jones & Wenning, 2005)는 개인이 아동에서 청년, 성년기를 거쳐 노년까지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기 위한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및 자녀의 출가 등 일반적인 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손희주와 남궁미 (2018)가 제시한 가구 생애주기 4단계를 참고하였다. 이는 사회로 진출 준비, 취업, 독립 시기인 ‘가구 진입기’, 결혼, 출산 및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시기인 ‘가구 형성 및 확대기’, 자녀가 출가를 시작하는 시기인 ‘가구 축소기’, 가구원 수의 축소 및 소득 감소 시기인 ‘가구 해체기’로 나누는데,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가구 진입기와 가구 형성 및 확대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참여자가 다수의 유형에 포함되는 경우, 주된 돌봄 경험이 이루어진 시기로 분류하였다. 각 참여자들이 반드시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생애주기를 따라 다른 유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표 3].

[표 3] 가구 구성과 돌봄 형태별 연구 참여자 유형

유형	특성	주 해당참여자	가족 형태 이행경험 참여자
A [기존-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생애주기 변화 없음 (부모, 다인 가구)</li> <li>• 공동 돌봄</li> </ul>	1, 2, 5, 7, 8, 14, 15, 17, 19, 20, 22	29 (독립) 30 (결혼) *부모 돌봄 지속
B [독립-단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 (1인 가구)</li> <li>• 단독 돌봄</li> </ul>	3, 23, 24, 26, 27	18, 28 *독립 후 데려옴
C [독립-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 후 결혼, 출산 경험 (다인 가구)</li> <li>• 공동 돌봄</li> </ul>	9, 12, 21	4, 6, 10, 11, 13, 16, 25 *혼자 키우다 결혼 후 데려옴

## 4. 자료 분석

### 4.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주제 분석 (Braun & Clarke, 2006)이라는 탐색적이고 해석적인 과정을 통하여 반려동물-보호자의 경험을 분석한다. 주제 분석을 통해 연구의 주제가 되는 현상(경험)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 가치, 신념 뿐만 아니라, 이에 연루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Glesne, 2008). 참여자 개인의 경험, 동기, 현실, 의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들의 경험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범위의 담론에 어떻게 영향 받고 있는지” (Braun & Clarke, 2006)와 같은 잠재적 의미를 찾기 위해 본 방법을 택했다. 주제 분석은 양적 연구의 연역적 논리나 일반적인 귀납적 연구논리를 따르기보다는, ‘개연적 삼단논법’의 논리, 즉 내부적으로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며, 연역과 귀납의 논리를 오가며 질적 자료를 정제하는 과정을 따른다 (이동성 & 김영천, 2014). 이를 통해 면담 내용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주제를 식별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구조화함으로써, 방대한 양의 질적 데이터를 상세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Braun & Clarke, 2006).

### 4.2. 분석 과정

주제 분석을 위해 크레스웰 (Creswell, 2013: 212-218)이 제시한 나선형

분석 4단계를 따랐는데, 이는 질적 자료의 수집, 분석, 그리고 글쓰기 과정이 별개의 단계가 아니며, 서로 연결되어 동시적인 과정임을 전제한다 (이동성 & 김영천, 2014). 4단계 중 첫 단계인 ‘자료의 조직화’는 텍스트를 적절한 단위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단계이다. 다음 ‘읽기와 메모하기’는 녹취록을 반복하여 여러 번 읽으면서, 전체 자료를 파악한 상태에서 분석적 메모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인 ‘기술/분석 해석’은 이전 단계에 기초 하여 코드, 주제(범주) 등을 도출하고 해석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자료 제시와 시각화’는 연구 결과를 텍스트, 표, 그림 등의 형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단계이다 (Creswell, 2013:212-218). 또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분석은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개인과 함께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이인경, 2022). 따라서 생애사 내러티브 분석의 두 가지 전제인, 분석은 시간 축과 공간 및 환경 축의 맥락성 내에서 타자와 살아가는 관계를 밝혀야 하는 ‘상황 의존적’이고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점과, 분석 과정은 순환하고 반복하는 나선형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인경, 2022)을 염두하면서 분석을 진행하면서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와 하위 주제 도출을 위해 면담 내용을 코딩하는 과정은 에틱(etic)과 에믹(emic) 접근법을 모두 활용한 실용적 절충식 코딩을 진행했다 (Saldana, 2012).

분석은 대량의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인덱싱하고 코딩하여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도구인 MAXQDA 프로그램 (Kukartz & Rädiker, 2019)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표 4]는 자료 분석의 예시이다.

[표 4] 자료 분석 예시

면담 내용	의미 단위 - 코드	주제 - 하위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혀 몰랐죠. 아우, ‘애들 시간이 이만큼 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진짜, 정말 눈곱만큼도 몰랐어요… 점점 어느 날부터 가니까 애가 수염이 까만 수염이었는데 이게 점점 더 하얘지는 거예요. <b>현 수염이 돼 가는 거예요.</b> … ‘어, 애가 점점 늙어가는구나.’</li> <li>외형도 많이 바뀌긴 하는데 사실 외형은 제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해도 예쁘니까 잘 모르는데 걷는 모습 보고 알았어요. <b>흔들리는 것 보고.</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만큼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생애) 인식</li> <li>노화 인지</li> <li>외형의 변화</li> <li>행동의 변화</li> <li>- 인간과 비슷한 신체적 노화 현상</li> </ul>	<p>노화와 질병 인식을 통한 다른 생애주기 실감</p> <p>- 달라지는 몸을 통해 알아차리기</p>

## VI. 연구 결과

본 장의 1절은 연구 참여자들이 반려동물과 생애를 함께하며 경험하는 일상적 돌봄의 구성과 속성에 대한 것이며, 첫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탐구 결과이다. 이후 2절과 3절은 각각 반려동물 노화와 질병 경험과 반려동물 죽음 경험으로 나누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연구 문제의 주요 개념인 ‘인식’, ‘돌봄 변화와 동물 의료 실천’ 그리고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파악한다.

### 1. 반려동물 돌봄의 일상적 특성

#### 1.1. 가구 구성과 돌봄 형태 유형별 관계적 특성

##### 1) 유형 A [기존-공동]: 기존 가구에서 함께 키우기

이 유형은 가구 생애주기 변화 없이 부모와 함께 살며 동물을 키우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미성년 시기부터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발현성 인기<sup>8)</sup>에 걸쳐 키우는 경우, 동물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주양육자 및 경제

8)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 사회에서 20대는 대부분 학교, 직장, 또한 가정에서 ‘사회적 규범에 맞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당시 한국사회의 대학진학률은 30% 정도에 불과했으며 대학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20대는 노동인력으로서 가족과 사회를 위한 임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과거의 그들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존재였고 이들에 대한 성인 대접은 당연한 것이었다 (김은정, 2014). 하지만 후기 산업

적 조달자 역할은 대부분 부모의 몫이었다. 반면 본인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여 학업이나 일을 해야 하는 시간동안 반려동물은 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맡기고, 퇴근 후에는 함께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가 맺어지거나, 혹은 전적으로 본인이 돌보다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의 언니’, ‘-의 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은 많은 경우 자신의 ‘동생’이나 ‘친구’로 여겨졌고, 드물게 ‘내 자식’ 혹은 ‘부모님 개’로 인식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언니에서 보호자로’의 역할의 변화가 생기기도 했다. 독립 등 가구 이행기를 거치며 역할의 재분배(예: 일상 돌봄 지원에서 경제적 지원 역할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 취업, 결혼 등의 생애 과정을 거치면서 ‘내 식구’였던 동물이 ‘우리 식구’ 혹은 ‘부모님 고양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 식구’였던 동물이 ‘내 개’가 되기도 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는 유형과 유형 사이 명확한 경계가 있기보다, 생애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 2) 유형 B [독립-단독]: 새로운 가구에서 혼자 키우기

본 유형의 경우, 어릴 때부터 동물을 키우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키울 수 없었던 상황으로부터 경제적, 물리적 독립 후 ‘비로소 가능해진’ 관계나, 혼자 살던 도중 ‘내 가족을 꾸리는 마음’으로 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경우, 아니면 기존 가족과 키우던 동물을 독립하면서 데리고 나온

---

사회로 들어오면서 복잡해지는 사회경제구조와 심화되는 경쟁은 표준화된 생애과정을 변화시켰으며, 독립, 가족형성능력 등 사회적으로 규범화되었던 성인의 지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성인기 이행방식의 다양화가 나타났다 (안선영, 2011). 그 배경에는 국가 주도의 교육 정책에 따른 고등교육 확대와 보편화,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청년 고용상황 악화, 여성 교육 확대 및 학업과 직업 준비 기간 연장과 이에 더해 주거 형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의 지연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 (이병희, 2010).

경우가 해당된다. “삶의 원동력”, “내 청춘의 전부”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 다른 유형에서보다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더 깊은 유대감, 교감과 애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학업이나 일을 위해 집을 비워야하는 경우 생기는 돌봄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반면, 혼자 있을 기존 동물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다른 동물을 데려오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부족한 가정 내 지원은 보호자 개인 중심의 돌봄 의무, 책임감,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돌봄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유형 C [독립-공동]: 새로운 가구에서 함께 키우기

해당 유형은 결혼이라는 가구 형성 및 확장 시기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경우이거나, 본인이 키우던 기존 동물 돌봄을 새로운 가구 구성원(남편, 아내, 아이)과 이어가는 경우이다. 결혼 이후 키우게 된 동물들은,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는 존재이자, 결혼 생활의 별별 얘기를 다펼어놓을 수 있는, ‘엄마 같고 언니 같고 딸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또 다른 돌봄 존재’인 자녀의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주위의 우려를 듣기고 하고, 가중되는 돌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동물에게 소홀해지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반면, 기존에 자신이 키우던 동물이 새로운 가정에 편입되면서 관계 양상과 역할이 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행복과 책임을 가족과 함께 나누거나 반대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 4) 유형별 돌봄 관계 차이

연구 참여자 유형마다 인간과 동물이 맺는 관계성과 돌봄 양상에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독립, 결혼이라는 가구 생애주기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 6>는 부모님과 함께 키웠을 때는 (유형 A[기존-공동]) ‘그저 귀여워만 하는 사람’이었던 자신이, 독립 당시 새로운 ‘나의 동물’을 키우게 되면서 (유형 B[독립-단독]) 훨씬 더 무거운 ‘책임’과 동물과의 강한 ‘상호 의지’를 느꼈던 경험을 설명한다. 이를 인간, 동물 구성원간의 ‘결합’의 차이로 보았다.

가족들이 같이 살 때 키웠던 애들에 대해서는 진짜 전 그냥 ‘귀여워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의(그때의) 저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서로 너무 ‘의지’를 많이 하는. 저는 인간 혼자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각자로 개체로 존재하잖아요. 그니깐 서로간의 결합이 이렇게 큰데, 4인 가족과 고양이 3마리 이렇게 결합하면 뭐랄까 다양한 결합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6, 유형 C)

<연구 참여자 6>은 이어서 결혼 후 유형 B[독립-단독]에서 유형 C[독립-공동]로의 변화를 겪으며 경험한 관계적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혼자 살 때 느꼈던 “찐득한 유대감”은 결혼 후 남편과 “감정적 책임감”을 함께 나누는 행복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남편이 작은 거에도 다 같이 신경을 써주니까 ... 그래도 제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죠. 제가 키우던 아이들이니까. 근데 작은 거에도 다 이제 의논을 하게 되니까 ... 그게 구성원끼리 나눠가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생기면, 동물이랑 같이 키우고 싶고, ‘그 아이가 동물을 보는 눈이 자라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

거든요. 근데 되게 ‘찐득한 유대감’ ... 혼자 살 때 그 유대감은 상상을 못할 만큼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되게 좋아요. 남편이랑 잘 지내는 아이들을 봤을 때의 기분이라거나 그건 또 다른 행복이죠. ... 그게 서로 책임감, 감정적인 책임감도 큰 것 같거든요. (6, 유형 C)

이처럼 결혼이나 출산을 경험한 경우,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거나 돌봄 부담을 더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돌봄이나, 관계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25>는 기존에 혼자 키우던 개를 결혼 후 데려와 함께 살면서, 개의 존재가 “분쟁거리”가 되거나, 남편과 함께 돌봄의 책임을 나눌 수 없었던 힘든 과정을 겪었다.

사실 저희 남편은 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 그러다 보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공동으로 데려왔어. 너도 책임져야지.’가 안 되니까. ... 남편하고 같이 이 아이를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한테 뭐를 바라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산책도, 밥 주는 것도, 애정도 바라지 않게 된 것 같아요. (25, 유형 C)

공동 돌봄을 특성으로 하는 유형 A[기존-공동]와 유형 C[독립-공동]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보면 가구 구성원들마다 동물과의 관계 및 돌봄 역할은 각자 달랐으며,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많았다. 혹은 자녀(참여자)가 산책, 식사 챙기기, 목욕, 투약 등 일상의 돌봄을 도맡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을 주양육자로 인식함으로써,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써야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물은 ‘자식’이었고, 다른 가족들은 그냥 같은 집에 살고, 밥을 주는 정도의 ‘동거인’ 관계로 여기기도 했다. 반면, ‘애는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왔지만,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연스럽게 가족 내에서 함께 돌보게 됨으로써, 혼자

였으면 어려웠을 관계를 ‘가족의 힘’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반면, <연구 참여자 7>은 혼자 키우면 ‘잘 키울 자신’이 있지만, 엄마와 언니 때문에 동물의 요구성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토로하며 이를 ‘주양육자와 부양육자의 차이’라고 보았다.

혼자 키우면 ‘잘 키울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요구성 행동 안 하게 만들어 놓으면 엄마가 (먹을 거) 주고. … 싸워도 보고 앉혀놓고 얘기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엄마랑 언니는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뭐 어때?”라는 의견이에요. … 아무래도 이게 주양육자, 부양육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주양육자여서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썼었고, 가족들은 그냥 같은 집에 살고, 밥을 주고 이런 정도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7, 유형 A)

다인 가정에서의 또 다른 갈등은 주 돌봄 제공자와 (경제적) 조달자 (주로 부모나 남편) 사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의존성과 자율성 저하를 설명하는 ‘협력적 갈등’ (Kittay, 2017:101)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동물을 키웠던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과 경제적으로 독립한 이후를 비교하며 ‘(개가) 나랑 조금만 늦게 만났다면’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회상했다. 선행연구 (안설희, 2016; 이용숙, 201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가족 구성원마다의 동일하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양육이나 돌봄 방식, 새로 부과된 업무(특히 청소, 목욕, 먹이주기, 산책, 세탁 등 노동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 또는 돈, 시간, 체력과 같은 돌봄 비용에 대한 태도의 불일치는 가정 내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1.2. 돌봄 수행적 특성

### 1) 관계의 시작과 적응

개, 고양이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계기와 양상은 연구 참여자마다 매우 다양했다. 어린나이에 부모님을 졸라서 데려오거나, 성인이 되고 경제적 자유가 생기면서 자발적으로 데려오거나,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이 데려와 함께 살거나, 부탁을 받아 키우기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동물의 ‘선택’을 받은 경우나, 기존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면서 만난 동물과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 ‘식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만남들은 계획적인 혹은 비계획적인 시작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과정은 가족들과의 타협을 통해, 반대를 무릅쓰고, 혹은 혼자만의 고민과 결심을 거쳐 이루어졌다. 동물에 대한 호기심, 동정심, 애정과 함께 삶의 변화가 필요했던 경우, 혹은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살고 있던 동물이 외롭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나, 기존의 양육 경험이 새로운 동물을 데려오는 이유로 언급되었다. 또한 동물을 키우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키울 결심을 하기도 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돌봄’에 대한 우려가 동물을 데려오는 것을 오랜 시간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새로운 집과 관계,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은 모든 인간과 동물 가구 구성원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합이 맞지 않으면” 돌봄 관계가 조기에 종료(파양)되거나, 평생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돌봄의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 시기는 (반대하던) 다른 가족들의 반응과 그 반응으로 인해 예민해진 동물의 반응이 뒤섞이는 “난리”, 인간과 동물 “서로의 기 싸움”이 일어나는 적응기 혹은 동물이 집안에 적응을 하고, 곁을 내어주기 위해 “마음을 여는” 시기 등으로

표현되었다. 보호자들이나 기존 동물들에게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친밀함을 보이는 동물들도 있었지만, 장기간 (혹은 일생동안) 일정한 ‘거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22>는 각각 달랐던 세 번의 시작 과정을 설명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의지나 합의 과정(혹은 과정의 부재)에 더해 동물의 적응력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재룡이는 이제 엄마가 데려오자 그랬고, 두 번째 좋아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제가 데리고 왔고. (웃음) 그냥 저희 ‘식구’가 ‘열별결에’ 된 거예요. ... (좋아가 죽은 후 동생이) 주워온 강아지(보리)를 저하고 아버지하고 제 여동생하고 셋은 “키우자.” 그런데 이제 엄마는 애 하나 간 거 보니까 속상하신 거죠. “안 키운다.” 그러다가 이게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리(셋째)가. 엄마한테 그렇게 예쁜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어영부영 또 눌러앉은 거죠. 이제 ‘박힌 돌’이 된 거죠. (22, 유형 A)

개와 고양이들은 가정 내 공간 대부분을 공유하면서 거의 모든 생활 패턴을 바꾸게 했다. 식습관, 기상 시간, 청소 주기, 외출 양상, 여행, 생일 기념과 같은 연례 또는 가족 행사, 동물의 필요(혹은 선호)에 초점을 맞춘 소비 패턴, 심지어 주거 지역이나 인테리어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고양이 집에 앉혀 사는’ 거라고 하면서, 집안 살림의 반 이상이 고양이거고, ‘아기 키우는 거랑 똑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 15>를 비롯하여, 모든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에서 가정 내 일상과 역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동물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가 이 집에 뭔가 역할을 하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가족에 적응을 하는 부분이. … 집 안 사람들이 항상 뭘 하면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약간 감시하는, 쳐다보고 그런 게 있었어요. … ‘개는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문 닫아 놓으면 싫어하고. (15, 유형 A)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돌볼 때 동물의 ‘생각’이나 ‘마음’ 즉, 행위성과 주관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파악하는 것은 보호자의 중요한 임무였다.

## 2) 돌봄을 주고받는 몸과 마음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촉각, 시각, 후각, 청각 등 감각적 상호작용은 반려동물-인간 관계의 기본이었다. 먹이기, 씻기기, 놀아주기, 외출하기, 텔벗기, 소통하기, 쓰다듬기, 지켜보기, 신뢰 형성하기, 심지어 재우기까지, 모든 것은 ‘몸’을 통해 이루어졌고 실제적인 행위들을 통해 수행되었다. 신체 접촉은 의사소통과 정서적 관계의 중요한 측면이었다 (Hamington, 2017). <연구 참여자 21>은 동물들의 부드럽고 따뜻한 ‘몸’을 통해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생명감’이 동물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냥 ‘좋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애들을 만지면 따뜻하고, 텔이 있어서 부드럽고, 그 다음에 숨소리가 되게 커요. … 저희 집에는 물건만 있는데 개만 살아있어요. 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얻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 ‘생명감?’이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21, 유형 C)

동물의 변화나 필요는 표정, 행동, 모질, 체온, 음성, 눈물, 체취 또는 대소변 등의 신체성과 육체적 물질성에 대한 보호자들의 감수성을 기반으

로 인식되었다. 일부 동물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와 선호를 드러냈으며, 보호자는 이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고수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때는 무조건적인 적용이 아닌, 동물의 반응을 살피며 동물이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상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제공에 필수적이었다. ‘확실한 자기주장’, ‘고집’, ‘저항’, ‘요구’ 등으로 제시된 반려동물의 독특한 성격과 선호도는 생활과 돌봄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산책 갈까?” 그러면 일단은 별로인 날에는 그냥 시큰둥하고 앉아있고, … 어느 날은 목줄을 껴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목을 들이대요, 나간다고. … 어쨌든 ‘자기주장’은 굉장히 확실한 아이였죠. (I, 유형 A)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은 관계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종간 의사소통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교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26>은 “교감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며, 서로에 대한 집중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반응들을 쌓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서로) 맞춰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재미이며, 쌓일수록 더 맞춰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여자들과 동물들은 자신들만의 “합의된 용어” 또는 “몸의 움직임으로 말하는 언어”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몸짓, 시선, 표정 또는 목소리에서 ‘신호’를 포착하거나 알아차릴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디테일’을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 欲’을 쌓아야 했으며, 이렇게 “우리들만의 신호”를 만드는 과정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호 훈련이라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과 동물도 노력이 필요”하며, 동물들이 뭘 원하는지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 참여자 16>은 기존에 키우던 고양이들을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키우면서, 모든 고양이들의 표현을 이해하는 자신과는 다르게 남편

의 경우 남편-고양이 관계(애정도)마다 ‘캐치’의 가능성 혹은 노력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다. 참여자는 이를 “애정 어린 관찰”로 설명했다.

“야옹”하고 소리를 낼 때 보면 분명 옥타브도 다 달라요. … 그 상황에만 이렇게 표현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 저희 남편은 …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애들 둘한테는 캐치가 가능한데, 나머지 애들한테는 ‘안’ 캐치하는 것 같아요. 전 넷 다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애정 어린 관찰’인 것 같아요. 그 둘은 남편한테 잘 가고 애교가 많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남편이 좀 잘 듣는데, 나머지 둘은 그냥, “여보, 누가 울어.”, “여보, 송이 울어.” 이 정도로 끝나거든요. 근데 콩이랑 광이가 그럴 때, “여보, 광이가 심심하다고 울어.”(웃음) 그것만 봐도 진짜 애정 어린 관찰인 것 같아요. …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애들은. 애들은 말해요. 언어가 다를 뿐이지. (16, 유형 C)

이렇듯 참여자들은 반려동물의 선호와 필요를 포착하기 위해 접촉, 발성 및 신체 움직임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헬드(2017:72)가 강조하듯, 직접 면대면 (face to face)의 성격은 돌봄의 중심이며, 이러한 관계의 근접성이 내에서 발달하는 “촉각적 상호작용(tactile interaction)” (Hamington, 2017:54)은, 의사소통과 정서적 관계의 주요 측면이 됨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 26>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동물에 대한 지식을 ‘살피면서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좀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그 ‘베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애네들의 상태를, 기준에 생활하는 양육 ‘패턴’을 아니까 생활, 애가 행동하는 부분이나 밥을 어떻게 먹는지도 알고. 그리고 어쩌다가 계속 애들을 만지잖아요. …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니까. (웃음).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 결국 그냥 예뻐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관리해주고 하는 상태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화장실도 매일 이렇게 치워줘야 되는 거고. (26, 유형 B)

이렇게 만들어진 상호 ‘언어’와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습관’은 특정한 행동의 단순한 반복만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자극, 선호와 거부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 또는 접근성을 의미했다. 즉, 습관은 몸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체현된 지식(embodied knowledge)” (Hamington, 2012)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편,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산책, 식사 준비, 청소 등은 ‘숙제’, ‘루틴’, ‘꼬박꼬박’ 해야 하는 일로 표현되었다. <연구 참여자 7>은 이러한 습관은 인간과 동물이 상호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담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자는 건 저랑 자고, 먹을 게 필요할 때는 엄마를 찾고, 산책이 가고 싶을 때는 언니한테 가고. 분담을 저희도 분명히 했지만 개도 알아서 저희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7, 유형 A)

이러한 가정 내 일과부터 공간 이용, 몸짓, 접촉의 자연스러운 상호 수용까지를 포함하는 일상의 습관은 체현된 암, 즉 눈, 손, 피부 등 이미 보호자와 동물의 신체에 들어와 있는 “암묵적 지식의 발현” (공병혜, 2009)이었다. 좋은 관계에서는 꾸준히 발전하는 상호민감성과 지식을 통해 서로의 신체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운다 (Held, 2017:110-112).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반려동물과의 이러한 상호민감성을 통해 더 좋은 지적 통찰력을 동원할 수 있고, 이로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3) “까다로운 일(Demanding job)”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부담스러운 일임과 동시에, 복합적인 감정이 양립하는 경험이었다. 반복되는 일상의 관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돌봄 과정에서의 미흡함,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나 갈등으로 인해 분노와 짜증, 불안, 걱정, 꾸준함의 어려움, 슬픔과 죄책감, 자책 등의 감정을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인간과 한 집안에서 함께 사는 것은 개와 고양이에게도 역시 타협과 자제력을 필요로 하는 “까다로운 일(demanding job)” (Haraway, 2003:38; Cudworth, 2022 인용)이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개와 고양이가 애정이나 신뢰, 기쁨, 편안함 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감, 지루함, 불안, 분노 또는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상태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 11>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집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 갇혀있게 되는 상황에서 동물이 보이는 스트레스가 많이 언급되었다.

외출고양이였어요. (입양 당시) 두 살 이상 된 성묘였는데 계속 가출을 하고, 나가면 되게 행복해하다가 부르면 와요. 이런 문제랑 못 나가게 하면 하루 종일 울거나 동물원에 간힌 동물들처럼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동 있잖아요. … 제가 그걸 고쳐보려고 병원도 다녔었는데 항우울제 위주로 처방을 해주시면서 “사실 답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힘들었어요. (11, 유형 C)

<연구 참여자 22>는 이전 동물들과는 다르게 ‘말을 안 듣고’, ‘눈을 부릅뜨고’, ‘항의’를 하는 셋째와 ‘데면데면’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들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예전에는 진짜 몰랐어요. ... 그때 당시에 반려견을 교육하는 게 전부다 강압적이고 막 이렇게 야단 치고 뭐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막 이렇게 안 되는 게 더 많았잖아요. ... “왜 내 말 안 듣지?” 이런 생각을 거의 주로 가졌던 것 같아요. ... 그때부터 ‘데면데면’해지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아, 얘는 좀 다른 성격을 가겼나보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딱히 필요 없으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 제가 몇 번 물리니까. (웃음) 네. ... 야단 칠 때부터 막 성질을 있는 대로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하는데. 아우, 그때부터 알게 됐죠. ‘개들도 이렇게 성향이 다 다르구나.’ 야단쳐도 내가 왜 야단맞아야 되냐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막 ‘항의’를, 얼마나 짖는지. (22, 유형 A)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불편한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했으며, 동물과 보호자 모두 어느 정도 참고 양보하고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많은 경우, 참여자들은 절충안을 찾거나 우선 순위를 재설정해야 했다. 텔날림, 배변, 긁힘(scratching), 공격성이나 물림, 씹기, 짖기, 그리고 다른 힘겹고 지저분한 문제가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주었으며, 가구 구성이나 개인적 환경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참가자들은 동물의 냄새, 텔, 소음, ‘저항’, ‘고집’, 예측불가능성 등을 받아들이고, ‘차이’를 존중하고, 과도한 인간화를 피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내하거나, ‘포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과정은 “생각이 바뀌는, 내 시선이 아니라 얘 시선으로 보게 되는, 얘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개가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 4) 돌봄 ‘비용’과 ‘밸런스’

참여자들은 동물을 데려올 때 ‘단지 시간을 내고, 공간을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늦은 퇴근 후 수행해야하는 “나를 갈아 넣는”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긴 하지만, 동물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자신의 노력만큼 느껴지는 동물의 활력’이 동력이 되어 계속할 수 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며, ‘본인의 생활’과 ‘동물의 생활’에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 21>은 독립할 수 없는 동물들과 ‘끝까지’ 같이 살기 위한 생애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 늘 고민한다고 했다.

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제 인생이 20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 달리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쓰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거죠, 사람한테 쓰는 시간이. 그런 거가 약간 ‘트레이드-오프’인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느 정도가 ‘밸런스’가 적정한 건지는 맨날 고민을 해요. ... 일단 애네를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하면 수명을 한 ... 17.5년이라고 생각하면 ... 그럼 내가 은퇴하는 시점이랑 좀 겹치는 것 같고, ... ‘하다못해 유튜브라도 해야 되나?’ ... 애네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그려야 돼서 좀 머리가 아파요. ... ‘순환’되는 게 없잖아요? 애네가 저한테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만족감을 줄 수 있는데 애가 나의 자산이나, 나의 재산이나, 나의 지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21, 유형 C)

이처럼 (주로 주양육자로 본인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제한된 돌봄 비용

을 다른 존재들(자녀, 부모, 남편, 친구, 동료, 다른 동물 등)에게 나누어 사용해야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타협이 자주 언급되었다. 동물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과 일상의 우선순위가 지속적으로 변화해야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돈, 시간, 체력 또는 인간 관계를 위한 노력을 반려동물에게 들이는 ‘비용’과 교환해야 했다. 또한 직업을 변경하거나,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결혼이나 출산 등 가족계획을 세우는 과정에도 반려동물 돌봄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1.3. 반려동물 돌봄 일상화의 의미

대다수의 참여자들에게 반려동물은 ‘내 공간에 내 의지로 데려온 이상 나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다. 이처럼 관계에 기인한 동물들의 ‘불가피한 의존성’은 신체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필수적이고 실제적이며 때로는 도전적인 돌봄 관행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로 이어졌으며, 이는 동시에 사람과 동물을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 (Charles & Davies, 2011; Haraway, 2003)로 이끌었다.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안위를 제공하는 것은 보호자였지만, 모든 참여자들은 이러한 관계에서 동물에 대한 친밀한 애착을 기반으로 정서적, 심리적 의존이나 안정감 등을 얻었다. 최근 후집에 오면 피곤함을 싹 사라지게 할 정도로 자신을 반겨주는 동물들은 “비타민 충전제”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 “무조건적인 내편”이자, “나만의 가족” 그리고 “사는 이유”이기도 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반려동물로부터 받는 영향과 감정들은 반려동물-인간 관계가 갖는 상호적 특성이 특별한 방식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반려동물과 ‘정’을 쓰고 ‘식구’가 되는 과정과 ‘가족 하기’ 과정은 당시 보호자 생애, 가구

구성이나 상황 등 따라 다양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언급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점은 신체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감정을 나누고, 동물들이 특정한 성격과 선호를 가지며 가정의 일상을 함께 형성했다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의도, 감정, 기타 정신상태를 공유하는 능력을 받아들였고, 이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의식적이고 지각 있는 행위자로 인식했다.

## 2. 반려동물 노화와 질병 경험

### 2.1. 노화와 질병 인식을 통한 다른 생애주기 실감

#### 1) 관념을 통해 받아들이기

##### 나이로 인식되는 동물의 노화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10살 전후의 개, 고양이를 노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0>은 보통 ‘10살 이상 노견’이 되면 백내장이나 안구 혼탁을 갖게 되는데, 자신의 개는 이러한 증상 없이 굉장히 ‘정정’한 편이며, 이를 “세간에서 말하는 것과 궤를 달리한다”고 표현했다. 반면, 보호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보통 동물이 10살 즈음이 되면 검사 상 이상이나 증상, 노화의 기미가 없어도 동물병원 의료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노령 동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불쾌감, 현실 부정 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13>은 자신의

개가 ‘나이 치고는 건강하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많이 살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상황을 떠올렸다.

애가 10살 때인가? 그때쯤 병원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길어 봤자 몇 년일 수도 있어요.”라고 했거든요. … 원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해놓고, 조금이라도 아플 때마다 올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 병원에 갈 때마다 선생님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이 치고는 건강하네.” 이렇게 말해준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많이 살았다.” 그 얘기는 마음이 좀… (13, 유형 C)

동물이 10살 이후로 접어들면서, ‘20살까지’ 살게 할 거라는 수명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했었던 연구 참여자도 있는 반면, <연구 참여자 30>은 ‘더디지만’ ‘조금씩’ 진행되는 노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내부 장기도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눈도 안 좋고 그냥 모든 게 다 떨어져 있었어요, 기능이. …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픈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더디게’ 왔다. … 실은 그 전부터 애가 이상해지거나 그런 날이 와도 이상한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은 … 조금 덜 먹는다고 그러나? 그러면 근데 다 그냥 괜찮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확실히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다.’라고 느낀 게 딱 19살 때인 거죠. (30, 유형 A)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에서 최대한 노화를 늦추거나, ‘무엇인

가 해줘야’ 한다는, ‘노화는 곧 질병’이라는 노화의 의료화 프레임 (Conrad, 2018)과 관련된 태도가 존재했다. ‘의료화(medicalization)<sup>9)</sup>는 비의학적 문제가 질병이나 질환과 같은 의학적 문제로 정의되고 치료, 관리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Conrad, 2018:22). 전통적인 의료의 목적은 신체적 고통을 완화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과학주의 기반 건강 담론을 기반으로 태어남, 늙음과 죽음 같은 생애 과정은 의학의 대상되었고, 오늘날은 출산, 노년의 삶과 장례절차까지 병원과 의료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원 & 박삼현, 2020). 즉, 동물의 노화와 관련된 일상의 돌봄이 점점 의료의 영역과 겹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노화를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현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으로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과정을 ‘순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 지식에 의거한 노령 동물 인식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보호자 대상 강연을 통한 교육이나, 책, 미디어, 혹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자신들의 동물을 노령으로 인식하여 관리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 3>은 노령묘 보호자 대상 강의에서 강조했던 스케일링을 시작으로 노묘를 위한 ‘케어’를 시작했다고 했다.

‘노묘만세’라는 그런 강의 같은 게 있었어요. ‘10살 넘은 고양이를 어떻게 케어 할 것인가’ 그 강연을 갔다 왔는데 주기적인 피검사와 스케일링과 물 마시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일단 스케일링을 시키려 갔어

9) 콘라드(2018)는 그의 저서에서 의료화의 몇 가지 특성을 정리한다: 1) 모든 것의 병리화, 2) 정상성의 의학적 정의, 3) 의학적 사회통제의 확대, 4) 사회적 맥락보다는 개인의 문제로의 환원, 5) 소비자와 의료시장, 6) 의사 역할 변화, 7) 의료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8) 위험의 의료화 (질병과 위험성의 개념의 혼재)

요. (3, 유형 B)

또한 <연구 참여자 14>는 자신의 개가 정기점진을 통해 신부전을 진단받은 이후 ‘(병원에서) 안 좋다고 하니 (몸에) 좋다는 거로 먹여야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실제 동물이 ‘티가 나게’ 아파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개가 막 아파하는 걸 본다는 느낌이 많이 없었어요. … 신부전 같은 것도 약간 티가 나는 건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안 좋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좋다는 거로 먹여야 된다.’ 이런 거였지. (14, 유형 A)

이처럼 스케일링을 위한 마취 전 혈액검사나,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생각해서 혹시나’ 시행하는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과정에서 장기 부전(신장, 심장, 간 등), 당뇨 등의 질환이나 건강 이상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노화나 질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나 이해보다, 변화된 돌봄이 우선 수행되기도 했다.

## 2) 달라지는 몸을 통해 알아차리기

### 인간과 비슷한 신체적 노화 현상

개와 고양이는 인간에 비해 매우 짧은 생애주기를 갖는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대부분의 경우 동물보다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들은 어느 단계에서 노령 동물을 돌봐야한다는 것, 그리고 동물을 잃는 것이 관계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관계를 시작한다 (Christiansen, 2013; Wood

et al., 2015; Kogan et al., 2022). 하지만 함께 일상을 사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애주기를 산다는 것’, 즉 동물이 ‘더 빨리 늙는다는 사실’을 쉽게 놓치게 된다고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언급했다.

동물의 노화는 보편적으로 행동과 상호작용 변화를 통해 보호자에게 인식되었다. 동물들은 활력과 유쾌함, 호기심과 흥미의 저하를 보이며, 좀 더 차분한 성격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잠이 많아지고,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를 보이거나,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귀찮아하기도 했다. 이처럼 본인의 독립적인 자리와 시간을 갖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오히려 가구구성원들(사람, 동물) 곁에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는 동물들도 있었다. 동물의 신체적 변화 역시 중요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동물들은 조금씩 청각, 시각 등의 감각 저하를 나타내며 움직임의 변화나 둔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피부, 털의 윤기와 전반적인 외형적 컨디션을 노령성 변화로 인식하였고, ‘까만 수염’이 ‘흰 수염’이 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노화를 실감하기도 했다. 반면, 동물에게서 외형적인 노화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반려동물의 신체를 통해 노화를 받아들이는 경험은 개인에 따라 ‘딱 멈칫할 때’를 겪거나, 자연스럽게 인식 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22>는 까만 수염이 흰 수염이 되는 것을 보며 ‘이만큼 밖에 안 되는 시간’을 실감했으며, 반면 <연구 참여자 29>는 외형보다는 ‘흔들리는 결음’을 통해 노화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전혀 몰랐죠. 아우, ‘애들 시간이 이만큼 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진짜, 정말 눈곱만큼도 몰랐어요… 점점 어느 날부터 가니까 애가 수염이 까만 수염이었는데 이게 점점 더 하얘지는 거예요. ‘흰 수염’이 돼 가는 거예요. … ‘어, 애가 점점 늙어가는구나.’ (22, 유형 A)

외형도 많이 바뀌긴 하는데 사실 외형은 제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해도 예쁘니까 잘 모르는데 겉는 모습 보고 알았어요. ‘흔들리는 것’ 보고.  
(29, 유형 A)

동물의 노화라는 생애 변화를 인식하고, 질환이나 질병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닌, 물질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의 수용에 가까웠다. 동물의 몸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노화와 질병에 대한 실제적 경험은 책, 통념을 통해 갖고 있던 관념과는 매우 달랐음을 참여자들은 언급하였다. 이러한 예측불가능성은 적절한 돌봄에 대한 준비 미흡과 연결되기도 했다.

### 노화와 질환 사이 불명확한 경계

노화와 질환 사이 불명확한 경계로 인해 많은 보호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과 질병에 의한 증상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반려동물의 노화와 질병, 죽음 경험은 질병을 인식하는데 매우 결정적이었다. <연구 참여자 3>은 과거 신부전 고양이가 보이던 ‘신물이 올라오는’, ‘침이 고이는’ 증상을 통해 다른 고양이의 신부전을 눈치 챌 수 있었다고 했다.

신물이 올라오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면. 침 고이는 게, 예전에 행복이 가 그럴 때는 바로 눈치를 못 챘는데.. (바다도) 행복이처럼 신부전 초기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3, 유형 B)

<연구 참여자 19>는 산책 중 잠시 쉬는 행동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동물의 행동 변화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동물의 아픔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경험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책을 하는데 애가 어느 순간부터 좀 힘들어서 중간에 쉬더라고요, 열 살 때. 그래서 ‘아, 이제 열 살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아픈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프다는 거를. …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물들은 말을 하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하지를 않으니까. (19, 유형 A)

보호자가 인식하는 동물의 변화로 잣은 소변 횟수와 배변 실수가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걸음이 느려지거나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금방 지치는 모습을 보이며, 산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자리 돌기, 부딪힘, 혹은 ‘절뚝거리는’ 과행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단순히 노령으로 인한 신체 기능 부전일 수도 있으나, 관절염이나 디스크, 당뇨, 신부전, 종양, 인지 장애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을 나타내는 경우이기도 했다.

### 숨기는 아픔으로 놓치게 되는 변화

참여자들은 동물들이 보이는 다양한 증상(e.g. 웅크리기, 기침, 과행, 마비, 고열, 과호흡, 혈변, 구취, 소양감, 구토, 발작, 거위울음소리 등), 식욕부진(e.g. 밥 안 먹기, 간식 거부 등), 이상행동(e.g. 놀람, 짖기, 울기, 떨기 등), 성격 및 행동의 급작스러운 변화(e.g. 예민함, 물기, 기력 저하 등)를 통해 질환이나 질병의 시작을 인식했다. 체중 저하, 복수, 탈모, 병변(e.g. 발적, 종양, 혈변, 혈뇨, 분비물 등) 등의 신체적인 변화가 육안을 통해서 발견되기도 했다. 일상적인 케어(e.g. 텀 빗기, 화장실 청소)나 쓰

다듬기 등 신체적 접촉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연구 참여자 10>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동물 질병을 초기에 인식하는데 매우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에도 뚜뚜를 자주 만져줬는데 … 위낙 털이 솜털 같은 아이라서 이렇게 잘 뭉치는데 어느 날 목 밑에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아 또 털이 뭉쳤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느낌이 좀 이상해서 목도 만져보고 겨드랑이 있는 테랑 뒷다리, 오금 쪽을 살펴봤는데 다 부어 있더라고요. (내원 후 림프종 진단) … 근데 아이는 평소랑 똑같았어요. (10, 유형 C)

이 과정에서 일부 동물들은 보호자에게 불안이나 통증을 나타내거나, 보호자 곁으로 찾아와 안기려는 등의 모습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증상이나 혼적(구토물) 등을 숨기는 경우도 찾았다. 뒤늦은 인식으로 인한 치료적 개입의 지연은 동물의 불량한 예후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연결되기도 했으며, 이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보호자의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 25>는 체장암을 앓던 동물의 죽음 이후, 동물이 오랫동안 증상을 숨겨왔음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저희 애 중에 한 명이 죽었을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 체장암으로 죽었는데, 그 친구를 보내고 나서 그 자리를 정리를 하는데, … (방석 밑에) 토를 다 해 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 이걸 뒤집어 볼 생각을 못하고, 이 아이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 ‘동물은 자기가 약한 모습을 함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말도 못하고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못해서 얘기 이렇게 혼자서 토를 하고 이런 거를 숨기고 혼자 아파하다가 이렇게 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25, 유형 C)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병을 보호자가 인식하는 순간과 과정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의사들이 보호자들의 언어로 표현되는 동물의 변화와 이상을 간과하지 않아야하고, 간병이나 간호로의 새로운 돌봄 역할을 받아들이는 상황에 앞서,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변화하는 몸, 건강 상태와 증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2. 돌봄 범위와 양상의 변화

### 1) 기존과는 다른 돌봄과 동물 의료 실천하기

#### 돌봄의 전문화와 의료화

노령 동물을 위한 돌봄은 기존의 돌봄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기보다, 건강에 더 ‘신경’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식이 관리, 치아 관리, 관절 관리, 운동(제한), 체중 관리, 정기 건강검진 등 일상의 건강관리부터, 스텝 페(계단),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가구 높이를 낮추거나 바닥 생활로 전환하는 인테리어나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근처, 혹은 24시 동물병원을 알아 두거나,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비약이나 의료기기를 구비해두기도 했다.

(개가) 나이 들면서 변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방에 물건이 달라진 게, 기침도 애가 조금 하거든요? 그 호흡기가 약간 좁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네뷸라이저’도 있고요. 슬개골 안 좋다고 해서 ‘적외선 조사기’가 있고요, ‘가습기’가 있고요,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찜질기’가 있어요. 그걸 방에 다 이렇게 저절로 계속 사들이고. 그리고 옷도 애가 피부가 안 좋으니까 ‘면 티’로 만든 거, 막 이런 거 사게 되고. 근데 그게 정말 자잘하고, ‘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건데 그렇게 모여서, 애가 지금은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 갈 일이 없는 거죠. (15, 유형 A)

특정 질환이나 질병이 나타난 경우에는 일상적 건강관리나 생활환경 변화 이외에도 가정 내 간병이 수행되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적 처치는 투약, 약욕, 환부 드레싱, 마사지, 인슐린 주사 및 혈당 체크, 탈수 관리, 식이 제한 혹은 강제(유동식)급여, 관장, 압박 배뇨 등 질환의 종류와 동물의 상태에 따라 다양했다. <연구 참여자 29>는 ‘아픈’ 아이와 살면 생활 모든 부분이 바뀌게 된다고 언급했다.

특별히 디스크에서는 처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애 모든 생활에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 하네스부터 이제 먹는 거. 그리고 모든 생활,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다 모든 걸 바꿀 수 밖에 없어요, ‘생활환경’을. 방법은 그거 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노령견 되면서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었던 게, 제 방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 애가 방에서 이제 침대라든지 그런, 자기가 본래 생활했던 곳에서 생활하는 게 안 되니까 (개가) 약간 우울했었던 것도 같아요. 저는 이제 침대에서 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었나 싶어 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거의 거

실로 나왔었어요. … 진짜 생활이 다 바뀌게 돼요. 아픈 아이가 있다 보면. (29, 유형 A)

이처럼 동물의 노화와 질환에 의한 또 다른 취약성을 인식하는 것은 ‘기존과는 다른 돌봄’이나 동물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사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했다.

### 동물의 반응과 요구에 대한 관심 증가

동물의 노화와 질병이 시작되면서, 동물들의 변화, 반응과 요구를 살피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서 살펴봤듯, 돌봄은 몸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몸의 감각과 신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상태와 감정을 알아차리는 과정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돌봄 과정에서 동물의 신체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동물의 요구, 호전과 악화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응답’으로서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애썼다. <연구 참여자 29>에게 자신의 마사지를 받으며 ‘가만히’ 있는 개의 반응은 ‘긍정적인’ 신호였다.

(디스크 진단 후) 마사지 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 척추부터 이렇게 계속 목부터 해가지고. 손으로 허벅지 다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마사지 해줘요. 주물주물. … 근데 제가 맞게 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하면 얘가 그래도 받아요. 시원한지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요. (29, 유형 A)

<연구 참여자 13>은 병원에서 계산해주는 ‘수치’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던 ‘호전’의 기미를 동물의 ‘움직임’, ‘눈빛’과 ‘변의 모양’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연구자: 벼들이가 호전이 됐다가 안 좋아졌다 했던 건 어떤 걸 보면서 느끼셨어요?) 걷는 거, 움직이는 거... 그리고 눈빛 이런 것들. 사실은 병원에서 계산해서 주는 수치들에 대해서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변의 모양이 달라지고 있고, 괜찮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13, 유형 C)

연구 참여자들은 ‘아픈’ 아이라고 인식한 후, 자신도 모르게 동물을 대하는 자신의 ‘말투’, ‘놀아주는 방식’, ‘마음’의 변화 경험을 설명하면서, ‘아픈 손가락’인 동물에게 더 ‘눈이, 시선이’ 가게 되는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한 이론적이고 수치적인 정보와 데이터보다 실제적인 몸의 변화와 경험적 지식이 동물의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데 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많은 참여자들이 언급했다.

## 2) 가중되는 돌봄 부담 짊어지기

### 증첩되는 어려움

돌봄으로 얻게 되는 압박과 불편함을 이르는 “돌봄 부담(caregiver burden)” (Zarit et al., 1980)은 “돌봄 제공자의 개인적 시간, 사회적 역할, 신체적 및 정서적 상태, 재정적 자원 등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돌봄 자원의 불충족으로 인한 다차원적 신체, 심리, 정서적 반응” (Given, 2001)으로 정의된다. 동물의 노화나 질병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수행해야하는 돌봄의 복잡성, 상호의존과 취약성,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때 경험하는 돌봄 부담은 일상의 돌봄 상황에 비해 가중되었다.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첫 번째 요인은 동물들의 저항과 비협조적인 태도였다. 동물들의 반응에 따라 약물 복용 등 치료 지시

이행(adherence) 여부에 큰 차이를 보였다. 반려동물이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를 보이면 반려동물의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를 겪는 보호자 역시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효과적인 처치를 위해서는 동물의 성향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을 찾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새로운 일정과 돌봄 방식을 수용하기 어려울 때 보호자들은 좌절감과 죄책감을 느꼈다. 복약, 소독, 주사나 수액, 유동식 강제 급여, 환부 드레싱 등 다양한 임상적 관리가 필요한 동물들은 특히 컨디션 저하로 인한 예민함 증가와 통증으로 인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동물을 위한 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8>의 경험처럼,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오히려 동물이 힘들어하거나 심지어 ‘시름시름 앓기도’ 했다.

디스크는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갑자기 집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갇하면서 애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희는 병원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라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름시름’ 앓아간 거예요. (8, 유형 A)

적절하고 필수적인 약물이나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들을 ‘어르고 달래’는 과정이 필요했고,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독하고 쓴 곰팡이 약을 먹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도 안 먹는’ 고양이 때문에 약만 버리는 경험을 하거나, 효율적인 투약을 위한 보호자만의 ‘노하우’를 만들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22>는 피하 수액을 하기 위해 ‘신발장’이라는 높고 제한된 장소와 ‘간식’이라는 긍정적 보상을 통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신의 노하우를 소개했다.

내 살에 바늘을 꽂는 것도 아픈데, 개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 그러는데 이제 노하우도 …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 위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웃음) 애를 이제 … 간식으로 (유인)하고 … 왜냐하면 등 을 잡는 순간 애가 예민해져 가지고. 이렇게 살, 가죽 집어 올리는데 애가 엄청 성질을 부리는 거야. 자기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본인한테는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그 아이는. 그래 가지고 주사를 놔주기 전에 이제, 앞에다 (간식) 놔주고 그거 먹는 동안에 그냥 쭉 금방 주사 를 놔요. (22, 유형 A)

보호자의 시간적, 체력적, 금전적 부담 역시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한 번 아프면 차 한 대 값”이라고 표현되는 비용(수술비, 검진비, 약값 등) 증가와 체력 소모, 경제 활동과 돌봄 시간 밸런스를 맞추는 어려움 같은 원인 역시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또한 가정 돌봄에 대한 대안이나 실질적 도움이 부재하는 경우, 다묘/다견 가정에서 다른 동물의 방해로 인한 격리 및 관리 어려움, 너무 짧은 투약 간격 (너무 잦은 투약 스케줄), 필요한 의료적 처치 증가 등의 요인들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동물의 증상 악화, 길어지는 간병 기간과 맞물리며 돌봄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 참여자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길렀던 시기에도, 안약을 ‘하루에 여섯 번’을 넣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행할 가족 구성원이 없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했음을 언급했다. 단독 돌봄을 수행해야하는 유형 B[독립-단독]의 경우 ‘(돌봄) 비용 준비를 위해 집을 비우는 시간과, 실제적인 돌봄 수행을 위해 집에서 머물러야하는 시간’ 사이의 고민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 6>은 혼자 키우던 당시 아픈 동물에 대해 누군가와 ‘의논’할 수 없는 상황이 매우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으며, 결정 과정에서 제3자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슬픔을 공유할 수 있던 것만으로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아플 때에 의논할 수 없는 ... 그리고 나 혼자서 이 아이의 병에 대해서 결정해야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 제3자가 조언을 해줬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 수의사분도 저한테 되게 좋은. 제가 잘 만났어요. 병원이 되게 좋기도 했고. 음. 여러 가지로 같이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눴고, ... 내가 보호자라서 책임을 지긴 하는데 물론, 많은 사람과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다는 거가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아요. (6, 유형 C)

유형 B[독립-단독]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 18>은 아픈 동물을 혼자 간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쳤던 상황을 회상했다. 자발 배뇨조차 힘든 동물을 돌보며 자신의 건강 역시 나빠지는 상황의 악순환은 ‘미칠 것 같은’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맡긴 적도 있어요, 일주일만 쉬고 싶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압박 배뇨) 하는 법도 알고 익숙한데, 그때는 방광이 어디 있는지 만져지지도 않고, 빨래를 막 하면 세 번씩도 하고 이러니까. ... 그리고 제가 원래 고양이 알레르기로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다른 청소도 못하니까 뭐 복합적으로 ... (저의) 천식까지 같이 심해지고. ... 그래서 병원 가서 그냥 이렇게 여쭤 봤어요. “연두가 오래 살까요?” 너무 힘들어서. (18, 유형 B)

한편 <연구 참여자 22>는 자신의 개가 당뇨 판정을 받았을 당시, 그간의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떠올라 더욱 “병에 지지 않게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보리가 당뇨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재롱이 갈 때 저한테 위로해줬던 거.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좀 보리한테 미안한 게, 많이 혼냈어요. 왜냐하면 유기견 아이가 들어왔는데 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 공부할 생각도 안 했고, 개를 어떻게 이해하겠다는 것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개가 아무 데나 불안하니까 오줌을 쌀 거 아니에요. ... 근데 애가 이렇게 오줌 싸면 이제 엄청 혼냈거든요. 야단치고 그리고 이빨 드러낸다고 혼내고. 그게 싫어한다는 표현이었는데. 아...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더 보리한테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보리한테 더 그 병을... 병에 지지 않게 돌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 그게 큰 것 같아요, 보리 병 케어 할 때. (22, 유형 B)

면담 내용을 통해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동물의 신체적, 행동학적 변화는 보호자의 감정적인 부담 역시 가중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참여자들은 노화나 질환에 대한 인식, 질병에 대한 수의학적 진단과 판정 이후, 그리고 돌봄 과정에서 의무감과 책임감에서부터 안타까움, 걱정, 우려, 불안, 우울함, 죄책감, 미안함, 예상되는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꼈다. 이와 동시에, 함께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강해지는 애정과 상호관계 강화를 기반으로 유대감,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남은 시간에 대한 감사함, 편안함 등 양가적 감정을 경험했다. 이는 돌봄 경험에서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만족과 성장은 같은 연장선상의 반대쪽 끝에 위치해있는 것이 아니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경험된다는 코간 (Kogan et al., 2022)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즉, 돌봄으로써 느끼는 감정 상태는 슬픔과 기쁨을 양 끝점으로 하는 직선의 스펙트럼이 아닌, 여러 겹으로 중첩되며 상호 연관되는 특성을 보였다.

## 가정 내 돌봄 지원

동물의 노화와 질병 상황에서 증가하는 돌봄 부담은 가족들의 금전적, 정서적, 실질적인 도움으로 인해 완화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가족 구성원 사이 동물과의 관계, 돌봄 제공에 대한 인식과 태도 차이로 인해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유형A[기준-공동]와 유형C[독립-공동]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에서 나타나는 가족 돌봄 경험 중 긍정적인 부분은 ‘역할 분담을 통한 실질적인 돌봄 부담 완화’와 ‘정서적 지원’이 가장 커졌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더 많아진 가족 간의 대화’나 ‘데면데면했던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동물 건강이나 노화, 질환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차이를 보이거나, 혹은 ‘속 시원한 얘기’와 이해가 부재한 상황에서 돌봄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연구 참여자 14>와 <연구 참여자 2>의 경우처럼 부모와의 돌봄 수행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일부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부모들은 동물을 위한 적극적인 돌봄이나 치료에 대해 ‘부자연스럽고 불필요한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돌봄을 부탁하기에 ‘못 미더운’ 사람들로 여겨졌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 간 가치관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가치관이나 반려동물과의 관계, 과거 경험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개가) 나이가 들면서 뭔가 문제행동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나이 들어서 치매다, 어쩔 수 없다.’ … (의견 차이로) 싸우기도 했어요. (14, 유형 A)

저는 병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애한테 신장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단백질 들어간 사료는 주면 안 돼서 KD 사료를 사서 주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그게 다 떨어졌으면 저한테 말을 하시지 그냥 아무 사료나 준 거예요. 그래서 신장 수치를 떨어뜨려 놓으면 엄마가 다시 올려놓고, 떨어뜨려 놓으면 다시 올려놓고.. 약 먹기 싫어하니까 그냥 엄마가 출근하기 전에 아이스크림에 타서 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안 먹으면 안 먹었나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만 속이 타는 거예요. 내가 돈을 거기다 얼마를 주고 지금 약을 타오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십만 원씩, 이십만 원씩 깨지고 오는데, 엄마한테는 한 3, 4만 원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저거 한 봉에 열만데...’ (2, 유형 A)

한편, 1인 가구에서의 돌봄 공백이나 혼자 수행해야하는 간병의 상황이 보호자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연구 참여자 26>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을 비운 사이 불안감, 돌봄을 위한 대안의 부재, 고양이 특성 상 입원의 어려움 등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언급되었다.

이 아이를 내가 진짜 계속 케어 해줘야 될 건데, 회사에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어떡하겠어요.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 아플 때 내가 볼 수도 없고 막 ‘어떻게 돼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 진짜 정말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말대로 그냥 ‘케어’를 해줘야 될 때는 ‘대안’이 막 크게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가족이 있다고 해도 저만큼 해줄 사람은 없고. 또 집에 또 그럼 누군가가 계속 하루 종일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지금 현재 시점 자체가 팻시티라는 거는

그런 ‘간병’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밥 챙겨주고 이런 ‘단순 돌봄’이잖아요. ... 또 고양이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서 정말 위급해서 입원을 해서 처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집에서 케어를 받는 게 좋기는 한 것 같거든요. (26, 유형 C)

이렇듯 유형B[독립-단독]의 참여자들은 경제나 사회 활동을 위해 동물을 집에 혼자 두게 되는 상황에서의 실질적 돌봄의 부재나, 시간적, 체력적, 금전적, 실천적 부분에 대한 돌봄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고, 떨어져 사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돌봄 지원과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돌봄 지원의 필요성은 가정 외부로 확장되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11>의 면담 내용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보호자의 나이나 상황보다는 동물의 나이나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전만큼 ‘고양이 친구를 새로 사귀어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새로운) 친구들 고양이는 어린데 우리 고양이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애들은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잘 죽는 법’을 봐야 하잖아요. 관심사가 서로 다른 거죠. (11, 유형 C)

이처럼 일부 연구 참여자의 경우 동물을 매개로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기기도 하고, 질병이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들의 개와 고양이를 돌봐주기 위한 ‘돌봄 조직’, ‘돌봄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돌봄 관계망을 넓히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정서적, 실질적 도움과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이러한 관계를 매우 중요한 돌봄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넘기 힘든 병원의 문턱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가정에 동물을 데리고 올 때, 동물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를 동물의 건강 상태나 혹시 모를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새로운 동물과 기존에 있던 동물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시기 기초 접종이나 구충이 시작되고, 추후 질환을 예방하고 행동학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중성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종, 품종마다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잘 발생하는 질환이나 ‘고질병’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수의사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련된 증상 예방이나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보호자들은 동물의 필수적인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이나 주위 사람들로 많이 얻기는 했지만, ‘뭘 모르는’ 시기인 초보 보호자들에게 수의사들의 안내와 설명은 동물을 돌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

하지만 동물이 성장함에 따라 ‘정기적이고 필수적인’ 방문에서 ‘간헐적이고 사후대응적인’ 방문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점점 높게 느껴졌다. <연구 참여자 22>의 면담 내용처럼 진료나 상담 과정에서의 비싼 진료비는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문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병원비도 좀 너무 비싸요. (웃음) 뭐 비싼 기계도 쓰시고 좋은 약도 쓰고 뭐 그거 공부할 때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당연히. 그거는 아는데, 그런 ‘문턱’들이 조금 좀 낮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예전보다는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보통 혈액검사 하는 데 몇 만원씩 드니까. (22, 유형 A)

연구 참여자마다 수의사(혹은 수의학적 개입)에게 갖는 신뢰나 의존, 역할 인식의 정도가 상이했고, 수의사들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보호자들이 동물 병원 방문을 멀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해줘야 하는’ 혹은 ‘해줄 수 있는’ 돌봄의 범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언급되었으며, 이러한 과도한 돌봄 역할이나 의무 부여로 인해 부담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를 ‘높은 문턱’으로 여겼다. <연구 참여자 13>은 동물 병원이 ‘사장님화’되어가는 만큼 자신이 ‘나쁜 엄마’가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이런 처치를 해줘라. 일주일에 몇 번씩 약욕을 해줘라.” 이런 것들을 안 믿어요. 강아지를 다시 기른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대한 신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점점 ‘사장님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 너무 이익을 추구하고, 다 필요에 의해서겠지만 예전에는 정기 접종 밖에 없었는데 ...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갖춰져야 할 게 너무 많고,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도 내가 그만큼 못 해주니까 나쁜 엄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맞추다 보면 과잉 진료가 되는데도 또 안 할 수도 없고... (13, 유형 C)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보호자와 동물의 관계와 돌봄에 대한 수의사의 진심어린 이해와 공감, 신뢰를 통해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수의사들은 동물 의료적 전문가이자 지원자 혹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연구 참여자 21>을 포함하는 일부 참여자들은 동물 노화나 질병이 시작되면서 수의사를 정보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

질병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많이 얘기를 듣고요. 병원 선생님이 맨날 제가 물어보고 막 녹음하고 이러니까. 녹음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녹음 할 때가 많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 다음에 검사지 같은 것도 보는 법을 몰라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선생님이 책 같은 거 추천해주셔서, 아님 아예 책을 펼쳐서 설명해주시니까 그게 더 편해요. (21, 유형 C)

또한 다수의 참여자들이 입원 보다는 가정 간병을 선호했는데, 특히 대다수 고양이 보호자의 경우 고양이의 예민함 때문에 입원 후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고양이 보호자인 <연구 참여자 27>은 동물 병원이라는 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에 아무리 시설이 좋고 관리를 훨씬 저보다 더 전문의들이, 전문가들이시니까 잘해준다고 한다고 해도, ... 그 ‘좁은’ 공간에 있어야 하잖아요. 어찌 됐든 ‘낯선’ 공간이고, 다른 동물의 ‘냄새’도 끊임없이 맡아야 되고 사람들 ‘소리’도 너무 낯설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입원은 아예,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입원 케어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7, 유형 B)

또한 <연구 참여자 13>의 경우처럼, 보호자들이 동물의 입원을 꺼리는 이유는 병원에서의 ‘케어’가 ‘내 맘 같지 않아서’였다.

병원에 데려다 놓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데려다 놓고 이틀인가 사흘 정도 입원을 했는데, 저는 ‘제 마음처럼’ 잘 케어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

어요. 제가 벼들이 12살 때 이사를 와서 그때부터 여길 다녔으니까 그 선생님도 벼들이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처럼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내가 데리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13, 유형 C)

이처럼 동물 병원이라는 공간적 측면을 고려할 때, 참여자들은 동물 진료를 위해 동물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무게, 동물이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 이동 시간, 동물 컨디션 저하 등의 상황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거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에 더해 수의사들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험은 동물 병원의 문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2.3. ‘좋은 보호자’ 되기 과정으로서의 의미

#### 1)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 만들기

##### 경험적 지식으로 쌓이는 돌봄 과정

연구 참여자들은 동물의 노화와 질병이 시작되면서 시간 관리, 식단, 수면 패턴, 주거 환경 등 일상의 많은 부분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동물의 아픔과 불편함을 이해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경험들은 반복되고 체화되었으며, 또 다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으로 쌓이게 되었다. 또한 다수의 참여자

들은 아프고 늙어가는 동물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책, 인터넷이나 주변사람들, 병원 의료진 등을 통해 정보를 찾고,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식과 변화된 인식들은 동물의 행동과 상태를 파악하고 더욱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15>가 점점 더 짧은 산책을 자주 원하는 나이든 개의 ‘요구’를 들어줄 밖에 없는 이유에는 동물의 ‘표정’, 배변 습관, 그리고 과거 결석 발생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얹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산책 시간이 줄고, 빈도는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 하루에 세 번 나가도 이제 괜찮다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게 슬쩍, ... 진짜 슬쩍 두 번으로 느는 것 같더니, 슬쩍 세 번으로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 그거 어떻게 느끼세요? 얘기가 “아, 빨리 산책 가자”고 줄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잘 알아서, 갑자기 막 구석으로 가서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가지고 되게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본다든지. 근데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게 ... 배변을 안 보니까도 이유가 있고, 얘가 결석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오줌을 참아서 그런 결 수도 있고, ... 그렇다면 산책을 자주 가주는 게 방법인 거잖아요? (15, 유형 A)

신체를 통해 이해되는 지식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한 것이었다 (Hamington, 2012; de La Bellacasa, 2017:93).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온도, 습도, 기압’ 등의 환경과 동물의 상태에 맞춰 돌봄 ‘마음의 준비’를하거나, 돌봄의 적절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상화는 ‘생활환경’, ‘버릇’, ‘습관’ 등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에 거부감을 보였던 동물들이 점차 익숙해지거나 어느 정도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치매 고양이 보호

자인 <연구 참여자 16>은 오랜 간병 기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고양이로 인해 생긴 자신의 ‘버릇’에 고양이가 반응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노화, 질병으로 인한 변화, 불편함 그리고 이에 대응이 상호 습관화되어 일상이 되는 과정은 돌봄의 유동성과 항상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애가 치매가 우는 걸로 왔어요. 그레가지고 제가 지금 속면을 못 취한지 4년? …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 막 1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근데 다행히 아직은 들려요. 애가 들리고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둥아.” 이러면 계속 우는데, 조금 목소리 낮춰 가지고 “둥아.” 이러면 울음을 딱 멈추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이 것도 제가 ‘버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등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둥아.” 이러면 또 그치고. (16, 유형 C)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신체를 통한 “얽힌 공감(entangled empathy)” (Gruen, 2015)을 기반으로 한 지식 만들기 과정을 보여준다. 공감한다는 것은 타자의 감정, 행동 또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Hamington, 2012). 메를로-퐁티가 묘사하듯, 얹힌 상상력은 몸과 생각의 결합이다 (Merleau-Ponty, 1968:149). 얹힌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얹힌 공감은 감정과 인지의 특정한 혼합을 포함한다. 그루엔 (Gruen, 2015)은, 공감은 처음에는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타자의 상태에 반응하는 과정이며, 이후 두 존재는 단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러한 관계에 의해 구성됨을 인식하고,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1인칭 시점(나)과 3인칭 시점(너)의 전환은 두 존재가 하나의 관계 안에 있지만, 동일한 관점으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돌봄이 동물의 인식이나 마음 상태에 어떻게 기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자 했으며, 항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공감하는 동물의 상황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야했다. 특히 통증 등 질병에 대한 동물의 경험과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감에 기반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학습” (Ingold, 2021:291)으로써, “신체와 감정에 대한 체현된 전문 지식” (Greenhough & Roe, 2011:55)을 쌓는 과정이 필요했다. 동물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경을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쌓이게 되는 ‘상호 지식’을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건강과 관리에 대해 넓어진 시야

연구 참여자들이 갖게 되는 동물의 ‘건강’, ‘노화’, ‘수명’에 대한 개념이나 신념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들은 노화에 대한 의료적 관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검진이나 입원 등의 의료적 개입이 꼭 필요한 방식이라고 여겼다. 반면, 노화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하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나 급성 질환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의료적 개입이나 입원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의 편안한 돌봄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15>는 건강 검진을 통한 예방적 개입과 관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언급했다.

신장이 노화가 조금씩 일어날 수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다고. ... 조금 신경을 써서 봐줘야 된다고 해서 단백질 제한 조금 하고 있고요. ... 좋은 동물병원 가서 검사 다 받고 싶은데, ... (건강검진이) 개는 싫었겠지만 저는 좋았어요. 약간 마음이 안심되는 느낌? 내가 놓친 게 있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게 있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15, 유형 A)

연구 참여자들은 동물과 함께 살기위해 단선적이거나 단편적인 관점이 아닌, 전체적(holistic)이고 지속되는 돌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참여자들은 행동 교육, 식이요법, 치아 관리, 예방접종, 정기검진 같은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동물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관리의 부재와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21>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며 ‘후회’, ‘책임감이 없는’, ‘철저하게 나를 위주로 돌아간 (돌봄)’으로 표현했다.

그때는 모든 걸 되게 단선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애를 태어났을 때부터 케어를 잘 하고, 검진을 잘하고, … (그랬다면) 질병 관리는 좀 통제를 할 수 있었겠죠? … 여튼 전혀 몰랐다는 것도 너무 후회가 됐고. … 책임감이 없었구나. … (돌봄이) 철저하게 저를 위주로 돌아간 거죠. (21, 유형 C)

한편, <연구 참여자 3>은 학업으로 인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잘 돌보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물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회상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깨달은 게, 제가 정신이 나가있을 때 애가 아픈 거예요. 애가 아팠는데 아픈 줄도 잘 몰랐던 거잖아요. 밥도 토하고 살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걸 방관하거나 그걸 알아채지도 못하고. …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애가 아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지내면 잠을 잘 못 자고 하니까, 애들은 저랑 같이 자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옆에서? (3, 유형 B)

‘동물 환자’로 인식되거나, ‘동물 환자의 보호자’가 되는 과정은 개인이 갖는 건강이나 관리에 대한 정보, 과거 경험, 태도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참여자들은 동물들의 노화와 질병 과정을 겪으며 그동안 갖고 있던 ‘건강’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변하는 경험을 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신념이 더 강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또한 동물이 아프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과 동물의 신체적, 감정적, 정서적 상태는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 2) ‘늙고 아픈 동물 보호자’ 정체성 구축하기

### 흔란스럽고 준비 없는 역할 전환 과정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반려동물과의 삶은, 출생이나 성장부터 노화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물의 전체 수명에 걸쳐 이루어지는 돌봄 역할의 ‘전환’을 특성으로 했다. 즉, 동물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면서 보호자가 느끼는 혼란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의 전환이나 인간-동물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기인한다기보다는, 보호자와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쳐 재정의 된 돌봄 범위나 양상의 변화였고, 동물의 생애주기에 따라 보호자의 주된, 혹은 부분적인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했다. 참여자들은 이를 사람 돌봄과 구별되는 큰 차이점 중 하나로 언급했는데, 자녀들은 자라서 어느 시기가 되면 독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려동물들은 나이가 많은 적든 평생을 보호자에게 의존하여 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동물과 인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자신의 돌봄 역할과 정체성(예: 부모, 형제, 친구, 환자 보호자, 노령 또는 생애말기 환자 간병인)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이러한 변화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11>의 면담 내용은 이 과정에서의 혼란을 잘 나타낸다.

아직 마흔이 안 돼서 저는 젊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이 너무 늙은 거예요. 맨날 노인성 질환 사이트나 찾아보고, 암 찾아보고.. 이건 사실 30 대인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찾고 있는 거예요. … 텃줄부터 본 애들인데 개네가 암, 종양이 생기고 이런 걸 보면 현타가 와요.  
(11, 유형 C)

이처럼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노령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을 앓는 동물 돌봄/간병이라는 이 도전적인 새로운 역할과, 늘어나는 요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Applebaum, 2013)가 많았다. 돌봄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과, 기존과는 다른 돌봄, 동물의 늘어나는 요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책임감과 실제 대응 방식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되며, 특히 처음 동물을 키워보는 참여자의 경우에 이를 더 빈번하게 경험했다.

### ‘좋은 보호자’의 기준 설정

‘동물 의료 체제’로의 편입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보호자 역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동물병원 진료 경험이 인간-동물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앞서 확인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이나 커뮤니티, SNS, 미디어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좋은’ 보호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시도는 시간, 돈, 체력 등 현실적 제약과 부딪치면서 반성, 후회, 좌절, 걱정을 야기했다. 보호자들은 과도한 돌봄은 ‘자기만족’이라고 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때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동물이 떠날 때 후회하지 않는’ 돌봄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때의 최선에 대한 자신만의 ‘선’을 설정하는 것은 ‘좋은’ 보호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첫 단계임을 <연구참여자 24>의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 번 아프고 났을 때는 제가 든 생각이, 아, 진짜 돈이 좀 있어야겠다. 이게 돈 때문에 애를, 막 사람들이 아프면 막 동물병원에 버리고 이러는 게, ‘아, 진짜 힘든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치즈가 아프면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 내 생각에는 ‘한 그래도 3천만 원 정도 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 나를 자책하지 않게. 내가 그 어떤 ‘선’을 정하고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만큼이야.’ 한 다음에 그거는 다하자. 그 다음은, 혹시 그리고도 내가 못 살리면 나를 너무 탓하지 말자. … 여유 자금을 늘 몇 백만 원은 통장에 갖고 있는 습관을 좀 가지게 됐고.

(24, 유형 B)

연구 참여자들은 보호자로서 감당해야하는 책임감을 느끼며 적절하고 더 나은 돌봄을 수행하기 위해 힘썼으며, 추후 돌봄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나 최선을 정함으로써 자책이나 후회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 3. 반려동물 죽음 경험

#### 3.1. ‘치료’에서 ‘편안함’으로의 전환기 인식

##### 1) ‘나아질 가망’이 없음을 받아들이기

###### 생애 말기 선고

동물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수의사로부터 듣는 것은 보호자들에게 있어 “가슴이 턱 내려앉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감정적 혼란과 동요의 경험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우왕좌왕’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11>은 차마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고양이가 암 선고를 받았던 순간의 충격과 슬픔에 대해 회상했다.

선생님이 갑자기 “이거 안 좋은데” 그러면서 x-ray를 찍더니 암이래요. 어깨에 딱딱한 뭔가가 만져졌었거든요. 관절염에 걸리면 뼈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뼈라고 생각했는데, 그 딱딱한 게 암이라는 거예요. 2차 외과 전문 병원으로 개를 데리고 갔는데 선생님이 x-ray를 보더니 벌써 척추를 5개나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애들이 7살, 10살이고, 고양이가 암에 걸린다는 생각을 ‘차마’ 못 한 거예요. 수술한 후에 보행이 안 될 수도 있고, 환부를 닫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어차피 도려내봐야 더 심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매일 우울증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11, 유형 C)

‘무서운 얘기’로 표현되는 안 좋은 예후나 정확한 진단명을 수의사가 보호자의 심리나 감정을 위해 일부러 이야기 안하는(안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연구 참여자 22>의 경우는 수의사의 직접적인 설명을 통해 동물의 상황을 직시했다고 했다.

선생님한테 “이제 얘는 가망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는 그냥 저도 같이 포기를 한 거죠. 그 대신에 ‘네가 있을 때까지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가라’라는 생각을 갖고 (시간을) 보냈던 거죠.  
(22, 유형 C)

이처럼 동물 환자의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치료나 처치가 무의미한 생명 연장임을 알려주는 수의사의 언급이 보호자가 자신의 감정 및 태도, 그리고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앞으로의 돌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 ‘살려고 하는 의지’의 여부

연구 참여자들은 ‘고통스럽게 우는’, ‘마지막임을 아는 듯한’, 혹은 목숨을 힘겹게 ‘붙잡고 있다는 느낌’의 동물을 보며 죽음이 더 가까워졌다는 인식을 받았다. 또한 회복 불가능한 동물의 신체 상태 역시 치료 중단이나 안락사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나타나는 동물 환자의 생기 있는 ‘눈빛’, ‘식욕’ 등에서 나타나는 ‘살려고 하는 의지’와 보호자가 부르면 고개를 들어 ‘반응’하는 동물의 모습은 생애 말기 돌봄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18>의 경우처럼 ‘끝까지 해볼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딱 결심한 것 같아요. ‘끌까지 그냥 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해 보자.’ … 저번에 청색증이 좀 심하게 온 적이 있었는데, 딱 눈빛이 ‘어떻게 좀 해줘.’라고 느꼈거든요. (18, 유형 B)

반려동물 보호자는 정서적, 신체적 근접성으로 인해 동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동물 환자의 생애 말기를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동물 환자와 보호자의 이러한 친밀성으로 인해 감정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었다.

## 2) 생애말기 돌봄의 목적 세우기

### 지속되어야하는 ‘좋은 삶’

생애 말기 동물들에게 필요한 다층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이 시기 돌봄이 단순히 ‘좋은 죽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좋은 삶’을 위한 과정으로, 남은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기억을 남기기 위한 귀한 시간임을 보여 준다. <연구 참여자 13>이 썼던 ‘바깥바람’이나 <연구 참여자 4>가 마련했던 ‘흙과 풀이 있는 마당과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은 지속되어야하는 좋은 삶을 위해 제공되는 돌봄이었다.

버들이가 투병할 때 새벽에 잠을 거의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약 먹이고 버들이가 뛰어 노는 거 좋아하고, ‘바깥바람’ 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버들아, 우리 나갈까?” 그러니까 눈빛이 그러자고 하는

것 같아서 데리고 갔어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바깥바람을 쐬어준 거예요. (13, 유형 C)

마당이랑 집 안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호두가 살 수 있게. 그래서 마당에 이렇게, 울타리를 다 치고, 마당에서 공놀이를 해도 충분한 넓이에서, 이제 흙도 있고 풀도 있고, 이렇게. … 애가 이제 막, 미친 듯이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 그 때는 이미, 몇 번 뛰면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절룩거릴 때였어요. 그래서, 운동은 충분히, 마음껏 못했죠. 근데 이제 뭐, 마당에 땀기도 있고 블루베리, 막, 이것저것 많이 심어 놔 가지고 지들이 다 따먹었어요. 토마토도 따먹고. (4, 유형 C)

동물 환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건강은 강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세 가지 수준을 모두 관리하면서 최적의 삶의 질을 달성함으로써 동물 환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생애 말기 단계에 접어든 모든 동물 환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Bishop et al., 2016). 많은 경우 이 시기 동물들에게 제공하는 돌봄은 신체적 안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잘 먹이기, 씻기기, 의료적 처치와 통증 관리 등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극 주기, 무료함이나 답답함 해소해주기, 함께 있는 시간 늘리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등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돌봄까지 제공하고자 노력 했다.

### 죽음 준비와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동물의 생애 말기와 죽음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 만으로 대비하기 힘든, 예상과는 매우 다른 경험이었

다고 회상했다. ‘준비할 수 있는 죽음’과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으며, 갑작스럽고 준비 없는 죽음이 더 큰 ‘황망함’을 남긴다고 했다. 죽음을 대비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혼란과 충격은 더 커질 수 있었고, 수주에서 수개월의 간병 기간이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연구 참여자 11>에게 생애말기 돌봄의 시간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간’ 혹은 ‘완충지대’로 여겨졌다.

한이는 5개월 정도 투병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5개월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레종하고 레오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죽는다는 사실은 다른 거니까. 사실 한이는 죽었을 때 약간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어요. 얘는 정말 암이 밖으로 터져 나와서 왼쪽 어깨가 다 없어졌고, 그걸 제가 맨날 드레싱을 해줘야 했거든요. 그때 한이 보내면서 “여보 얘는 이제 다행이다” 그랬는데, 레종이는 진짜 그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11, 유형 C)

반면, 수년에 걸친 긴 간병 기간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수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고양이를 돌보며 ‘미운 정’이 들게 된 <연구 참여자 16>의 경험은 이러한 가중되는 돌봄 부담을 잘 드러낸다.

지금 멀쩡한 기관이 없어요. 체장도 너무 안 좋고. 혈뇨도 계속 한 번씩 보는데, 되게 약한 스테로이드 약을 미리 처방 받아온 게 있어서 혈뇨를 볼 때마다 그 약을 조금씩 먹이고. 그리고 치아도 송곳니 밖에 안 남아있어요. 다 녹아 없어져 가지고. … 그리고 눈 앞에 종양이 좀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씩 터졌다 없어졌다 하는데 그게 확실히 고름인 게, 터지고 나서는 너무 냄새가 고약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몸에 다 묻혀 놨는데, 목욕을 못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물티슈로 그냥 대충 닦아 주기는 해요. 아직도 발톱 깎을 때 소리 질러요, 저한테. 때리고 하악질 하고. (연구자: 아직 정정 하시네요.) 하, 너무 정정해, 너무 정정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래요, 저 우스갯소리로. 등이 가고 나면 난 춤 출 거라고. 근데 그게 진심이에요, 저는. 너무 ‘미운 정’이 들다 보니까. (16, 유형 C)

참여자들이 갖는 ‘좋은 죽음’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동물의 남은 생애 동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천하는데 주요한 바탕이 되었다. ‘가족들과, 내 품에서’, ‘때가 왔을 때 놓아줄 수 있는’, ‘잔병치료 없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좋은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술대 위에서’, ‘찬 곳(병원)에서’ 혹은 ‘혼자서’ 맞이하는 죽음의 방식을 ‘나쁜 죽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아픈 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낯설고 스트레스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의 생애말기 경험은 보호자들의 죽음, 삶, 건강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역으로 보호자들이 경험하는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통해 동물의 생애말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27>은 병상에 계시던 할아버지를 오래 모셨던 어머니가 심폐소생술을 포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수술대 위에서 고통을 더해가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 보다는 옆에서 보듬어주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가 병상에 계신 할아버지를 꽤 오래 모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에 심폐소생술을 할 건지 포기할 건지 그 각서를 쓰는 게 있대요. ...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또 느끼고 막 아래저래 하는 것보다는 아

닌 게 맞지 않겠냐고 해서 어머니가 심폐소생술을 포기하겠다고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도 이제 계속 ‘수술을 할까, 말까’ 하다가 ‘수술대에서 죽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듬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내 옆에 조금이라도 더 안 아픈 상태로, 그러니까 고통 없이 가기를 바라면서.

(27, 유형 B)

<연구 참여자 30>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때가 올 때 놓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간에 이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왔던 만큼, 생애말기 돌봄의 목적은 편안한 장소(집)에서 힘들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설정되었다.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어차피 애가 바깥에 낮선 데에 몸도 안 좋은데 있다는 거 자체가 고양이(한테)는 또 스트레스잖아요. 어차피 해 줄 게 없는데 … 그냥 애가 힘들지 않게 그냥 잘 마무리하는 게 도와주는 게 목적이었지, 치료의 의미나 그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편안한 장소에서 그냥 있게 하고 싶었어요. … 별 탈 없이 그냥 늙어서 죽는 건 당연한 거니까. … 그거마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쓰는 거는 아닌 것 같고. … 사람이건 동물이건 간에. … 좋은 죽음은 ‘그런 때가 왔을 때 내가 놓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30, 유형 A)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생애말기 돌봄 과정에서 동물과 보호자의 상황에 맞게 돌봄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그 목적은 단순한 연명이기 보다는, 동물들에게 편안한 마무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 3.2. 혼란과 불확실성 속 변화의 과정

#### 1) ‘전쟁’같은 일상 이야기

##### 모두가 취약해지는 시기

질병이 악화되고 죽음이 가까워오는 생애말기는 동물을 돌보는데 있어 체력 고갈,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이나 죄책감, 금전적 지출, 시간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보호자의 취약성 역시 매우 높아지는 시기였다. <연구 참여자 6>의 경우 신부전 말기 동물을 돌보며 수면부족으로 인한 체력적 어려움, 무력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힘들었던 거는 일단 제 체력이 너무 힘들었어요. 신부전이 8시간에 한번씩 약을 먹여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밤에 거의 토탈까 봐 잠을 못 자는 거나, 3시간에 한 번씩 깨는 거나, 뭐 이런 거가 힘들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 그러니까 외과적인 거면 뭘 해줄 수 있잖아요. …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갔을 때는 돈 때문에 힘들긴 하더라고요. (6, 유형 C)

상태가 나빠질수록 일부 동물들은 예민해지고 잘 무는 등의 성격 및 행동 변화를 보이며 생존에 필요한 약 먹이기, 수액, 강급 하기 등을 강하게 ‘거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들은 처치나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동물의 ‘삶의 질’이 낮아질까 걱정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29>에게 있어 ‘먹이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경험이었다.

안 먹는 거요. 네, 근데 약도 먹고 뭘 먹어야지 기운이 나서 치료를 받을 텐데. 안 먹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지치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애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들고 먹이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일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안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약 같은 것도 억지로 먹이고 해야 되는데 삼키질 않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먹이는 것 자체가 애랑 저랑 ‘전쟁’인 거예요. (29, 유형 A)

동물의 생애말기와 죽음을 마주하면서, 보호자들은 다양한 감정적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암 등의 불치병이나 생애말기 진단 순간, 진통제가 들지 않는 통증 반응, 약물 부작용, 심해지는 환부를 보며 처치를 감행해야하는 상황에서, 조급함, 혼란, 당혹감, 죄책감, 불안, 슬픔, 우울, 두려움과 같은 ‘감정에 취한 상태’이거나 혹은 ‘아무 손도 못 쓰는’ 상황에서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12>의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동물의 출혈을 보면 ‘꿈인가 싶은’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기도 했다.

까미가 뇌종양으로 스테로이드를 먹으니까 부작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스테로이드가 내장에 쌓이면서 내장기관을 파괴한다고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근데 뇌종양에 쓸 수 있는 약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죠. 나중에는 복수가 차오르고 아이가 밤에 물을 먹는데 피가 나면서 물그릇이 빨개지는 거예요. 꿈인가 싶었어요. (12, 유형 C)

보호자가 갖고 있는 동물에 대한 애정과 연민은 이 시기 돌봄을 지속하는 이유이자, 슬픔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점점 취약해지는 동물을 돌본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경험이었다. <연구 참

여자 28>에게 반려동물은 ‘심장을 간질이는 존재’였다. 이러한 감정은 생애 말기 동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 이는 린스 외 (Rynes et al., 2012:504; Satama & Huopalainen, 2019 재인용)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관계성과 연관성에 기반을 둔 돌봄과 슬픔은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냥 심장이 간질간질한 거? 그런 게 다른 거에서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힘들다가도, 집에 와서 딱 보면 그냥 입 꼬리가 절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애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긴 했죠. 거의 누워 있었거든요. 다행히 (죽기)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까지도 걸어서 돌아다니기는 했는데, 워낙에 이제 힘이 없으니까 많이 누워 있었어요. 거의 자고 누워 있고. 그래도 이렇게 일어나서, 물마시거나 이런 때는 일어나서 또 돌아다니고 그러면 좋죠. 여기가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짜릿짜릿해요, 개가 움직이고 그러면. (28, 유형 B)

이러한 돌봄 과정에서의 슬픔은 죽음을 통해 경험되는 슬픔과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18>은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죽음’보다 더 힘든 경험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약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약을 다 끊고, 기다렸어요, 가게. 어차피 방법이 없다면 일찍 가는 것도 애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 죽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게 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 애들이 점점 이렇게 생명이 꺼져가는 게 보이잖아요? (18, 유형 B)

완치가 없는 질병이나 생애 말기 진단 이후, 반려동물-인간 관계는 ‘내

일 올 수도 있는 죽음’, ‘반복되는 고비’로 표현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가중되는 돌봄 부담과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빈번하게 경험했다.

### ‘삶의 질’과 ‘남은 수명’ 사이 갈등

반려동물의 죽음이 가까워오는 생애말기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돌봄과 의사 결정 순간들과 함께 질병, 죽음, 동물의 삶의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믿음과 태도의 영역 (Shearer et al., 2017)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였다. 수술, 항암치료 등 공격적인 처치 여부, 완화 치료와 안락사 선택 등, 진단부터 죽음 사이, 생애말기는 매 순간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동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기꺼이 지불할지에 대한 (대립되거나 혼란스러운) 생각과 고민의 연속이었다. <연구 참여자 8>의 경우 간병 당시 수면부족으로 인한 예민함, 동물의 상태 악화, 죄책감 등이 맞물리면서 가정과 병원 중 어디가 ‘더 나은 돌봄의 장소’인가에 대해 오래 고민했다.

잠을 못 자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아이한테 투자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없고, 자꾸 더 안 좋아지니까 죄책감만 느끼게 되고, 과연 내가 케어 하는 게 맞는 건지, 병원에 입원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고민했어요. (8, 유형 A)

<연구 참여자 10>는 반려동물의 ‘완치가 없는’ 텁프종 진단 후, 높은 재발 가능성과 동물의 스트레스, 남은 수명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했고, 이러한 고민은 동물의 죽음 후에도 계속 남아 죄책감을

일으켰다.

다발성 용종 림프종이어서 *T cell high grade*를 진단 받았어요. 병원에서 “항암은 해도 1년이다. 그리고 항암은 3차, 4차 프로토콜을 다 끝내 도 돌아서면 재발할 수 있다. 근데 항암을 안 하면 한 달이다.” … 림프종은 ‘완치가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든 재발하고, 재발하는 병이라니까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떠나는 날까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게만 해줄까? 아니면 하루라도 더 살릴까?’ … 계속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병원을 가야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 도 참 겁이 많고, 스트레스에 예민해서 병원만 갔다 오면 그렇게 설사를 해요.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암이라는 게 스트레스에 엄청 취약한 병이잖아요. … (항암 치료 진행 중 사망 이후) 든 생각이 ‘처음에 암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항암을 했으면 살지 않았을까?’예요. … 지금도 계속 생각해요. 어차피 떠난 아이이긴 하지만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었던 걸 ‘내 손으로 죽인 건 아닐까’하는 죄책감,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10, 유형 C)

생애말기 돌봄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목표는 ‘최소한의 후회(least regrets)’이지, ‘후회 없음(no regrets)’이 아니며, 후자는 생애 말기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목적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Shearer et al., 2017).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도 역시 반려동물의 생애 말기 질환과 신체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돌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모여서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돌봄은 “지속적인 관계에 뿌리를 두고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허용하는 일”이었다 (Bunting, 2022:255). 노환, 만성 질환이 주인 생애말기 특성상 완치가 없고, 소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줘가며 하루하루를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하루라도 더’ 살리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질문 사이에서 많은 보호자들이 갈등을 겪었다. 즉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남은 수명(quantity of life)’이라는 두 측면 사이의 우선순위 (Reynolds et al., 2010)에 대한 문제와의 충돌을 경험했다. 이러한 충돌은 죽음의 방식을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극대화 되었다.

## 2) 안락사 의사결정 하기

### 감수해야하는 막중한 선택의 무게

인간과 반려동물 돌봄의 가장 큰 차이는 합법적이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안락사 결정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Christiansen, 2013; Yeates, 2010).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은 동물 환자의 자율성을 대신하여 보호자의 대리 자율성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동물의 상태 인식, 돌봄에 대한 수행 가능성, 보호자 성향, 죽음과 삶의 질에 대한 태도, 보호자-동물 유대감, 수의사-고객-환자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돌봄의 끝, 죽음의 방식을 결정해야하는 경험은 관계에 대한 책임, 정체성, 역할을 스스로 다잡는 과정이기도 했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혼란 속에서도 생애 말기 의사결정은 동물과 살아가면서 감수해야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여기며, ‘어떻게 해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본인 상황에서의 ‘최선’에 대한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최선은 동물이 아닌, 자신에 대한 최선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21>의 경험이 그랬다.

아픈데 병원에 하루 종일 두고 수액만 맞으니까 애가 그냥 아예 생기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또 집에 데려와서 … 거의 한 두 달을 살아있었던 거예요, 밥도 하나도 안 먹고.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근데 두 달 동안 사실은 다 수액의 힘으로 살린 건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제 시간과 돈과 뭘 다 할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최선이지, 개한테 최선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21, 유형 C)

참여자들은 동물의 고통을 지켜보며 돌봄을 이어나가는 것이 ‘욕심’, ‘제 만족’, ‘고집’이 아닐까 하는 자기 의심을 경험했다. 또한 갑자기 겪게 되는 힘든 과정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혹은 생애 말기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이 보호자라는 이유로 동물의 삶을 ‘좌지우지’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18>은 돌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이 더 들어서라고 설명했다. 반면 <연구 참여자 11>의 면담 내용에는 돌봄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 ‘엄마’로서 이를 선택해야만 했던 순간의 먹먹함이 담겨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애를 더 살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회복될 여지가 없는데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니까요. 나중에는 새벽에 그냥 산소발생기도 켠어요. 목요일을 기점으로 계속 올 엘거든요. 그래서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너가 스스로 떠났으면 좋겠다.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제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엄마니까. (11, 유형 C)

연구 참여자들은 반려동물의 자율성을 대신하여 생사와 직결되는 돌봄 혹은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했다. 보호자로서 동물의 자율성을 대신한다는 것은 동물의 자율성의 존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자율성’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였다. “준자율성 (quasi-autonomy)” (Morgan, 2007)으로 표현되는 동물 환자의 자율성은, 그들이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선호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보호자나 수의사가 파악 가능할 때 동물 환자에게 최선의 결정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자는 동물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동물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러한 근접성으로 인해 극심한 감정적 혼란과 제약을 겪었다.

### 고통의 끝이자 관계의 끝인 죽임

반려동물의 생애말기, 대부분의 보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 환자의 남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고 고통 없는 마지막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ynolds et al., 2010).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에서 드러나는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개인에 따라 매우 상반됨을 확인하였다. ‘해결이 안 되는’ 통증, 고통 연장, 회복불가능성, 치료의 무의미성 등은 안락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요인은 일부 보호자들에게 안락사를 동물의 고통을 없애주는 ‘또 다른 방식의 책임이자 의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했다. 하지만 안락사에 대한 필요를 인정한다는 것이, 죽음에 대한 쉽고 편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 25>는 안락사를 ‘수의사와 고통을 나누는 것’으로 표현했다. 수의사들을 통해 안락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과 ‘수만 가지 생각’을 잠재울 수 있었다고 했다.

여태까지 다 이제 안락사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별 ‘거부감’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의사분하고 그런 ‘고통’을 나누는 거니까, 내가 ‘온전히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 맨 처음에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수만 가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수의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가 진짜 힘들었던 애들은 벌써 안정제 들어가는 순간에 무지개 다리를 건년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을 되게 믿거든요. (25, 유형 C)

하지만 이러한 믿음과, 몇 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과정에서의 동물의 고통스러운 반응과 지연된 죽음 과정은 선택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가중시키는 경험이었다.

한 마리가 굉장히 어렵게 보낸 아이가 있었어요. … 반응이 좀 격했어요. 오래 걸리기도 했고. 안정제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좀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그래서 애가 지금 괜찮은 거냐고 “다른 날 다시 올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진정제가 들어가고 나서도 안락사 제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굉장히 막 이렇게 경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좀 그랬어요.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애 보호자라는 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개를 보면서. (25, 유형 C)

반면, 오랜 시간 함께한 보호자-동물 관계의 상실 상황에 더해 ‘내가 결정하는 죽음’이라는 부담감은 안락사 결정을 미루거나 배제하게 만들었다. 동물의 상태가 너무 나빠 수의사가 안락사를 권유하는 상황에도 결정

을 지체하거나 거부했던 경험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27>은 차마 안락사를 선택할 수 없었다. ‘내가 죽인 느낌’, ‘포기’라는 생각에 안락사 대신 수술, 독한 마약성 패치 같은 ‘딴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동물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뭐가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은 안락사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 (안락사) 얘기 듣긴 했었어요. 근데 수술을 시키면 시키지 안락사는 못하겠다고 그랬었어요. 뭔가 약간 ‘책임 전가’ 같은데, 사실은. … 수술을 하다가 만약에 아이가 갔을 경우에는 웬지 내가 죽이지 않은 느낌? 근데 안락사는 ‘내가 죽인 느낌’이 너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 그거 말고 딴 방법 찾아달라고 해서 찾은 게 이제 마약성 좀 독한 패치 … 이게 모르겠어요. … 안락사를 하는 게 오히려 옳았는지. … 안락사는 … ‘포기’하는 것 같아서? 물론 저의 욕심이지만,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27, 유형 B)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는 고통을 멈추는 의료적 개입으로서의 안락사가 필요함을 알지만, 동시에 생명을 고의로 끊는 선택을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괴로움과 죄책감 등이 뒤섞이는 “돌봄-죽임 역설(caring-killing paradox)” (Pierce, 2012:272)을 경험했다.

### 3) 주위 사람들과 함께 돌보기

동병상련이자 애증의 존재, 가족

유형A[기존-공동]와 유형C[독립-공동]인 다인가정의 경우, 생애말기 돌봄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생애말기 ‘최선’의 돌봄,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14>는 동물의 노화와 이상 증상이 조금씩 시작될 때부터 엄마와 갈등을 빚곤 했다.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과는 달리, 엄마는 ‘자연스러운’, 혹은 ‘어쩔 수 없는’ 나이 드는 현상이라며 그냥 두자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 죽음의 방식에 대한 태도 차이 역시 극명했다.

저랑 엄마랑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 의사가 갑자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 심폐소생술? 이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이제 그만… 이걸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어차피 갈 거면 이렇게 안고 있고 싶다.” 근데 저는 “아, 그래도 왜 그러냐, 끝까지 한번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죽었는데, 저희 엄마는 그게 계속 후회가 되시나 보더라고요. 병원 테려갔을 때부터 그 산소방에 넣어놓은 것도 그렇고. 그냥 계속 안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14, 유형 A)

특히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연구 참여자 29>는 ‘이 정도면 최선이고, 이제 보내주자’는 다른 가족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동물을 더 살려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특히 큰언니와 죽음에 대한 ‘결정’을 놓고 많이 싸웠던 경험을 언급했다.

부모님이나 언니들하고 많이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제가 대체로 ‘고집’을 좀 많이 심하게 부렸던 것 같아요, 애한테. …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저희 언니들도 그냥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 내가 다 하겠다고. 병원비랑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조금만 더 테리고 있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큰 언니랑 제일 많이 싸웠거든요. “네가 왜 애 생명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애를 고통스럽게 하냐고.” 저는 “왜 언니가 애가 아직은 살아있는데 왜 갑자기, 언니가 무슨 심판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왜 언니가 결정 짓냐고, 애도 생각이 있을 텐데, 애도 살고 싶을 텐데. 왜 자꾸 그러냐.”,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런 걸로 진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29, 유형 A)

반면 다인가정 내에서 보호자들은 가족들과 ‘번갈아 가며 밤을 새워 돌보는’ 등 실질적인 돌봄 도움을 받거나, 다가오는 상실에 대한 슬픔과 더 나은 마지막을 위한 고민과 책임감을 나누며 이해 받을 수 있었다. 가족 뿐 아니라, 주위의 동물을 키우는 친구나 동료, 지인은 ‘동변상련’의 사람들로, 함께 울고 다독이며 감정적인 버팀목을 제공해 주었다.

### 책임과 슬픔을 주고받는 수의사

앞서 안락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인했듯, 이 시기 수의사는 보호자가 느끼는 막중한 ‘책임’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수의사와의 라포(rapport)나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생애말기 관리나 안락사에 대한 보호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더 존중되거나, 혹은 반대로 수의사의 의견과 권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도 했다. 의사결정에 앞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의견을 교환하며 동물 환자의 관리 방식이나 약물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 수의사의 ‘무조건’ 같은 표현이나, 냉정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수치 위주의 설명보다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참여자 16>은 ‘만약에

나라면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공감의 화법을 사용하면서 보호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수의사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간 80% 이상이 지금은 종양화가 되어있다고, 그래서 제 구실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황달이 올 거고, 폐수종이 올 건데 ‘마음의 준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 이번에 갔을 때 그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 둉이가 만약에 폐수종이 오면 제가 먼저 편히 보내주는 것도 방법인 건가요?”라고 여쭤더니, … “만약에 나라면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2, 3일 더 살자고 계속 아픈 아 이를 아픈 상태로 2, 3일 가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보호자의 뜻이니 잘 생각해보시라고… (16, 유형 C)

일부 참여자들은 수의사들의 모호하고 불친절한 설명과 태도로 인해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보호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검사나 의료적 처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동물의 평소 습관이나 상태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을 듣지 않는 수의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또한 ‘리스크’, ‘가능성’, ‘확률’ 같은 표현으로 설명되는 선택지들은 보호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보호자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특히 생애말기 동물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돌봄이나 죽음의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하는 과정에서, 공감이나 배려 없는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보호자가 생각하는 생애말기 돌봄의 목적과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의사들은 보호자들의 슬픔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에 더해 수의사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Shanan, 2011). <연구 참여자 13>의 경험은 그 뚜렷한 예이다. 언어폭력에 가까운 단어, 말투 등에서 드러나는 수의사의 비윤리적인 태도에서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관계나 동물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를 찾아보기 힘들다.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 병원에 선생님이 세 분 계시는데 거기 부원장님이셨을 거예요. 다른 환자를 데리고 온 엄마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걱정할 거리가 아니에요. 재가 걱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진짜 뒤집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다시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서 병원에 다닌 지 10일 후에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버들이가 하루 이틀 남은 상태면 제발 얘기를 해 달라. 집이랑 병원 왔다 갔다하면서 얘기를 보내고 싶지 않다.” 근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와 시간을 좀 보내세요.” 그 한마디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 하라는 처치를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했을 때 버들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케어를 끝까지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 한마디를 안 해서 … 그게 지금도 너무 분해서 저 그 병원 쳐다보지도 않아요. … 병원에서는 말을 골라서 해도 “지금 애 수치 안 잡하면 폐사야, 폐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3, 유형 C)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동물의 생애말기 상황에서 수의사가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다음 단계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동물의 생애 말기 돌봄과 안락사 결정을 지지하며, 이와 관련된 죄책감, 슬픔 같은 감정에 공감하고 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주길 원했다. 면담 내용은 보호자가 생각하는 생애말기 돌봄의 목적(goals of care)과 돌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동물 환자 복지, 동물 상실에 대한 극복, 미래의 수의사-고객관계, 나아가 추후 인간-동물관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선행연구 내용을 뒷받침한다

(Heuberger, 2017; Nogueira, 2019). 보호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동물에게 최선의 돌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가 이를수록 바람직하며, 보호자의 돌봄 상황을 이해하고 (단순한 감정적 위로나 심리상담이 아닌)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돌봄의 목적을 설정하고 수행해야 한다 (Springer & Flammer, 2021).

### 3.3. 배움의 의미로서의 상실

#### 1) 유한한 삶 받아들이기

##### 죽음의 순간

반려동물은 (대부분)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동물의 노화와 죽음은 보호자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현서, 2018; Christiansen, 2013). “뭐가 떨어져나가는 듯한 느낌”에 그 순간을 차마 지켜볼 수는 없었다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반려동물 죽음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6>의 경우, “스위치가 꺼지듯”, 꺼져가는 생명을 동물의 눈빛 속에서 확인하던 순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제 품에서 그냥 저랑 눈 마주치면서 갔어요. 정말... 그 느낌 보신 적 있으세요? 눈 마주치고 있는데 생명이 꺼져가는 느낌? 눈빛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게 아, 막 끔찍하거나 싫거나 그게 아니라,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생명이 ‘순간 스위치 꺼지듯이’ 딱 꺼지더라고요. 아,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내 ‘품’에서 보냈으니까. 저도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병원에서 찬 곳에서 혼자서 보내지 않고 그냥 가족들한테 다 인사하고, 그리고, 그리고 보냈어요. (16, 유형 C)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으로 인한 정신적, 감정적 혼란과 함께, 동물이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는 위안을 얻게 되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다. 죽음의 과정을 보며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게 되기도 하고,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상실로서의 동물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기준의 인식을 재고하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안고 있던 동물이 죽는 순간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희미함을 느끼며 죽음의 의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험이었다고 설명했다.

### 관계와 경험의 재-의미화

참여들에게 동물의 죽음은 인생에서 처음 맞는 죽음이거나, 몇 번을 경험해도 익숙해질 수 없거나, 혹은 거듭될수록 ‘인이 박히는’ 경험이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히 이별에 대한 슬픔만을 경험하는 시기는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 6>의 경우 이 시기에 자신이 슬픔과 상실에 대처하는 법을 깨닫고, 관계와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했다. 올지 않고 죽은 반려동물을 떠올리는 방법은, 동물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간 많은 것들을 되새겨 보는 것이었다.

투병하면서 느꼈던 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보면 그런 죽음에 대한 거나, … ‘나는 이런 슬픔에 이렇게 대처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경험이긴 했어요. … 올지 않고 개를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그걸 되게 찾고 있

었거든요. 나한테 진짜 좋은 거를 많이 가르쳐줬고 그랬는데. … 개가 그거를 다 가르쳐주고 간 느낌이에요. 병원이든, 애한테 약 먹이는 거, 죽음을 대처하는 법, 그리고 동물이 나보다 빨리 늙는 거를 깨우치는 법,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 죽는다, 늙는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살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동물도 늙잖아요 더 빨리. … 많이 배운 거 같아요. (6, 유형 C)

연구 참여자들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얻게 되는 지식이나 가치관, 인식 변화의 범위는 동물에 대한 지식,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해, 건강에 대한 태도, 좋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까지 포함한 넓은 영역에 걸쳐 있었다. <연구 참여자 16>은 동물을 키우면서 ‘생명의 무게감’을 배웠으며, 오히려 그들로 인해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애들 때문에 ‘생명의 무게감’을 배웠어요. … 제 마음 속에 그 ‘불’을 켜준 것 같아요. 어디서 태어났건, 어디에 살건 어떤 생명이든 간에 모든 생명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거고, 그 생명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다고. … 카테고리를 없었던 것 같아요. …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애네를 키우고 돌봤다기보다는 애네가 저를 키워주고 돌봐준 것 같아요, 제가 성장할 수 있게끔. (16, 유형 C)

<연구 참여자 17>은 한 동물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를 쭉 지켜보며 죽음에 대한 필연성, 삶과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한 ‘삶 자체’에 어디서도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다고 했다.

심바 태어났을 때부터 애가 죽을 때까지 어떤 그걸 쭉 지켜봐왔잖아

요? 그러면서 엄청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사람들도 태어나서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다들 죽는 거는 무조건 필연적인 거고. 그래서 어떤 삶과 죽음, 그리고 뭐 가족에 대한 죽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 만약에 제가 심바를 안 키웠더라면 이런 감정을 생각해볼 시간도 없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엄청 행복했을 때부터 심바가 죽을 때까지 어떤 '그 삶 자체'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어서. 그래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17, 유형 A)

<연구 참여자 21>은 죽음 이후 몇 년간 '슬픔의 대상'이었던 동물이, 이후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동물과의 관계와 경험을 '반추'함으로써 지금의 고양이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했다. 관계의 재-의미화가 단순한 슬픔의 극복이 아닌, '더 좋은' 돌봄으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죽고서 한 몇 년은 극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극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슬픔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극복이라고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했던 많은 실수를 계속 반추해요. 반추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낭만적이지는 않죠. 실수를 반추한다는 게 뭐냐면, 개랑 제 Relationship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행동했지?' 정의를 내려보고, '그렇기 때문이구나. 그 정의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 내가 놓친 거, 실수한 거,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서 그거를 (지금 같이 사는) 저희 집 고양이한테 거꾸로 하려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럴 때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개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네가 나랑 있어준 시간만큼, 나한테 알려준 만큼, 내가 그 다음에는 잘해줄게. 이 정도는 무조건.' (21, 유형 C)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반려동물의 생애말기 돌봄과 동물의 죽음 경험은 존재와 생애에 대한 배움과 성찰의 과정이자, ‘자신에 대한 이해’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돌봄과 죽음 경험의 재-의미화는, 기존 반려동물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팻로스 중후군 담론을 넘어서는 주제로써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 2) 남겨진 돌봄 지속하기

### 애도와 기억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 아닌 유대의 지속을 의미했다. 한 연구 참여자는 동물의 죽음을 “육체적 헤어짐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며,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정신적으로, 항상 연결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새로운 방식의 관계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6>에게 죽은 동물이 남긴 자리는 ‘메꿔지지 않을 웅덩이’로 표현되었다.

저한테는 되게 어 되게 큰 ‘웅덩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개가 없다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 막 빠지진 않죠. 허우적대진 않지만. 어딘 가엔 있는 거죠. 그 웅덩이는. 메꿔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그 아이는 그 아이니까. (6, 유형 C)

캐리 웨일 (Weil, 2012:103)은 죽은 자신의 말을 기억하며, “애도란 삶에 대한 증명(attesting to a life)이며 … 인간은 우리의 삶과 얹힌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존재들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자전적인 동물”이라

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동물의 죽음 이후 애도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 친구, 수의사 등 주위 사람이나 동물들은 위로 제공자나 베풀목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들은 때에 따라 슬픔을 가중시키기도 했으며, 이 시기에 돌봐야할 다른 인간-동물, 인간-인간 관계로 인해 ‘제대로’ 슬퍼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연구 참여자 6>은 동물의 죽음 이후, 자신보다 더 많이 슬퍼했던 남편과, 함께 울어주던 동물병원 원장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저희 남편은 특징이 더 많이 올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고마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슬퍼하고 이러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슬퍼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정말로 이해를 하는구나’ … 아이가 갔을 때도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원장님 저희 얘기 잘 갔다고 감사하다고, 그래도 일주일간다고 했던 거 6개월 살려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이 나이도 좀 있으시고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 그렇게 참 그렇죠. 그 마음이 되게 고마웠어요. … 이사를 왔기는 했는데, 그만큼의, 그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원 없이 치료하지 않을까. …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게 되니까 아이들 조금이라도 아플 때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병원을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6, 유형 C)

개와 고양이의 짧은 생애로 인해,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겪는 상실이 아니므로, 이에 사회적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슬퍼할 권리 를 박탈당한 채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disenfranchised grief)”의 형태로 감내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Doka, 1999). 이러한 과정에서 보호자들의 정상적인 슬픔과 애도의 과정이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으로 여겨

지며, 주위로부터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상태로 인식되는 경우도 흔하다 (Spain, 2019).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동물의 죽음 이후 극심한 슬픔과 우울감, 무력감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상실의 슬픔 그 자체도 크지만, 슬픔과 애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이들이 함께한 삶과 관계의 의미 역시 인정되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로부터 비롯되는 감정이나 증상일 수 있다 (Spain, 2019; Desmond, 2016). 중요한 것은 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이후 죽은 동물과의 관계와 그 존재를 잊지 않고 남기기 위해 노력했으며, 주위 사람들과 슬픔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이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이해받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까운 지인과 가족의 죽음에 있어서와 비슷한 애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Packman et al., 2011; Field et al., 2009).

### 또 다른 돌봄의 결심

동물 죽음 이후, 남겨진 돌봄의 자리는 기존에 키우던 다른 동물로 채워지거나 보호소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돌봄 관계를 맺는 대상의 전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12>는 짧은 시간동안 세 노견을 연달아 떠나보내고, 남은 고양이에게 ‘집착’하게 되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제가 보리한테 많이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집착해서 온 세상에 개 밖에 안 보일정로요. 세 아이한테 가던 사랑이 개한테 몰리고 저도 어디라도 ‘정 불일 곳’이 있어야하니까요. 노견들을 챙어하다가 애들이 떠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12, 유형 C)

한편, <연구 참여자 30>에게는 동물을 돌봤던 경험이 엄마가 되어 아이를 돌볼 수 있겠다는 결심의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기에 관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기 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측은지심이라는 게 동물한테 있으면 더 있었지. … 근데 애를 키우면서 새끼 때부터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보니까 ‘자식을 키우는 마음이 이런 건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느껴본 거예요. (웃음) …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애를 통해서 ‘나도 엄마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실은. … ‘사람에 대한 마음’도 같이 또 배운 것 같아요. (30, 유형 A)

돌봄 경험은 또 다른 돌봄의 결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동물의 상실을 메ぐ기 위해 새로운 반려동물을 바로 들이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옳은 결정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죽음 이후 다음 동물을 키울 결심을 하기까지 더욱 신중해지게 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동물과의 삶과 돌봄 경험을 통해 타자, 특히 동물에 대한 배려와 감수성을 일깨웠다는 것을 언급했고, 이러한 경험은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마음’도 함께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반려동물 보호자의 경험 재구성

#### 1.1.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 노화와 질병, 죽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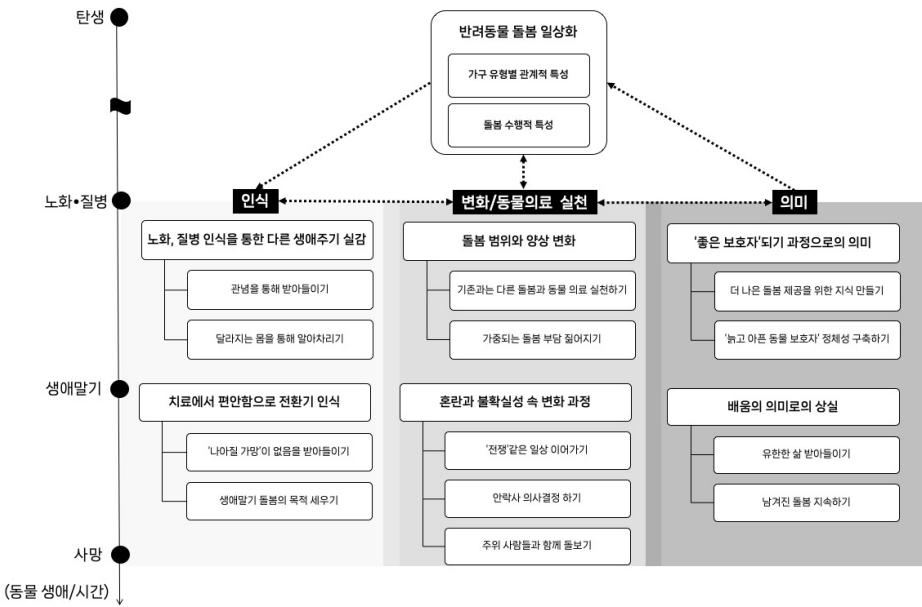


그림 1.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 노화와 질병, 죽음 경험 모식도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반려동물을 돌보는 보호자의 동물 노화와 질병, 죽음 경험을 모식도로 정리했다 [그림 1]. 연구 참여자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구 구성과 자신의 생애에 따른 가구 구성과 돌봄 형태 유형별 관계적 특성과 함께, 동물이 갖는 관계적 의존성, 신체접촉

기반 상호작용, 동물 능력 및 행위성, 그리고 상호 타협과 수용 등 수행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의 일상화를 경험하였다. 이후 동물이 점차 나이가 들면서 노화증상이나 질환이 시작되거나 혹은 질병이 발현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동물의 생애 사건에 대한 ‘인식’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감각뿐 아니라, 과거 경험, 지식 등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인식 이후, 동물에 대한 공감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반려동물 돌봄의 양상이나 범위의 ‘변화’와 함께 기존과는 다른 동물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돌봄 경험이나 관계는 연구 참여자들의 지식, 가치관, 정체성 등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혹은 동물의 사망이후, ‘(재)의미화’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참여자들의 동물 노화와 질병, 죽음 경험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간과 반려동물의 생애주기가 다르다는 것은, 동물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함에 있어서 인간과는 다른 시간적, 방법적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했다. 이는 보호자가 동물이 노화와 질병, 생애말기 시기로의 이행을 겪고 있음을 언제, 어떻게 알아차리게 (recognized) 되는 지에 따라 수행되는 돌봄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두 시기 (노화와 질병/생애말기) 돌봄 경험에서의 ‘인식’과 관련하여 ‘노화와 질병 인식을 통한 다른 생애주기 실감’과 “치료”에서 ‘편안함’으로의 전환기 인식‘ 두 가지 주제가 도출 되었다. 보호자가 동물의 노화, 질환, 질병을 인식하는 경험은, 일상에서 감각되어지는 동물의 신체적, 행동 변화의 체득(생물학적 몸을 통한 체현적 정보 경험)과 함께 보호자가 갖는 의식적, 문화적, 사회적 정보와 이해를 통한 해석(사회문화-의료적 요인을 기반으로 한 인지적-정서적 정보 경험)의 총합이었다<sup>10)</sup>. 이 두

측면은 일치하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하며, 끊임없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동물의 노화와 질환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 신체적 증상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자가 갖고 있는 노화와 건강 개념, 돌봄 경험, 관련 정보, 이에 대한 수용 여부, 혹은 가족, 주위 사람들의 태도나 관점 차이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비슷한 건강상태나 증상을 보이는 동물이라도, 상황에 따라 고령 동물이나 동물 환자가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물의 신체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노화와 질병에 대한 실제적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이 기존의 통념을 통해 갖고 있던 지식과는 매우 달랐으며, 노화와 질환의 예측불가능성은 적절한 돌봄에 대한 준비 미흡과 연결될 수 있었다. 이는 동물의 생애 주기별 변화와 돌봄에 대한 보호자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Nettifee et al., 2017).

인식 이후, 동물의 상태에 따라 돌봄 범위와 양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러한 변화와 전환은 일회성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동물의 상태, 필요한 의료적 개입, 보호자의 상황, 돌봄 형태, 생활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얹히고, 타협과 적응을 거쳐 다시 일상화되고 습관화되는 끊임없는 ‘과정’에 가까웠다. 이러한 노화와 질병, 그리고 생애말기 돌봄 경험에서의 ‘변화와 동물 의료 실천’에 대한 주제로 ‘돌봄 범위와 양상의 변화’와 ‘혼란과 불확실성 속 변화의 과정’이 도출되었다. 돌봄은 점차 ‘전문화’되어야 했고, 특히

---

10) 개인은 일상에서 지각적, 인지적 및 체현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며 살아가고, 이 과정에서 관련된 감정, 인지, 신체, 관계, 장소 및 물질적 대상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Solhjoo et al., 2021). 사볼라이넨 (Savolainen, 2019)은 이러한 정보 경험을 “감각적(체현된) 정보 경험(experiencing sensory (embodied) information)으로의 취득(receiving)”과 “인지적-정서적 정보 경험(experiencing cognitive-affective information)으로의 해석(interpreting)”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며, 이 두 측면의 관계성과, 이를 둘러싼 맥락, 상호 작용 및 전체적론인 부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동물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동물에 대한 돌봄은 언어적 교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미지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동물을 더욱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상상력을 동원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상호 지식’을 쌓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또한 질병 상황에서의 돌봄 관행과 관련하여 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반려동물이 약을 수월하게 복용할 수 있는지, 집에서 주사나 피하 수액 투여 등의 의료적 처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임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정 내 돌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투약 지시나 처치 계획, 그리고 서툴거나 잘못된 방식으로의 의료적 개입은 동물과 보호자 모두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했다. 보호자가 수행해야하는 동물 의료 실천적 정보와 방법(투약 경로, 투약 주기, 내원 방식, 약물 종류 등)에 대해 수의사와 보호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Spitznagel et al., 2019b).

반려동물의 노화와 질병, 죽음 이후, 동물의 (비교적) 짧은 생애 동안의 관계맺음과 돌봄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의 계기가 되었고, 또한 ‘타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 ‘삶과 죽음에 대한 재고’ 등 존재와 생애에 대한 배움과 성찰의 과정이기도 했다. 노화와 질병, 생애말기 돌봄 경험에서의 ‘의미’에 대한 두 가지 주제는 “좋은 보호자‘되기 과정으로서의 의미’와 ‘배움의 의미로서의 상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의, 애정, 응답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 습관 (Hamington, 2017)을 통해 동물에 대한 태도나 행동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상대를 평생 돌보며 책임진다는 것은 시간과 신체적 시행착오와 적응 속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상호변화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동물, 인간과의 관계와 삶의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1.2. 여성 보호자의 반려동물 돌봄 경험

본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30명 중 28명)이 여성되었으며, 또한 면담에서 나타나는 동물 돌봄을 ‘항상 하는 사람’과 ‘가끔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봤을 때 (이용숙, 2017), ‘항상 하는 사람’은 여성인 경우가 많았다. 이용숙(201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대부분의 돌봄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반려동물을 위한 역할 분담에서 사회문화적 맥락 속 ‘어머니’의 위치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았다. 반려동물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귀찮은 ‘돌보는 일’은 종종 ‘어머니’들에게 전가되고, 이로 인해 ‘아버지’와 ‘자녀’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노는 일’을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보다 많이 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엄마의 역할’이 반려동물과의 관계와 생활 영역으로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러한 현상을 이용숙은 “가족의 기능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반려동물 키우기의 가사노동은 다시 전통적인 가족구성원 역할분담에 따라서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가 30-40대에 주로 속하고 미혼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머니 역할에 국한되기보다, ‘어머니’와 ‘딸’들이 경험하는 반려동물 돌봄 경험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돌봄은 원래도 쉽지 않지만, 다인 가정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과 개, 고양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아기가 태어나는 등 다른 존재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잘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크게 느끼기도 했다. 한 참여자는 결혼 전, 혼자 개를 키우며 본인이 설정한 보호자 역할과 정체성은 ‘반려동물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낳고, 개와 아이 둘을 같이 키우며 개에게 예전에 해줬었던 것만큼의 '반'도 못 해주는 상황에서, 보호자 역할을 '어떤 상황이 돼도 반려동물이 죽는 순간까지 같이 하는 사람'으로 수정해야 했음을 이야기하며,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돌봄 관계와 양상, 범위는 가구 형태나 구성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유형B[독립-단독]의 상황에서는 경제적 활동을 위해 집을 비워야하는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강한 책임감과 유대감을 특징으로 하면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힘들어 했다. 반면, 유형 A유형[기존-공동]과 C유형[독립-공동]인 다인 가정에서의 갈등은 돌봄 역할 분배나 수행에 대한 의견 차이 이외에도, 주돌봄자와 경제적 조달자 사이 발생하는 '의존성'과 '자율성 저하'로 인한 취약성이 가중되면서 발생하는 '협력적 갈등'의 특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물의 노화, 질병, 생애말기 상황에서 동물 돌봄에 대한 갈등이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가구구성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돌봄의 양상과 역할은 성별과 관계없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새 가정을 꾸리면서, 혹은 부모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등 가구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을 돌보는 역할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다 (Greenebaum, 2004; Hodgson & Darling, 2011). 따라서 성별과 상관없이 보호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동물 환자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고객은 여성 보호자들이다. 이들은 종종 수의사들이 동물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혼란을 주거나, 윤리적 딜레

마를 야기하거나, 심리적 건강과 정체성 형성, 직업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적(enemy)’ (Armitage-Chan, 2020)이나, 동물의 건강에 대한 ‘일반인 전문가(lay-expert)’ (Burrow, 2017)로 여겨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어머니’와 ‘딸’의 ‘살아 있는 경험’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감정, 신체, 관계가 얹힌 돌봄의 의미를 확인했다. 이들이 경험하는 돌봄은 종을 초월하여 이루 어지는 돌봄의 여성성, 즉 민감성과 관계적 가치의 발현이었으며, 개인과 가정, 사회적 구조가 얹힌 다층적이고 복잡한 돌봄의 맥락을 보여주었다. 사회가 반려동물 보호자, 특히 여성 보호자들에게 갖는 편견이나 무지를 넘어, 실제적 도움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반려동물 돌봄 관계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연구 의의 및 제언

### 2.1. ‘돌봄 관계 기반 동물 진료’ 필요성

안네마리 몰 (Mol, 2008:18)이 강조하듯, 돌봄이란 명확한 경계가 없는, 과정이자 열린-결말이며, 한 존재에게서 다른 존재에게로 깔끔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 모종의 결과를 향해서 시간을 들여 지속하는 협업의 결과이다. 따라서 최근 선행연구들은 동물 진료가 단기적이고 사후 대응적 방식이 아닌, 상호적이며 생애 전반에 걸친 과정의 일부로서 재구성되어야하며, 이때 수의사와 보호자는 동물의 건강을 함께 살피는 파트너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Williams & Jewell 2012;

Goldberg, 2019). 또한 동물 환자의 질환이나, 생애말기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감정적 혼란, 시간과 자원 결핍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가정 내 돌봄 제공이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동물 환자의 건강과 질병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Ormerod, 2008; Lue, 2008). 중요한 것은, 인간 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물 환자도 진단, 질병, 간병이라는 과정에서 1차원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에 더해 환자를 대변하고 수의사의 주의를 요구하는 보호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 상황의 배경으로 사라지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Pierce, 2019). 동물 환자의 ‘의미’ 있고 ‘존중’ 받는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Springer & Flammer, 2021).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참여자들의 돌봄 경험은 그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있었지만, 동물 진료 상황에서는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의사가 동물 진료 상황에서 보호자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적 관리를 위한 초기 병원 방문에서부터 일상과 생애에 걸친 돌봄에 대한 상담을 통해, 보호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부담 완화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능한 최선의 돌봄과 삶의 질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서로를 신뢰한다면, 수의사와 고객 간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자는 그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며, 수의사의 권고 사항을 따르고 향후에도 더 수월하고 편안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동물의 신체적 치료에 더해 보호자와 동물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할 수 있게끔 이를 살피고, 이들이 경험하는 아픔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원까지 돋는 과정으로의 ‘동물 진료’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동물 의료에서 ‘돌봄’의 의미

에 대한 학문적 고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물 진료 과정 역시 인간-동물 관계 발현의 현장임을 고려하면, 동물 진료 상황에서 보호자들의 돌봄 경험을 이해함과 동시에, 돌봄의 관계적 특성을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동물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물 진료 상황에서의 이해당사자인 수의사, 보호자, 동물 환자를 독립적인 주체로 상정하는 기존 VCPR 관점에서 나아가, 관계와 수행 중심의 진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돌봄 관계 기반 동물 진료’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이해당사자(동물 환자, 보호자, 수의사 및 의료진) 사이 관계성, 환경(가정, 사회, 제도적 영역), 그리고 돌봄의 관계적 특성(상호, 실천, 윤리)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고려해야하는 돌봄의 관계적 특성은 앞서 서론에서 돌봄의 이해를 위해 정리한 개념들 중 일부 주요 돌봄 특성 (de La Bellacasa, 2012; 2017; Tronto, 1993:127)을 반려 동물 진료 상황에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상호적(reciprocal)’ 특성은 동물과 보호자, 보호자와 수의사, 수의사와 동물 사이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보호자와 수의사의 협력 관계에 대한 수용을 의미한다. ‘실천적(practical)’ 특성은 현재 사후 대응적이며 단기적 목표 지향적 개입 방식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과 관리 방식을 통한 동물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 실제적 방식으로의 관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적(ethical)’ 특성은 보호자가 인식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계적 책임과 역할을 이해하고, 동물 진료 과정이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의미한다.

심각한 질병 치료 및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권고이든, 덜 심각하고 자주 행해지는 치료나 일상의 예방적 돌봄에 대한 권고이든, 돌봄의 맥락과 삶의 질 측면에서 이를 재구성하면 근거 기반의 치료 옵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확신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Brown et al.,

2021; De Haven, 2014). 동물과 수의사 모두가 보호자에게 매우 강한 의존성을 갖게 되는 동물 의료 특성을 고려할 때, 돌봄 관계 기반 진료의 구성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은 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질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 지원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Burrow, 2017).

## 2.2. 동물 의료에서 ‘돌봄’ 개념화

의료전문가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돌봄이란 의료적 치료나 처치에 더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원까지 돋는 태도나 방식 (공병혜, 2009)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의료행위는 단순한 치료 그 이상을 포함하며, 치료와 돌봄 모두를 의학의 중심 가치로 간주해왔다 (Groenhout, 2018). 그러나 근대 이후 과학기술중심주의 의학 패러다임에 의해, 과학적 검증과 수치적 계량화가 가능한 영역만이 지식으로 탐구되면서,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돌봄의 가치들이 배제되기 시작했다 (공병혜, 2017). 현대 의료는 심신 이원론에 따른 기계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신체는 분할됨으로써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환자를 질병이나 파편화된 신체로 인식한다. 이를 비판하며, 각자의 고유한 필요와 욕구를 가진 온전한 개체로 환자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료의 시작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Pierce, 2019). 이러한 의미에서 환자,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감수성은 의료적 전문가로서 갖춰야 하는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Mol, 2008). 『수의 간호학에서 돌봄 구상: 이론과 실천 (Veterinary nursing

*care plans: Theory and practice)』 저자 발렌타인 (Ballantyne, 2017)에 따르면, 의료적 돌봄에 대한 정의는 195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수의학에서의 돌봄이나 간호에 대한 명확하고 널리 사용되는 정의는 없으며, 이 주제에 대한 논의도 전무하다.*

한국에서 동물 돌봄에 대한 전문직업성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된 ‘동물보건사 자격증 제도’<sup>11)</sup>가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상황이다. 이러한 인간-동물 관계 변화의 흐름과 사회적 상황에서 ‘동물 의료적 돌봄’ 혹은 ‘동물 환자 돌봄’ 개념은 부재하다. 이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적인 논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의 전문직업성과 수의윤리 분야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동물 의료가 지향하는 ‘돌봄’의 의미는 의료에서 와 같을 수 없다. 이는 동물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수의사가 맺고 있는 의존성과 종을 초월한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총체적 고려를 포함해야 한다. 동물 의료에서 돌봄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틀을 세우기 위해 보호자들의 실제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경험적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의의 가 있다.

### 3. 한계 및 향후 과제

인간의 내러티브를 통해 ‘필연적으로 사적이며, 동물이 말해주지 않는 그들의 경험들에 접근가능한가’라는 인간-동물 관계 연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Veit & Browning, 2021). 개별 동물의 경험과

---

11) 수의사법 제2조 및 제16조 의거

일생에 대한 묘사는 당사자 스스로 발화할 수 없다. 베잇과 브라우닝은 우리가 말 그대로 동물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상학적, 질적 경험적 방법들을 통해 동물의 경험을 실제적이며 윤리적인 목적과 과학적인 목적 모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 공간, 생활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는 인간의 내러티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묘사되는 동물과의 의사소통과 공감의 순간, 공유하는 경험들, 서로를 변화시키는 상호성, 동물의 ‘삶과 죽음’이 담겨있는 내러티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동물의 일생을 구성하고 기록하는 방식의 실증적 자료로서, ‘인간-동물 생애사’ 방법론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안해볼 수 있다. 추후 방법론적 타당성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통한 이론적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샘플링) 선택과 데이터 수집 측면이다. 3-40대 여성과 미혼의 비율이 높은 본 연구의 참여자 특성으로 인해 편향적인 돌봄 양상이나 관계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 가능하다. 또한 면담 기간 당시에 갖고 있던 관점으로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는 후향적(retrospective) 방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당시 맺고 있던 관계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모든 돌봄 경험은 ‘실패한’ 돌봄이나 관계가 아니다. 동물의 노화,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 최선의 돌봄을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하지만 모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헌신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보호자 관계는 너무 쉽게 변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이는 비단 동물의 건강 이상이나 의존성에 의한 돌봄 부담에서 비롯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자들의 생애 주기 변화나

생애 사건에 의한 종료인 경우도 많다 (Shir-Vertesh, 2012). 이러한 돌봄 위기 상황에 대한 경험 연구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본 연구를 수행하며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성 연구 참여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 대상, 다양한 연령, 반려동물 파양 (시도) 경험자 등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관계적 특성을 확장시키고, 이에 더해 종단적인 코호트 연구방법을 통해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인간-동물 관계와 삶의 역동과 흐름을 더욱 풍부하게 그려낼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심 주제는 동물의 노화, 질병, 죽음 경험이라는 특수한 시기의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동물 관계와 보호자 경험의 이해로 제한하였으나, 연구의 확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예로 동물을 데려오기 전 선택을 위해 진행하는 고객과 수의사 사이의 전 상담 (pre-consultation) 과정이나, 동물의 ‘삶의 질’ 혹은 ‘복지’ 전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등 주제별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반려동물-보호자 관계와 이를 둘러싼 맥락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실제적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더해 동물의 고령화, 인터넷과 미디어의 영향 및 돌봄의 의료화 흐름 등으로 인해 보호자들이 갖는 ‘건강’과 ‘관리’, ‘좋은 죽음’의 개념이 매우 상이하며, 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가정 내 돌봄의 방식, 병원 내원이나 수의학적 개입 여부,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갖는 건강, 질병, 노화, 죽음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양적 연구와 이에 더해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주제에 대한 질적, 양적 연구를 시행하여 두 집단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부정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오해를 줄이고, 공유 의사결정에 도움을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진행하며 반려동물-보호자의 경험을 살피고 이해하기 위해 인문학, 사회학, 여성학, 수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관점과 이론을 통해 다각도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다. 더욱 깊이 있는 통찰과 발전을 위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실제적이고 경험적 결과를 시작으로 반려동물-보호자 돌봄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

#### 4. 결론: 변하는 ‘돌봄’과 변하지 않는 ‘돌봄의 이유’

본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위해 경험하는 돌봄의 다층적이고 상호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이러한 특성이 인간과 동물의 생애를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삶의 과정’으로서 돌봄을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반려동물 돌봄은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하며, 체현된 지식과 습관을 쌓는 과정이었다. 동시에 순탄치만은 않은 상호 타협과 적응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 갖는 관계적 의존성으로 인해, 일상적 양육 및 정서적 돌봄과 간병까지를 포함하는 돌봄 수행의 양상과 범위 변화가 동물의 생애주기를 따라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보호자는 이에 따라 자신의 돌봄 역할과 정체성을 재구성해야했다. 또한 가족 구성과 보호자 생애 주기에 따라 돌봄의 방식과 지원, 갈등과 어려움 양상은 달라졌다. 반려동물-인간 사이 돌봄은, 서로 같은 방식으로 주고받는 절대적인 호혜성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 돌봄처럼 태어나면서 내면적으로 갖게 되는 배태(胚胎)적 의무의 형태가 아니다. 즉 이 동물이 나중에 잘 자라서 나에게 같은 방식의 돌봄을 제공할 거라는 가능성이나 기대가 전혀 없이 이루어지는 돌봄이다. 그럼에도, 많은 보호자들이 다양한

어려움과 한계를 받아들이며 동물의 죽음까지를 헌신적으로 돌본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속 돌봄 수행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돌봄의 이유가 있음을, 혹은 필요함을 확인했다. 신체적, 금전적, 감정적 소모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이어가고, 동물의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돌봄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동기와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사회와 제도가 단순화시켜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보호자’의 기저에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갖는 감정적 가치, 즉 애정, 친밀감, 연민, 의존성 ('나만의 가족', '나를 위로했던 존재', '나를 지켜준 존재')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들어가는 '정'이 켜켜이 쌓여있었다. 즉, 가만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눈빛으로 마음을 교환하며, 내가 슬퍼할 때 아무 말 없이 곁에서 '온기'를 주던 존재의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하는 '돌봄의 이유'는 이들로부터 받은 정서적 돌봄에 대한 특별한 호혜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은 돌봄을 위한 신체접촉을 통해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인간(영·유아 제외)에서와는 달리 일상과 사회에서 허용되는 이러한 신체 접촉의 '상호 수용'을 통해 인간과 반려동물은 사람들보다 훨씬 가깝게, 훨씬 자주, 그리고 동물의 전 생애동안 '몸'을 부대낀다. 몸을 부대끼며 주고받는 '정서적 상호작용'과 '촉각적 상호작용'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계적 책임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개와 고양이가 가진 보송보송한 털과 말랑말랑한 살, 인간보다 살짝 더 높은 체온은, 이 부드럽고 따뜻한 존재를 끌어안고 싶게 만든다.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거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동물들을 쓰다듬다보면, 그들은 가만히 견뎌주거나, 신뢰의 눈빛이나 만족의 그렁거림을 보내주거나, 조심스러운 향기, 혹은 편안하게 몸을 기대기 등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한다. 이렇게 늘 부대끼던 동물들의 몸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노화와 질병, 죽음의 현상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함께'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생애주기에 따른 동물의 변화는 돌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상호작용의 양상을 바꿨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동물을 ‘끝까지’ 돌보고자 했다. 이는 동물이 늙고 아프고 죽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돌봄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관계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동물의 취약성과 생의 불확실성 속에서의 연민과 감정이 그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오랜 시간 이어져왔을 인간과 개·고양이의 특별한 관계와 그들이 공유하는 삶과 죽음과 돌봄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 위에 덧대지는 또 하나의 기록이다. 또한 동물 환자와 보호자의 흔치않은 투병과 간병의 기록이기도 하다. 실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타인의 반려동물이라는 존재는 너무 쉽게 잊혀 지거나, 마치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들에게 동물들은 매우 특별하며, 유일한 존재로서 서로의 생애와 기억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범주를 넘어 ‘함께 잘 살기위해’ 몸과 마음을 쓰는 과정으로의 돌봄의 실천과 가치, 상호성의 의미, 그리고 그들이 맺는 돌봄 관계의 ‘무게’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더욱 넓고 깊게 이해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심귀연. (2022). 『내 머리맡의 사유』,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 천명선. (2008). 『근대 수의학의 역사』, 한국학술정보.
- 구승영. (2019). 세월호 사건을 겪은 학교에서 상담사로 살아내기.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시원. (2021). 돌봄의 궤적 :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서사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강대중. (2009). 평생학습 연구 방법으로 학습생애사의 의의와 가능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 201-223.
- 공병혜. (2009). 메를로-퐁티의 신체의 현상학과 간호에서의 질병체험. *현상학과 현대철학*, 40, 57-81.
- 권명아. (2020). 젠더 · 어펙트 연구에서 연결성의 문제: 데이터 제국의 도래와 ‘인문’의 미래. *석당논총*, 77, 5-38.
- 김민정. (2013). 애완동물, 반려동물과 버려지는 동물, 인간소외. *문화과학*, 76, 130-149.
- 김영임. (2021). 반려동물의 시적 구현이 갖는 ‘동물로의 전회’ 가능성 검토-최근 발표된 동물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70), 11-38.
- 김용규, & 최성희. (2019). 동물의 권리와 돌봄의 문화. *비평과 이론*, 24(1), 137-165.

김은정. (2014). 20 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83-129.

모효정. (2015). 반려동물의 상실로 인한 슬픔, 펫로스 (Pet Loss) 증후군의 증상과 대처. *인간·환경·미래*, 15, 91-120.

박언주. (2020). 인간 존엄의 조건으로서의 상호의존과 연결성: 치매인의 경험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429-437.

송충기. (2018). 역사학에서 ‘동물로의 전환 (Animal Turn)’- 짐승의 사회문화사에서 포스트휴머니즘 역사로. *서양사론*, 139, 212-241.

심지원, & 박삼현. (2020). 의료화된 몸과 자기 돌봄을 통한 주체적인 몸. *아시아문화연구*, 52, 39-63.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 김태령.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 연구 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7.

안선희. (2016). 개-엄마들의 사회적 세계: 고급동물종합병원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수현. (2020).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정동적 노동과 삶능력. *영어영문학연구*, 46(3), 169-189.

이동성 & 김영천. (2014).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포괄적 분석절차 탐구: 실용적 절충주의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1), 159-184.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 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

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32.

이용숙. (2017).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의 의미와 반려동물로 인한 구별 짓기. *한국문화인류학*, 50(2), 337-403.

이인경. (2022). 생애사 연구방법 탐구: 생애사 연구 경험의 성찰. *한국특수체육학회지*, 30(2), 103-118.

이재준. (2021). 혐오의 정동. *현상과인식*, 45(4), 37-62.

이현서, & 한재희.(2018). 중년여성들의 노화반려견 상실경험. *상담학연구*, 19(3), 257-276.

임부연. (2023). 유보통합에서 돌봄에 대한 학문적 탐구. *영유아교육과정 연구*, 13(1), 102-128.

임소연. (2011). 여성들의 기술과학 실행에 대한 ‘기술-과학적 방식의 생각하기’: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1(2), 97-119.

자크 데리다, 최성희, & 문성원. (2013). 동물, 그러니까 나인 동물 (계속). *문화과학*, 76, 299-378.

주윤정. (2020). 경이와 돌봄의 정동: 천성산과 제주의 여성 지킴이들. *젠더와 문화*, 13(2), 79-113.

한아람, & 송근호. (2020). 반려동물 보호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취득 경로에 따른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인문사회* 21, 11(1), 507-520.

허라금. (2018). 관계적 돌봄의 철학:‘필요의 노동’을 넘어 ‘정치적 행위’로. *사회와 철학*(35), 67-90.

김현중, 이정민, & 이형용. (2019).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Retrieved from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03284>

윤상준. (2021.10.13.). 반려동물 가구 반토막에 통계청장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맞다’ 데일리벳. Retrieved from <https://www.dailyy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54809>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2018).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 보도자료.

Arluke, A., & Sanders, C. (1996). *Regarding animals*.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Ballantyne, H. (2017). *Veterinary nursing care plans: Theory and practice*: CRC Press.

Corbin, J., & Strauss, A. (201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Diamond, J. M., & Ordunio, D. (2001). *Guns, germs, and steel*. High Bridge Company.

Donaldson, S., & Kymlicka, W. (2011). *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Donohoe, J. (2016). *Husserl on ethics and intersubjectivity: From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Donovan, J., & Adams, C. J. (2007). *The feminist care tradition in animal ethics: A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Fraser, D. (2008). *Understanding Animal Welfare: The Science in its Cultural Context*: Wiley-Blackwell.

Freidson, E. (1970). *Professional dominance: The social structure of medical care*. Transaction Publishers.

Gruen, L. (2015). *Entangled empathy: An alternative ethic for our relationships with animals*: Lantern Books.

Haraway, D. J. (2003). *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 Dogs, people, and significant otherness*. Chicago: Prickly Paradigm Press.

Haraway, D. J. (2016). *Manifestly haraway* (Vol. 37): U of Minnesota Press.

Ingold, T. (2021). *Imagining for Real: Essays on Creation, Attention and Correspondence* (1st ed.). Routledge.

Jones, S. D. (2003). *Valuing animals: Veterinarians and their patients in modern America*: JHU Press.

Kuckartz, U., & Rädiker, S. (2019). Analyzing qualitative data with MAXQDA (pp. 1–290).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Marcum, J. A. (2008). An introductory philosophy of medicine: Humanizing modern medicine (Vol. 99):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Mol, A. (2008). The logic of care: Health and the problem of patient choice: Routledge.

Morgan, D. (2011). Rethinking family practices: Springer.

Noddings, N. (2010). The Maternal Factor: Two Paths to Mor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lson, K., Young, R. A., & Schultz, I. Z. (2016). Handbook of qualitative health research for evidence-based practice: Springer.

Rollin, B. E. (2006). An introduction to veterinary medical ethics: theory and cases (2 ed.): Wiley-Blackwell.

Palmer, C. (2010). Animal ethics in context: Columbia University Press.

Pierce, J. (2012). Last Walk (p.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aldaña, J. (2012).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2 ed.): sage.

Serpell, J., & Barrett, P. (2017). The domestic dog: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rpell, James. (1996). In the Company of Animals: A Study of Human-Animal Relationship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earer, T., Pierce, J., & Shanan, A. (2017). Hospice and palliative care for companion animals: principles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Singer, Peter. (2002). Animal Liveration. Rev. ed. New York: Harper Perennial.

Swabe, J. (1999). Animals, disease and humansociety: human-animal relations and the rise of veterinary medicine: Routledge.

Thomas, K. (1984). Man and the natural world: Changing attitudes in England 1500–1800. Penguin UK.

Tuan, Y. (1984). Dominance and affection: the making of pet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Weil, K. (2012). Thinking animals: Why animal studies now? : Columbia University Press.

Wolfe, C. (2003). Zoontologies: the question of the animal: U of Minnesota Press.

Yeates, J. (2013). Animal welfare in veterinary practice: John Wiley & Sons.

Reilly, M. (2018). The Lived Experience of Grief After the Death of a

Long-Term Companion Animal (Doctoral dissertation, Antioch University).

Aaltola, E. (2013). Empathy, Intersubjectivity, and Animal Philosophy. *Environmental Philosophy*, 10(2), 75–96.

Ackerman, L. J. (2021). Pet-Specific Care for the Veterinary Team: Wiley Online Library.

Applebaum, A.J.; Breitbart, W. (2013). Care for the cancer caregiver: A systematic review. *Palliat. Support. Care*, 11, 231-252.

Armitage-Chan, E. (2020). ‘I wish I was someone else’: complexities in identity formation and professional wellbeing in veterinary surgeons. *Veterinary record*, 187(3), 113-113.

Beach, S.R.; Schulz, R.; Yee, J.L.; Jackson,S. Negative and positive health effects of caring for a disabled spouse: Longitudinal findings from the Caregiver Health Effects Study. *Psychol. Aging*2000, 15, 259-271.

Bishop, G., Cooney, K., Cox, S., Downing, R., Mitchener, K., Shanen, A., . . . Wynn, T. (2016). 2016 AAHA/IAAHPC end-of-life care guidelines. *Journal of the 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52(6), 341-356.

Borgi, M., & Cirulli, F. (2016). Pet face: Mechanisms underlying human-animal relationships. *Frontiers in psychology*, 298.

Bowlby, J. (1969). Disruption of affectional bonds and its effects on behavior. Canada’s mental health supplement.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Britton, K., Galioto, R., Tremont, G., Chapman, K., Hogue, O., Carlson, M. D., & Spitznagel, M. B. (2018). Caregiving for a Companion Animal Compared to a Family Member: Burden and Positive Experiences in Caregivers.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 5, 325.

Brown, C. R., Edwards, S., Kenney, E., Pailler, S., Albino, M., Carabello, M., . . . Lopez, J. (2023). Family Quality of Life: pet owners and veterinarians working together to reach the best outcome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1, 1-6.

Brown, C. R., Garrett, L. D., Gilles, W. K., Houlihan, K. E., McCobb, E., Pailler, S., . . . Wietsma, H. T. (2021). Spectrum of care: more than treatment op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59(7), 712-717.

Buller, H. (2015). Animal geographies II: method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9(3), 374-84.

Bunyak, G. (2019). Fat Cats and Porky Pooches: “Pet Obesity,” Moral Panic, and Multi-Species Possibilities. *Society& Animals*, 1,1-20.

Burrow, R. (2017). The discursive accomplishment of identity during veterinary medical consultations in the UK. *Identity Struggles: Evidence from Workplaces Around the World*. Amsterdam: John Benjamins, 355-370.

Canady, B., & Sansone, A. (2019). Health care decisions and delay of

treatment in companion animal own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26(3), 313-320.

Charles, N., & Davies, C. A. (2011). My family and other animals: pets as kin. In *Human and other animals* (pp. 69–92): Springer.

Charles, N. (2014). ‘Animals just love you as you are’: Experiencing kinship across the species barrier. *Sociology*, 48(4), 715-730.

Charles, N. (2016). Post-human families? Dog-human relations in the domestic sphere.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21(3), 83-94.

Christiansen, S. B., Kristensen, A. T., Sandøe, P., & Lassen, J. (2013). Looking After Chronically Ill Dogs: Impacts on the Caregiver’s Life. *Anthrozoös*, 26(4), 519–533.

Clandinin, D. J., & Rosiek, J. (2007). Mapping a landscape of narrative inquiry.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35–75.

Cudworth, E. (2019). Muddied Living: making home with dog compan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41(3/4), 424-439.

Cudworth, E. (2022). Labors of love: Work, labor, and care in dog-human relations. *Gender, Work & Organization*, 29(3), 830-844.

de La Bellacasa, M. P. (2012). ‘Nothing comes without its world’: thinking with care. *The Sociological Review*, 60(2), 197-216.

de La Bellacasa, Maria Puig. *Matters of Care: Speculative Ethics in*

More Than Human Worlds. Vol. 41: U of Minnesota Press, 2017.

De Haven, W. R. (2014). Are we really doing enough to provide the best veterinary care for our pet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44(9), 1017–1018.

Desmond, J. (2016). Displaying death and animating life: Human-animal relations in art, science, and everyday lif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esmond, J. (2022). Medicine, Value, and Knowledge in the Veterinary Clinic: Questions for and From Medical Anthropology and the Medical Humanities. *Frontiers in Veterinary Science*, 150.

Doka, K. J. (1999). Disenfranchised grief. *Bereavement care*, 18(3), 37–39.

Dotson, M. J., & Hyatt, E. M. (2008). Understanding dog-human companionship.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1(5), 457–466.

Enders-Slegers, M. J. (2000). The meaning of companion animals: Qualitative analysis of the life histories of elderly catand dog owners. Companion animals and us: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pets, 237–256.

Engster, D. (2005). Rethinking care theory: The practice of caring and the obligation to care. *Hypatia*, 20(3), 50–74.

Engster, D. (2006). Care ethics and animal welfare.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7(4), 521–536.

Field, N. P., Orsini, L., Gavish, R. & Packman, W. (2009). Role of attachment in response to pet loss. *Death Stud*, 33, 334-55.

Fox, R. (2006). Animal behaviours, post-human lives: Everyday negotiations of the animal-human divide in pet-keeping. *Social& Cultural Geography*, 7(4), 525-537.

Fox, R., & Gee, N. R. (2016). Changing conceptions of care: Humanization of the companion animal-human relationship. *Society & Animals*, 24(2), 107-128.

Fudge, E., & Palmer, C. (2011). Veterinary science: humans, animals and health.

Given, C.W.; Given, B.; Azzouz, F.; Kozachik, S.; Stommel, M. (2001). Predictors of pain and fatigue in the year following diagnosis among elderly cancer patients. *J. Pain Symptom Manag*, 21, 456-466.

Goldberg, K. (2019). Issues in serious veterinary illness and end-of-life care. In Clinician's Guide to Treating Companion Animal Issues (pp. 395-419): Elsevier.

Graham, T. M., Milaney, K. J., Adams, C. L.,& Rock, M. J. (2019). Are millennials really picking pets over people? taking a closer look at dog ownership in emerging adulthood. *Canadian Journalof Family and Youth/Le Journal Canadien de Famille et de la Jeunesse*, 11(1), 202-227.

Greenebaum, J. (2004). It's a dog's life: Elevating status from pet to "fur baby" at yappy hour. *Society & Animals*, 12(2), 117-135.

Greenhough, B., & Roe, E. (2011). Ethics, space, and somatic sensibilities: comparing relationships between scientific researchers and their human and animal experimental subject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9(1), 47–66.

Grunfeld, E.; Coyle, D.; Whelan, T.; Clinch,J.; Reyno, L.; Earle, C.C.; Willan, A.; Viola, R.; Coristine, M.; Janz, T.; et al. (2004). Family caregiver burden: Results of a longitudinal study of breast cancer patients and their principal caregivers. *CMAJ*, 170, 1795-1801.

Hamington, M. (2017). Care, Moral Progress, and Companion Animals. In *Pets and people: The ethics of our relationships with companion animals* (pp. 49–63): Oxford University Press.

Hamington, M. (2012). Care ethics and corporeal inquiry in patient relations. *IJFAB: International Journal of Feminist Approaches to Bioethics*, 5(1), 52-69.

Hawkins, R. D., Hawkins, E. L., & Tip, L.(2021). “I Can’t Give Up When I Have Them to Care for”: People’s Experiences of Pets and Their Mental Health. *Anthrozoös*, 34(4), 543-562.

Hee-Kang Kim. (2018). Care and Political Theory Without Car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2(2), 203-224.

Hermanns, M., & Mastel-Smith, B. (2012). Caregiving: A Qualitative Concept Analysis. *The Qualitative Report*, 17(38), 1-18.

Herzog, H. A. (2007). Gender differences in human-animal interactions: A review. *Anthrozoös*, 20(1), 7-21.

Herzog Jr, H. A., Betchart, N. S., & Pittman, R. B. (1991). Gender, sex role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animals. *Anthrozoös*, 4(3), 184–191.

Heuberger, R. A., & Pierce, J. (2017). Companion-animal caregiver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regarding end-of-life care. *Journal of applied animal welfare science*, 20(4), 313–323.

Hickrod, L. J., & Schmitt, R. L. (1982). A Naturalistic Study of Interaction and Frame: The Pet as “Family Member”. *Urban Life*, 11(1), 55–77.

Hodgson, K., & Darling, M. (2011). Pets in the family: Practical approaches. *Journal of the 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47(5), 299–305.

Hurn, S., & Badman-King, A. (2019). Care as an alternative to euthanasia? Reconceptualizing veterinary palliative and end-of-life care. *Medical anthropology quarterly*, 33(1), 138–155.

Huth, M. (2020). On facing different kinds of animal patients—reflecting veterinary ethical responsibility. *Berliner und Münchener Tierärztliche Wochenschrift*, 133.

Irvine, L., & Cilia, L. (2017). More-than-humanfamilies: Pets, people, and practices in multispecies households. *Sociology Compass*, 11(2), e12455.

Jones, S. D. (1997). Framing animal disease: House cats with feline urological syndrome, their owners, and their doctors.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52(2), 202–235.

Kean, H. (2012). Challenges for historians writing animal-human history: what is really enough? *Anthrozoös*, 25(sup1), s57-s72.

Kogan, L. R., Wallace, J. E., Hellyer, P. W., & Carr, E. C. (2022). Canine Caregivers: Paradoxical Challenges and Rewards. *Animals*, 12(9), 1074.

Larson, G., Karlsson, E. K., Perri, A., Webster, M. T., Ho, S. Y., Peters, J., . . . Fredholm, M. (2012). Rethinking dog domestication by integrating genetics, archeology, and biogeograph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23), 8878-8883.

Lerner, H. (2017). Conceptions of health and disease in plants and animals. *Handbook of the Philosophy of Medicine*. Dordrecht: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287-301.

Littlewood, K., Beausoleil, N., Stafford, K., & Stephens, C. (2021). "What Would You Do?": How Cat Owners Make End-of-Life Decisions and Implications for Veterinary-Client Interactions. *Animals*, 11(4), 1114.

Lue, T. W., Pantenburg, D. P., & Crawford, P. M. (2008). Impact of the owner-pet and client-veterinarian bond on the care that pets receive.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32(4), 531-540.

Meehan, M. (2009). Enhancing Communication and Life Skills in Veterinary Students.

Matte, A. R., Khosa, D. K., Coe, J. B., Meehan, M., & Niel, L. (2020). Exploring veterinarians' use of practices aimed at understanding and providing emotional support to clients during companion animal

euthanasia in Ontario, Canada. Veterinary record, 187(9), e74-e74.

Mellor, D. J., & Beausoleil, N. J. (2015). Extending the 'Five Domains' model for animal welfare assessment to incorporate positive welfare states. Anim. Welf, 24(3), 241.

Min, Sungeun, Choi, Sungho, & Kim, Youngchun (2017). A theoretical exploration of a conceptual model of lifehistory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1), 465-500.

Morgan, C. (2007). Autonomy and paternalism in quality of life determinations in veterinary practice. Animal welfare, 16(2), 143-147.

Nettifee, J. A., Munana, K. R., & Griffith, E. H. (2017).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epilepsy in dogs on their caregivers. Journal of the American Animal Hospital Association, 53(3), 143-149.

Nogueira Borden, L. J., Adams, C. L., Bonnett, B. N., Ribble, C. S., & Shaw, J. R. (2019). Comparison of veterinarian and standardized client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during euthanasia discus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54(9), 1073-1085.

Ormerod, E. J. (2008). Bond-centered veterinary practice: Lessons for veterinary faculty and students. Journal of veterinary medical education, 35(4), 545-552.

Packman, W., Field, N. P., Carmack, B. J.,& Ronen, R. (2011). Continuing bond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pet lo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6(4), 341-357.

Palmer, C. (2017). "Taming the wild profusion of existing things?" A study of Foucault, power, and human/animal relationships. In Foucault and animals (pp. 105–131). Brill.

Payne, E., Bennett, P. C., & McGreevy, P. D. (2015). Current perspectives on attachment and bonding in the dog-human dyad.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8, 71.

Pierce, J. (2019). The Animal as Patient: Ethology and End-of-Life Care. *Veterinary Clinics: Small Animal Practice*, 49(3), 417–429.

Power, E. (2008). Furry families: making a human-dog family through home. *Social & Cultural Geography*, 9(5), 535–555.

Reynolds, C., Oyama, M., Rush, J., Rozanski, E., Singletary, G., Brown, D., . . . Adin, D. (2010).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and priorities of owners of cats with heart disease. *Journal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24(6), 1421–1426.

Ritvo, H. (2007). On the animal turn. *Daedalus*, 136(4), 118–122.

Rollin, B. E. (2005). Ethics of critical care. *Journal of Veterinary Emergency and Critical Care*, 15(4), 233–239.

Savolainen, R. (2019). Elaborating the sensory and cognitive-affective aspects of information experience.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2(3), 671–684.

Salzani, C. (2017). From Post-Human to Post-Animal. Posthumanism and the «Animal Turn». *Lo Sguardo-rivista di filosofia*, 24, 97–109.

Sanders, C. R. (2003).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Clos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nonhuman animals. *Symbolic Interaction*, 26(3), 405–426.

Sanders, C. R. (2007). Mind, self, and human-animal joint action. *Sociological Focus*, 40(3), 320–336.

Sandøe, P., Corr, S., & Palmer, C. (2015). Companion animal ethics: John Wiley & Sons.

Satama, S., & Huopalainen, A. (2019). ‘Please tell me when you are in pain’: A heartbreakng story of care, grief and female-canine companionship. *Gender, Work & Organization*, 26(3), 358–376.

Schlünder, M., & Schlich, T. (2009). The Emergence of “Implant-pets” and “Bone-sheep”: Animals as New Biomedical Objects in Orthopaedic Surgery. *History and philosophy of the life sciences*, 429–460.

Schuurman, N. (2017). Performing good death at the veterinary clinic: Experiences of pet euthanasia in Finland. *Area*, 49(2), 208–214.

Selter, F., Persson, K., Risse, J., Kunzmann, P., & Neitzke, G. (2022). Dying like a dog: the convergence of concepts of a good death in human and veterinary medicine.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25(1), 73–86.

Serpell, J. A. (1987). Pet-Keeping in Non-Western Societies: Some Popular Misconceptions. *Anthrozoös*, 1(3), 166–174.

Seymour, M., & Wolch, J. (2010). “A little bird told me…”: Approaching

animals through qualitative metho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geography, 305–320.

Shaevitz, M. H., Tullius, J. A., Callahan, R.T., Fulkerson, C. M., & Spitznagel, M. B. (2020). Early caregiver burden in owners of pets with suspected cancer: Owner psychosocial outcomes, communication behavior, and treatment factors. *Journal of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34(6), 2636–2644.

Shanan, A. (2011). A veterinarian's role in helping pet owners with decision making. *Veterinary Clinics: Small Animal Practice*, 41(3), 635–646.

Shields, L., Pratt, J., & Hunter, J. (2006). Family centred care: a review of qualitative studi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5(10), 1317–1323.

Shir-Vertesh, D. (2012). “Flexible personhood”: Loving animals as family members in Israel. *American Anthropologist*, 114(3), 420–432.

Smith, J. A. (2003). Beyond dominance and affection: Living with rabbits in post-humanist households. *Society & Animals*, 11(2), 181–197.

Soares, J. B. P. C. (2020). Veterinary Anthropology and Companion Species: technoscience, pet owners and ethics of care.

Solhjoo, N., Krtalic, M., & Goulding, A. (2021). Pets and people: information experience of multispecies families. *Journal of Documentation*. 78(5), 1092–1108.

Song, J.I.; Shin, D.W.; Choi, J.Y.; Kang, J.; Baik, Y.J.; Mo, H.; Park, M.H.;

Choi, S.E.; Kwak, J.H.; Kim, E.J. (2011). Quality of life and mental health in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Support. Care Cancer*, 19, 1519–1526.

Spain, B., O'Dwyer, L., & Moston, S. (2019). Pet Loss: Understanding Disenfranchised Grief, Memorial Use, and Posttraumatic Growth. *Anthrozoös*, 32(4), 555–568.

Spitznagel, M. B., & Carlson, M. D. (2019a). Caregiver burden and veterinary client well-being. *Veterinary Clinics: Small Animal Practice*, 49(3), 431–444.

Spitznagel, M. B., Cox, M. D., Jacobson, D.M., Albers, A. L., & Carlson, M. D. (2019b). Assessment of caregiver burden and associations with psychosocial function, veterinary service use, and factors related to treatment plan adherence among owners of dogs and cats.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54(1), 124–132.

Springer, S., & Flammer, S. A. (2021). Shifting from ‘cure’ to ‘care’ -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small animal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Justice and food security in a changing climate*(pp.3): Wageningen Academic Publishers.

Toadvine, T. (2007). “Strange Kinship”: Merleau-Ponty on the Human-Animal Relation. In *Phenomenology of Life from the Animal Soul to the Human Mind* (pp. 17–32): Springer.

Van Dooren, T. (2014). Care. *Environmental Humanities*, 5(1), 291–294.

Vigne, J.-D., Guilaine, J., Debue, K., Haye, L., & Gérard, P. (2004).

Early taming of the cat in Cyprus. *Science*, 304(5668), 259–259.

Veit, W., & Browning, H. (2021). Phenomenology applied to animal health and suffering. In *Phenomenology of bioethics: Technoethics and lived-experience* (pp. 73–88): Springer.

Voith, V. L. (1985). Attachment of People to Companion Animals. *Veterinary Clinics of North America: Small Animal Practice*, 15(2), 289–295.

Ware, C. E. (2018). Veterinary medicine and the spiritual imagination: a body-centered approach.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55(2), 9–38.

Weich, K., & Grimm, H. (2018). Meeting the patient's interest in veterinary clinics. Ethical dimensions of the 21st century animal patient. *Food Ethics*, 1(3), 259–272.

Wells, Y., & Rodi, H. (2000). Effects of pet ownership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people.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19(3), 143–148.

Williams, D., & Jewell, J. (2012). Family-centred veterinary medicine: learning from human paediatric care. *The Veterinary Record*, 170(3), 79–80.

Wood, L.; Martin, K.; Christian, H.; Nathan, A.; Lauritsen, C.; Houghton, S.; Kawachi, I.; McCune, S. (2015). The Pet Factor—Companion Animals as a Conduit for Getting to Know People, Friendship Formation and Social Support. *PLoS ONE*, 10, e0122085.

Woods, A. (2007). The farm as clinic: veterinary expertise and the transformation of dairy farming, 1930-1950.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Part C: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38(2), 462-487.

Yeates, J. (2010). Ethical aspects of euthanasia of owned animals. In *Practice*, 32(2), 70-73.

Zarit, S. H., Reever, K. E., & Bach-Peterson, J. (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6), 649-655.

Bunting, M. (2022). 사랑의 노동. (김승진 역). 서울: 반비. (원제: Labours of Love, 2020)

The Care Collective. (2021).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정소영 역). 서울: 니케북스. (원제: The care manifesto, 2020)

Conrad, P. (2018).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정준호 역). 서울: 후마니타스. (원제: Medicalization of Society: On the Transformation of Human Conditions into Treatable Disorders, 2007)

Creswell, J. W. (2013).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외역). 서울: 학지사. (원제: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2007)

DeMello, M. (2018). 동물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천명선, 조충현 역). 서울: 공존. (원제: Animals and Society, 2012)

Donohoe, J. (2022). 후설의 윤리학과 상호주관성. (최우석 역). 서울: 모

시는 사람들. (원제: Husserl on ethics and intersubjectivity: From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y, 2016)

Gilligan, C (2020). 침묵에서 말하기로. (이경미 역). 서울: 심심. (원제: In a Different Voice, 1982)

Glesne, C. (2008). 질적 연구자 되기. (안혜준 역).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원제: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2006).

Gregg, M. & Seigworth, G. J. (2016). 정동 이론.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역). 서울: 갈무리. (원제: The Affect Theory Reader, 2010)

Grenier, J. (2014). 어느 개의 죽음. (지현 역). 서울: 민음사. (원제: Sur la mort d'un chien, 1900)

Held, V. (2017). 돌봄: 돌봄윤리. (김희강, 나상원 역). 서울: 박영사. (원제: Ethics Of Care :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2005)

Kittay, F.E. (2017). 돌봄: 사랑의 노동. (김희강, 나상원 역). 서울: 박영사. (원제: Lover's Labor, 1999)

Merleau-Ponty, (2022).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제: M., La structure du comportement, P.U.F., 1942;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1945)

Tronto, J. C. (2021). 돌봄 민주주의. (김희강, 나성원 역). 서울: 박영사. (원제: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hic of Care, 1993)

## Abstract

# Lived Experiences of Caring for Pets

- with Animals' Aging, Disease, and Death -

Seola Joo

Veterinar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eterinary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Veterinary medicine should regard animals not just as objects of medical intervention but as actors who experience disease and death, recognizing the interaction of their relationships with people. Companion animal clinical practice has become the mainstream of modern veterinary medicine, giving greater significance to the pet-owner relationship. The health of pets depends on the care they receive from their owners, just as the health of animals affects the lives of their owners. Pet owners face many practical challenges, especially as their pets get older, ill, and die. These challeng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care" the animal receives. However, the experiences of pet owners have yet to be explored sufficiently.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pet owners' experiences of their pets' aging, disease, and dea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irty pet owners who had owned dogs and cats for over ten years. A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llected narratives about the life history shared with the pets.

As a result, due to the relational dependence between humans and their pets, changes in the nature and scope of care practices, from daily nurturing to caregiving for patients, occur constantly along the animal's life cycle. In this process, the "recognition" of the animal's change or their different life cycle from humans became a critical turning point in the transition in care. This was achieved through an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the owners' experiences, medical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their sensitivity to the animal's body and behavior. After recognition, "changes" in pet care and veterinary medical interventions began. Care became increasingly specialized, and paying attention to the animal's condition and experiences was crucial in identifying its needs. Due to the difficulty of linguistic exchange, owners ha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ir pets, using imagination and lived knowledge to better understand and care for them. Living with a sick animal was building embodied (mutual) knowledge and habits based on physical contact and empathy, a process of reciprocal change, compromise, and adaptation. Caring for animals throughout their lives and experiencing aging, disease, and death were also a "meaningful process" of learning and reflection about self, others, life, and death for the participants. In addition, the femininity of caring across species, which is the expression of sensitivity and relational values in the

participants' care experiences, was identified.

In conclusion, pet care needs to be understood as a "life course" that identifies the impact and role of the veterinarian and the expectations of owners, which are perceived differently at different times of the animal's care transition. From a veterinary perspective, this considera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presenting and choosing options for the animal's treatment, home care, or end-of-life decision-mak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providing care-based animal consultation and establishing the concept of 'care' in veterinary medicine. Given the unique interdependence of the pet-owner care relationship, promoting pet health and well-being requires attention to the multi-layered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aspects of care and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he perceived relational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pet owners with their care environment.

**Keywords:** companion animal/pet (dogs, cats), care, human-animal relationship, pet caregiver experiences, Veterinary-client-patient relationship

*Student Number : 2018-22408*

## Funding

본 연구는 “인간-동물 관계의 전환: 신사물론적 경계 허물기 (200-20180089)”, “위계에서 얹힘으로: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동물관계 (2019S1A5A2A03047987)”, 그리고 “수의학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수의인문사회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2021R1I1A2047656)” 과제를 통해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았다.

## 감사의 글

학위 과정과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고마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만, 이 지면을 빌려 짧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항상 부족한 제자를 믿고 이끌어 주시는 천명선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연구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연구에 대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동신 교수님, 주윤정 교수님, 이기창 교수님 그리고 강대중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학이라는 창을 통해서만 동물을 바라봤던 저에게, 대학원 진학 후 동물,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기 위한 매 순간은 도전과 즐거움과 괴로움과 깨달음이 얹히고설키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 (아마도 평생) 지속될 그 과정을 묵묵히 따라 걸을 수 있는 마음을,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연구실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의지하며,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누었던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 연구실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인간-동물 연구 네트워크에서 함께하며 크나큰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를 믿고 격려해주시는 부모님과 시부모님, 우리 식구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남편 홍성규가 그동안 베풀어준 배려와 응원에 힘입어 이 논문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한 생애가 담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모든 연구 참여자들께 함께 웃고 울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 논문이 나올 수 있었고, 반려동물과 맷는 돌봄 관계의 ‘의미’와 ‘무게’를 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의 인간-동물 관계와 이를 둘러싼 현상을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첫걸음을 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